舊譯仁王經 口訣 解讀 試攷

金 斗燦*

1.

『舊譯仁王經 上』(舊仁 上으로 略)은 고려초 구어체의 언어가 化石(筆跡)으로 殘存해 발견된 기록물(落張 五매)이다. 우리 국어학도에게는 너무도 잘 알려진 화제에 올랐던 석독구결 자료인데 최근에는 이 자료 외에도 속속 발굴된 『瑜伽師地論 20』, 『華嚴經 14』, 『華嚴經疏 35』, 『合部金光明經 3』 등이 더 햇볕을 보게 된 것도 이미 學界에서는 舊聞에 속한다.

우리가 이 자료 등에 유독 주목하는 표적(target)은 물론 羅麗時代에 가까운 '고려어'의 참모습을 찾아내어 볼 수 있게 된다는 큰 포부와 목적에 있다. 이것들이 장차 올바로 규명되어 당시의 생생한 '일상용어' 및 '문법범주'까지 再構하게 된다면 이로 말미암아 鄕歌의 解讀에도 보다 완벽한 접근이 이루어질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어서다.

---

* 율곡문화원

이 小稿를 쓰는 데 여러 先學(특히 南豊鉉, 沈在箕, 李東林 선생)들의 업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적어서, 이에 새삼 경의를 표한다. 그동안 '舊仁經 原文' 등 귀중본을 열람토록 허락해 주신 동국대 洪潤植 박물관 館長께, 그리고 '불서자료실'의 李東恩 선생에게도 그 厚意에 감사한다.

그러므로 필자도 이 자료, 『舊仁 上』에 대해 '구결학회'에서 조금씩 탐색한 결과를 여러 번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이 자료의 해독을 위해 무엇보다도 그 석독구결의 문법적 의미 기능을 좀더 합리적으로 파악할 목적으로 우선 나름대로 해석한 것들을 類合, 이를 체계화시켜 발표한 것이 『素谷 南豊鉉선생 華甲論叢』(1995)에 실은 것이다.

이하 본고에서 논술한 내용도 실은 위의 것(1995년 졸고)에 기초를 두고 이미 해독한 그 내용, 더 자세히는 1995년 여름 공동 연구회(단국대 천안 캠퍼스, 8월 10-11)의 것을 다소 보완하여 그대로 여기에 옮긴 것이다. 그렇게 하여 전자인 "구결의 기능체계"가 실제로 여기 해독문에서도 하나하나 정확하게 들어맞는가 확인시킬 목적도 아울러 갖는 것이다.(본 해독문 중, ≪ ≫표의 것이 바로 그 검증을 위한 대조의 표지이다.)

2.

2.1. 『舊仁』의 解題

이 자료 『仁王般若波羅蜜經』(木板本 卷上 落張 5枚)은 중국 後秦 弘始 3年(서기 402년), 인도 북 변방의 西域 나라 高僧 鳩摩羅什(Kumarajiva)이 산스크리트 佛經을 漢字를 빌어 音寫로 번역한 經典이라 한다.

板式은 심재기(1975:22)에서 세로 22.2㎝×가로 52.8㎝. 四周單邊 板匡 1行 17字 25行이고, 版心에 「舊譯仁王經 上」과 張次가 있다. 刊記는 未詳, 남풍현(1985:40)의 추정에서 12세기 중엽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經의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序論: 序品 第一. (① 證信, ② 發起)
①은 佛道의 說法을 듣기 위해, 수많은 衆生들이 寶蓮花 위에 參坐하다.

②는 波斯匿王이 八萬種의 音樂을 創作, 수많은 菩薩들도 音樂을 연주하며 이 會場에 雲集코 進入하다.

本論: 觀空品 第二. (內護의 果를 說함)
菩薩敎化品 第三. (內護의 因을 解함)
二諦品 第四. (內護의 因과 果를 論함)
護國品 第五. (外護를 總論함)
散華品 第六. (般若波羅蜜多를 論함)
受持品 第七. (內外護의 二護를 論함)
結論: 囑累品 第八. (七種의 敎勅을 受持, 奉行을 誓함)

이상에서 이 經의 '卷上'은 위 序論과 本論의 第四까지이고, '卷下'는 그 이하 結論의 第八까지이다. 따라서 본 자료(落張 5枚)는 序論 뒷 부분에서부터 本論의 일부분인 약간에 불과하다.

2.2. 『舊仁』 落張(5枚)의 內容

본 落張(5枚)을 『佛說仁王般若波羅蜜經 卷上』(東國大 발행: 『高麗大藏經 卷五』[放光般若經 外 十九部])의 原文(pp.1021-1027)과 對照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落張 (1): <張次二. 위 序品 第一 중, 그 일부분. 곧 위 東大本의 經, 1쪽 中段 8行-下段 15行까지이다.>(p.1021)
內容: 佛陀의 說法을 들으려 수많은 大衆이 蓮華座에 雲集, 波斯匿王도 參席하다.

落張 (2): <張次三. 위 序品 第一 중, 일부분과 觀空品 第二 중, 일부분. 곧 위 東大本의 經, 1쪽 下段 15行-2쪽 上段 21行까지이다.>(p.1021)
內容: 波斯匿王이 八萬種의 音樂을 創作하고, 四方 六方에서 菩薩들도 作樂하며 그 곳에 住하다. 佛陀와 波斯匿王의 問答이 始作되다.

落張 (3): <張次十一. 위 菩薩敎化品 第三 중간에서 後半 부분. 곧 東大本의 經, 5쪽 上段 16行-中段 20行까지이다.>(p.1025)
內容: 恒河沙의 大衆이 波斯匿王의 '般若波羅蜜多 講說'을 聽取하며 偈頌을 한 後半 부분이다.

落張 (4): <張次十四. 위 菩薩敎化品 第三의 後半과 二諦品 第四의 시작 부분. 곧 東大本의 經, 6쪽 中段 10行-下段 16行까지이다.>(p.1026)
內容: 幻諦의 法과 相待의 假法을 論하다. 波斯匿王과 佛陀가 第一義諦로서 問答하다.

落張 (5): <張次十五. 위 二諦品 第四의 시작 부분에서 중간 부분, 곧 東大本의 經, 6쪽 下段 17行-7쪽 上段 22行까지이다.>(p.1027)
內容: 第一義 중에서 二諦를 論하며 眞如의 本體를 問答하다.

2.3. 解讀의 지름

佛書 解讀의 지름길은 무엇보다도 先人들이 그러했듯이 白文을 먼저 읽고 나서, 그것의 해독이 옳다고 생각했을 때 비로소 하나하나 墨書로써 吐를 다는 것이 관례인 것으로 알고 있다.(寺刹 고승들의 이야기 확인) 그러므로 필자도 그 원칙에 따라 현토한 佛書 해독에서 '吐 위주의 분석'보다 우선 '釋 위주의 분석'이 先行해야 한다는 견해를 늦게나마 피력한 바 있다.

그만큼 佛書는 白文 해독부터 해 놓고, 연후에 토표기에 접근한다는 방법이 그 순서가 아닌가 한다. 그런 방식으로 필자도 먼저 대충 번역문(본문 [4.5.舊仁의 解讀] 중, '白文/譯注'<草稿>를 기초)를 써놓고 나서 그 해당되는 토 위에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쉬운 墨書의 吐들을 골라 하나씩 바꾸어 놓는다. 곧 原文 현토와 상호 바꾸는 작업을 진행시킨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서 쉬운 토에서 점점 어려운 미상의 토에로 바꾸어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同一吐는 同一義로서 다른 구절의 문맥에서도 同一하게 부합된다."는 원칙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곧 바꾸어 놓은 '번역토'들이 결국은 '진짜로 맞는가?' '아닌가?'를 반복해서 상호 확인시켜 가려내는 작업까지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졸고<1995c>, 對照.)

2.4. 解讀의 작업

그런데 이상만으로 번역의 작업이 끝난 것은 아니다. 결국 다음 5 가지 작업의 단계까지 거쳐야 비로소 거의 정밀성을 인정 받는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제1단계: 현토를 배제한 [白文]을 우선 대충대충 번역해 나간다. 그리고 번역문의 조사와 어미를 현토와 하나하나 쉬운 것부터 바꾸는 작업을 진행시킨다.

제2단계: 현토의 총목록표를 작성하고서 이를 類合으로 배열시켜 口訣機能體系(표)를 작성한다.

제3단계: 위 體系(표)에서 同一吐는 다른 문맥에서도 언제나 同一義로서 성립되는지를 합리적인 同一義의 吐 하나가 導出될 때까지 수정작업을 계속 진행시킨다.

제4단계: [漢字 + 토]의 해독을 主로 15세기 언어로써 모두 바꾸는 작업을 한다. 이로써 口訣機能體系(표)와 일치하도록 하여 놓은 후, 비로소 全文을 解讀 試攷한다.

제5단계: 결국 冒頭의 다른 4개의 석독구결 자료와 전부, 또는 鄕歌와도 同一吐는 언제나 同一義로서 성립하는지까지를 최종적으로 재검증한다.

3.

3.1. 漢字의 새김

우리는 舊仁 懸吐의 해독에서 묘수의 '토풀이'만이 完譯에 능사가 될 수는 없다. 첫째, 吐에 붙어 있는 漢字의 새김도 필수적이다. 둘째가 문맥이다. 그리고 셋째가 토풀이라고 믿고 있다. 佛書에선 특히 漢字, 하나의 글자(字)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 비록 하나의 單字라도 文章의 위 아래의 구절에서 그 單字가 갖고 있는 漢字의 뜻이 原義인지 아니면 생략된 글자로 읽어야 할지도 가려서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앞 장 제1단계의 작업을 위해, 舊仁의 모든 '漢字의 색인표'를 작성해서 그 古釋과 古音(中古音)을 정확히 引用하도록 한다. 물론 이것이 완전한 작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되나 그래도 '기초작업'으로선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서 만든 '漢字目錄'(佛書는 산스크리트를 漢譯한 것이므로 정확히 호칭한다면 '翻字目錄'이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여기서 총 字數(330字) 하나하나 새김을 한 것까지 넣은 표를 제시한다면 너무 量이 많고 해서 여기서는 체제상 그 漢字들에 古音만 넣는 것으로 줄인다. 왜냐하면 이미 아래 [4節의 해독문]에서 모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보기로 '가'항만 싣고 나머지는 전부 낱字 하나하나에 古音(거의 15세기 것)만을 달아 넣기로 한다.

凡例: 아래 目錄의 표제자인 漢字 배열은 가나다音順이고 같은 획수에선 획이 적은 것부터 나열한다(단 '라'항은 原音字). 이 표 안에서 예문(¶) 밑의 하이픈'_'표가 없는 것은 體言, 있는 것은 用言이다. 出典의 약호는 주지하는 바로 생략한다.

3.2. [漢字 + 토]의 새김

3.2.1. [單字 + 토]

위 [漢字 + 토]의 해독 중에서도 특히 '낱개의 漢字'인 한 字씩 현토된 [單字 + 토]가 역시 헷갈리기 쉬워 애매모호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서 이 單字를 訓讀할 것인가? 아니면 音讀할 것인가?가 매우 헷갈리고 까다롭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풀이하다 보면 결국 이것도 [單字 + ㅅ(ᄒᆞ)系 토]에서 문제가 하나로 모아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시 말하여 모든 [漢字 + 토]의 난해문제는 이 문제 [單字 + ㅅ(ᄒᆞ)系 토]의 해독 하나만 해결하면 나머지는 [單字 + ㅅ(ᄒᆞ)系外 토]로서 이것이 그 前後 句節의 문맥에서 반드시 佛經의 經文에 따라 順理대로 해독되면서 전체 해독은 쉽다고 이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서 이것만을 분석 및 검토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單字 + ㅅ(ᄒᆞ)系 토]가 '訓讀이냐?' '音讀이냐?'의 判別은 아래와 같다.

(凡例: 아래 [ ]표 안 번호는 용례가 있는 '解讀文'의 일련번호이다.)

1. 文例(ᄒᆞ添用語 포함)의 合理로 訓讀인 경우:

(1) 復ㅅ기(ᄯᅩᄒᆞᆫ)[1], [6]. (2) 量ㅅᄒᆞ(헤알ᄒᆞ옴)[1], [2]. (3) 變ㅅ_(변ᄒᆞ_)[1], [7].
(4) 異ㅅ기(달ᄒᆞ온)[3]. (5) 等ㅅ기(ᄀᆞᆮᄒᆞ온)[9], [12]. (6) 答ㅅ_(<ᄃᆡ>답ᄒᆞ_)[12].
(7) 亦ㅅ기(ᄯᅩᄒᆞᆫ)[13], [16]. (8) 護ㅅ_(간슈ᄒᆞ_)[18], [20]. (9) 散ㅅ_(비ᄒᆞ_)[19], [27].
(10) 餘ㅅ_(남ᄒᆞ_)[22]. (11) 今ㅅ기(엳ᄒᆞ온)[27], [30]. (12) 或ㅅ기(혹ᄒᆞ온)[29].
(13)_等ㅅ기(ᄃᆞᆯᄒᆞ온)[33], [37]. (14) 求ㅅ_(구ᄒᆞ_)[48].

2. 文例(語法)의 不合理로 音讀인 경우:
아래서 漢字 새김의 예는 대표의 것이나, 다른 새김도 결과는 같다.
이하 ?표는 '그런 文例'는 찾을 수 없다'는 뜻이다.

(1) 現ㅅ_(나타나+ᄒᆞ?)→현ᄒᆞ_ [1], [13].
(2) 化ㅅ_(ᄃᆞ외+ᄒᆞ?)→화ᄒᆞ_ [1], [21].
(3) 坐ㅅ_(안ᄌᆞ+ᄒᆞ?)→좌ᄒᆞ_ [2], [4].
(4) 思ㅅ_(싱각+ᄒᆞ?)→ᄉᆞᄒᆞ_ [5], [19].
(5) 來ㅅ_(오+ᄒᆞ?)→릐ᄒᆞ_ [4], [14].
(6) 入ㅅ_(들어+ᄒᆞ?)→입ᄒᆞ_ [5], [14].
(7) 放ㅅ_(<플어>노+ᄒᆞ?)→방ᄒᆞ_[5], [10].
(8) 照ㅅ_(ᄇᆞ싁+ᄒᆞ?)→죠ᄒᆞ_ [5], [26].
(9) 出ㅅ_(나+ᄒᆞ?)→출ᄒᆞ_ [6].
(10) 下ㅅ_(ᄂᆞ리+ᄒᆞ?)→하ᄒᆞ_ [7].
(11) 生ㅣ_(나+ᄒᆞ?)→싱ᄒᆞ_ [8].
(12) 作ㅅ_(짓+ᄒᆞ?)→작ᄒᆞ_ [10], [13].
(13) 行ㅅ_(녀+ᄒᆞ?)→힝ᄒᆞ_ [11], [59].
(14) 問ㅅ_(무러+ᄒᆞ?)→문ᄒᆞ_ [12].
(15) 動ㅅ_(뮈우+ᄒᆞ?)→동ᄒᆞ_ [13].
(16) 起ㅅ_(니러+ᄒᆞ?)→긔ᄒᆞ_ [17], [20].
(17) 住ㅅ_(머믈+ᄒᆞ?)→듀ᄒᆞ_ [17], [24].
(18) 告ㅅ_(니ᄅᆞ+ᄒᆞ?)→고ᄒᆞ_ [18].
(19) 念ㅅ_(싱각+ᄒᆞ?)→념ᄒᆞ_ [19], [44].
(20) 蓋ㅅ_(ᄃᆞᆮ+ᄒᆞ?)→개ᄒᆞ_ [19].
(21) 觀ㅅ_(보+ᄒᆞ?)→관ᄒᆞ_ [21].
(22) 除ㅅ_(덜+ᄒᆞ?)→뎌ᄒᆞ_ [22].
(23) 存ㅅ_(이시+ᄒᆞ?)→존ᄒᆞ_ [23].
(24) 登ㅅ_(오ᄅᆞ+ᄒᆞ?)→등ᄒᆞ_ [24].
(25) 居ㅅ_(살+ᄒᆞ?)→거ᄒᆞ_ [24].
(26) 禮ㅅ_(절+ᄒᆞ?)→례ᄒᆞ_ [25].
(27) 含ㅅ_(머금+ᄒᆞ?)→함ᄒᆞ_ [27].
(28) 歎ㅅ_(탄식?+ᄒᆞ?)→탄ᄒᆞ_ [27], [28].
(29) 轉ㅅ_(옮기+ᄒᆞ?)→뎐ᄒᆞ_ [29].
(30) 證ㅅ_(마초+ᄒᆞ?)→증ᄒᆞ_ [29].
(31) 解ㅅ_(그르+ᄒᆞ?)→힉ᄒᆞ_ [31], [48].
(32) 續ㅅ_(이ᄋᆞᆯ+ᄒᆞ?)→쇽ᄒᆞ_ [36].
(33) 成ㅅ_(이ᄅᆞ+ᄒᆞ?)→셩ᄒᆞ_ [38].
(34) 聽ㅣ_(듣+ᄒᆞ?)→텽ᄒᆞ_ [43], [44].
(35) 說ㅣ_(니ᄅᆞ+ᄒᆞ?)→셜ᄒᆞ_ [43], [44].
(36) 有ㅅ_(잇+ᄒᆞ?)→유ᄒᆞ_ [45], [47].
(37) 無ㅅ_(업스+ᄒᆞ?)→무ᄒᆞ_ [46], [50].
(38) 集ㅅ_(모ᄃᆞ+ᄒᆞ?)→집ᄒᆞ_ [46].
(39) 卽ㅅ_(곧+ᄒᆞ?)→즉ᄒᆞ_ [47].
(40) 謂ㅅ_(니ᄅᆞ+ᄒᆞ?)→위ᄒᆞ_ [48].
(41) 置ㅅ_(두+ᄒᆞ?)→티ᄒᆞ_ [54].
(42) 空ㅅ_(뷔+ᄒᆞ?)→공ᄒᆞ_ [55].
(43) 取ㅅ_(가디+ᄒᆞ?)→취ᄒᆞ_ [61].

위에서 예, 2(2)'化ㅅ_'는 原文의 문맥에서 '(變)化_', 또는 '(敎)化_'의 뜻이고, (3)'坐ㅅ_'는 '(參)坐_'의 뜻이고, (5)'來ㅅ_'는 '(到)來_'의 뜻이고, (6)'入ㅅ_'는 '(沒)入_', 또는 '(進)入_'의 뜻이고, (7)'放ㅅ_'는 '放(出)_'의 뜻,—따위이다. 이 佛經을 번역문으로 옮긴 鳩摩羅什은 물론이거니와 이 經書를 읽어가며 현토한 당시의 僧侶 자신도 經典에 담긴 종교적 崇仰心에서 그 場面 하나하나를 冥想하며 또 가슴에 새겨서 감회에 젖었을 것을 생각하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자료, 佛書가 時空을 초월한 엄청난 스케일의 雄大하고 莊嚴한 종교 의식에서 전개되는 超現實의 장면들임을

필히 전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따라서 거의 정통 '불교어'(漢字語)를 구사하며 새겨야 할 것인데, 이를 단지 平常人이 행하는 일상 '생활어'로 안이하게 풀이하면 非語法은 물론 오독의 소지까지 있지 않을까 해서이다. 이 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2.2. 〔複字+토〕

여기서 '複字'란 2개 이상의 漢字로 구성된 이른바 漢字 單語 따위를 말한다. 예하여 '具足', '他方',··'百億高座' 등, 모두 이에 속한다. 우리는 이것들에 현토된 漢字語彙(複字) 등을 이제까지 音讀하는 것만이 상식이고, 물론 이는 正解인 것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A. [複字+토]는 현토에 따라 音讀 외에, 訓讀도 허용할 수 있는 경우.

예, a. [座前ㄴ]<2:3>는 [좌젼ㅅ], 또는 [좌 알핏]으로도.
b. [座前ㅇ+]<2:17>는 [좌젼아히]로만 읽어야 할 것이다.

B. [複字+토]는 의미 기능에 따라 音讀 외에, 訓讀도 허용할 수 있는 경우.

예, [僉然ᄒᆞ]<2:9>는 [첨연히] 또는 [여러히]으로도.

위 예문에서 '여러히'<楞諺10:23a>는 '여러+ㅎ+이'(··+ㅎ添用+主格) , 또는 '여러히'(부사)<法諺1:39a> 등, 2 가지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를 音訓讀의 併用으로 봄이 옳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도 감안하며 본 解讀文의 풀이에 반영할 것이다.

3.3. 翻字目錄

< 가 >

001. **【可】** ① 어루ᄒᆞ는 마리오<月序9>, ② 音, 가<六祖序 4>, ③ ᄒᆞ얌직 가<類合上1b>, ④ 직가<光千 8b>, ⑤ 올흘가<石千8b>, ⑥ 허흘가<註千8b>¶可<2:2>, <11:23>

002. **【假】** ① 音, 가<六祖中20>, ② 빌가<訓蒙下10a>, ③ 빌가<類合下38a>, <光千・石千25a>, ④ 거츳/말ᄆᆡ가<註千25a>, ¶ 假有_<15:1>¶ 假法<14:7>¶ 假証<14:12>¶ 假成衆生<14:7>

003. **【各】** ① 音, 각<六祖中2>, ② 제굼 각<類合上7a>, ③ 각각<倭解上28b>¶各_<2:19>¶各_各_<2:3, 4, 6>—

004. **【角】** ① 音, 각<宣小3:17>, ② 쓸 각<訓蒙下5a>, ③쓸 각<類合上14a>, ④ 쓸 각<倭解下24a>¶ 二角<15:5>

005. **【覺】** ① 音, 각<六祖中13>, ② 씰 교<訓蒙上15b>, 꾸 ᄃᆞᆯ 각<類合下14b>¶ 覺寤_<3:12>

006. **【皆】** ① 모ᄃᆞᆫ<法華5:87>, ② 音, 기<飜小8:17>, ③ 다 기<類合上20a>, ④다기<光千・石千・註千40a>¶皆_<2:5>, <14:10> ¶ 皆ㅣ/모ᄃᆞᆫ의(모든의)<小諺6:83>

007. **【開】** ① 音, 기<六祖中61>, ② 열 기<訓蒙下1a>, ③ 열기<類合下62b>, <倭解上32b>¶ 開士<11:21>

008. **【蓋】** ① 音, 개<飜小8:6>, ② 갯개 又 두플개<訓蒙中7b>, ③두플개, 개개<類合上29a>, <石千7a>¶ 蓋<3:1>, ¶ 蓋_<3:21>

009. **【去】** 音, 거<飜小6:8>, ② 거<訓蒙凡例5>, ③ 갈거, ④덜거除也<註千14a>

010. **【居】** ① 音, 거<六祖中51>, ② 살 거<訓蒙下8b>, ③ <光千・石千31b>, ④어조ᄉᆞ긔<註千31b>¶ 居_<11:6, 7>, ¶ 居士<3:1>

011. **【劫】** ① 音, 겁<東國4권:1a>, ② 저럴 겁<類合下28a>

012. **【見】** ① 音, 견<六祖中2>, ② 현<飜小9:2>, ③볼견<訓蒙下12a>, ④볼견<類合下1a>,¶見_<14:12>

013. **【戒】** ① 音, 계<六祖中16> ② 경겟계<類合下34b>¶戒律<15:23>

014. **【界】** ① 音, 계<飜朴上29>, 계<六祖中14>

015. **【偈】** ① 音, 게로 묻ᄌᆞ와/以偈로 問-<法華1:67>, ②게<六祖中20>

016. **【告】** ① 眞實로 너ᄃᆞ려 니ᄅᆞ거늘(眞實告汝)<능엄.2:66> ②音, 고<六祖中50>, ③고ᄒᆞᆯ고<類合下39b>

017. **【故】** ① 音, 고<飜小8:30>, ②연고고<類合下17a>, <光千:35a>, ③ᄂᆞᆯ글고<石千・註千35a>,

018. **【高】** ① 音, 고<六祖中33>, ②노ᄑᆞᆯ고<類合下48b>, ③높흘고<註千22a>, ⑥ ¶高座<2:2>

019. **【功】** ① 音, 공<六祖序7>, ②공붓공<訓蒙下13b>, ③공공<類合下42a>, ④공붓공<光千22b>, ¶功德藏<11:14>

020. **【共】** ① 音, 공<宣小1:4>, ② 공<飜小8:29>, ③ 다ᄆᆞᆺ(ᄒᆞ도다)<杜초15:33b>, ④ ᄒᆞᆫ가지로공<類合下61b>.¶ 共_<2:19>, <3:7>—

021. **【空】** ① 音, 공<六祖中18>, ② 뷜공<類合下49a>, <光千・石千10a>.¶ 空<14:25>, ¶ 空_<15:15>, , ¶ 空中<14:13>, ¶ 空法<14:6>.

022. **【果】** ① 音, 과<六祖中75>, 과<飜朴上2, 과실>, ② 여름과<類合上10a>, <光千3b>, ③ 단결ᄒᆞᆯ과<註千3b>, ④ 과실과<倭解下6a>.¶ 果<15:25>, ¶ 果報<11:6>.

023. **【過】** ① 音, 과<宣孟1:26>, ② 과<飜小6:9>.

024. **【灌】** ① 音, 관<宣論1:22>, ② ᄆᆞᄇᆞᆯ관<類合下41b>.¶灌頂<11:1>.

025. **[觀]** ① 音, 관<六祖中35>, ② 집관, 볼관<訓蒙中5b>.③ 볼관<類合下12a>.¶觀_<3:24>, <15:9>.
026. **[光]** ① 音, 광<六祖中6>, ② 빗광<訓蒙下1a>, ③ 빗광<類合上32a>, <光千・石千2a>, ④<倭解下12a>.¶光<2:13>, <11:9>, ¶ 光讚般若波羅蜜<2:22>
027. **[廣]** ① 音, 광<六祖中19>, ② 너블광<類合下47b>, <光千・石千・註千20b>.③ 너븨광, 수뤼광<註千 20b>.¶ 方廣<2:8>
028. **[誑]** ① 音, 광<六祖上61>, 광<宣小1:7>, ② 쇽일ㅅ광<字類上52b>, ③ 속일광<兒學下4b>.¶ 誑有_<15:8>.
029. **[壞]** ① 音, 괴<飜小9:7>, ② 헐괴<類合下62b>, ③ 무너딜괴<字類上20b>, ④ 무너질괴<兒學下10b>
030. **[九]** ① 音, 구<宣小1:29>, ② 아홉구<訓蒙下14b>, <類合上1a>, <光千・石千・註千26b>, ③ 모돌규<註千26b>¶ 九劫<2:8>, ¶ 九百五十里<2:9>¶ 九百萬億(劫花)<2:17>, <3:8>.<石千34b>
031. **[口]** ① 音, 구<六祖中62>, ② 입구<訓蒙上13b>, ③ 입구<類合上20a>,
032. **[丘]** ① 音, 구<宣小2:28>, ② 두던구<訓蒙上2a>, <類合上5b>, ③ 언덕구<字類上13a>, ④ 중구僧也<釋要上1a>.¶ 比丘<1:4>.
033. **[求]** ① 音, 구<六祖中22>, ② 구홀구<類合下45a>, <光千・石千31b>, ③구홀구<倭解下36a>.¶求_<15:4>
034. **[具]** ① 音, 구<六祖序17>, ② ᄀᆞᄌᆞᆯ구<類合上9a>, ③ ᄀᆞᄌᆞᆫ구<光千34b>, ④ᄀᆞᄎᆞᆯ구<石千34b>.¶ 具足<2:1>
035. **[俱]** ① 音, 구<宣論3:52>, ② 갈을구<類合下30b>, ③ 한가지구<字類上70b>, ¶俱_<2:19>, <3:7>, ¶俱時<14:10>.
036. **[國]** ① 音, 국<六祖中96>, ② 나라국<訓蒙中1a>, ③ 나라국<類合上17a>, <光千・石千4b>, ¶ 國土<2:5, 6>
037. **[窮]** ① 音, 궁<飜小8:4>, ② 막다ᄃᆞ를궁<類合下37b>, ③ 궁할궁<兒學下7b>.¶窮_<11:2>, ¶ 窮原_<11:5>.
038. **[鬼]** ① 音, 귀<六祖上97>, ② 귀것 귀<訓蒙中2a>, ¶ 鬼身<11:17>, ¶ 鬼神王<11:16>.
039. **[極]** ① 音, 극<宣小3:4>, ② ᄆᆞ 재 극<訓蒙下15b>, <光千・石千30b>, ③막다ᄃᆞ를극<類合下62b>, ④ᄆᆞ장극<註千30b>
040. **[根]** ① 音, 근<六祖中1>, ② 휘근<訓蒙下2a>, ③ 불휘 근<類合上8b>, ¶ 根<3:18>.
041. **[今]** ① 音, 금<六祖中9>, ②엳금<訓蒙下1b>, ③이제금 <類合上19b>, <字類上6a>, ④이지금<倭解下34b> ¶ 今<2:5>, ¶ 今_<3:18, 11:8, 13>, ¶ 今日<2:23>.
042. **[金]** ① 音, 금<六祖上4>, ② 音, 금<六祖中96>, ③쇠금<訓蒙中15a>, <類合上25b>, ¶金花<11:11>, ¶ 金剛原<11:7>, ¶ 金剛智<2:10>, ¶ 金剛藏<11:4>, ¶ 金剛山王<3:14>, ¶ 金剛般若波羅蜜<2:22>.
043. **[及]** ① 音, 급<飜小8:3>, ② 미츨급<類合上19b>, ③ 밋급<光千7a>, ④미출급<石千7a>.¶ 及_<2:5, 6>
044. **[其]** ① 音, 기<六祖上4>, ② 저기<類合上19b>, ③그기 <類合上19b>, ¶ 其<2:8, 13>, ¶ 其他<2:18>, ¶ 其事<14:20>.
045. **[起]** ① 音, 긔<飜小8:25>, ② 닐 긔<訓蒙下12a>, ③ <類合下5a>,
046. **[記]** ① 音, 긔<六祖序4>, ② 긔디긔<類合下17a>, ③ 긔록긔<字類上61a>.¶ 記句<15:25>.

< 나 >

047. [男](남). 048. [南](남). 049. [乃](내).
050. [年](년). 051. [念](념). 052. [惱](노).
053. [能](능). 054. [匿](닉)

< 다 >

055. [達](달). 056. [答](답). 057. [大](대).
058. [待](디) 059. [對](디). 060. [德](덕).
061. [度](도). 062. [道](도) 063. [東](동).
064. [動](동). 065. [得](득). 066. [登](등)
067. [等](등).

< 라 >

068. [樂](락). 069. [來](릭). 070. [略](략).
071. [量](량) 072. [力](력). 073. [連](련).
074. [禮](례). 075. [論](론) 076. [輪](륜).
077. [龍](룡). 078. [六](륙). 079. [勒](륵)
080. [里](리). 081. [利](리). 082. [理](리).
083. [離](리) 084. [摩](마). 085. [萬](만).
086. [滅](멸). 087. [名](명) 088. [明](명).
089. [妙](묘). 090. [無](무). 091. [文](문)
092. [問](문). 093. [聞](문). 094. [未](미).
095. [彌](미)

< 바 >

096. [般](반). 097. [方](방). 098. [放](방).
099. [白](백) 100. [百](백). 101. [煩](번).
102. [梵](범). 103. [法](법) 104. [變](변).
105. [報](보). 106. [善](보). 107. [寶](보)
108. [伏](복). 109. [復](복). 110. [覆](복).
111. [本](본) 112. [部](부). 113. [北](북).
114. [不](불). 115. [弗](블) 116. [佛](불).
117. [比](비). 118. [非](비). 119. [毗](비)
120. [悲](비). 121. [譬](비).

< ㅅ / 사 >

122. [士](사). 123. [四](ᄉᆞ). 124. [沙](사).
125. [事](ᄉᆞ) 126. [舍](샤). 127. [思](ᄉᆞ).
128. [師](ᄉᆞ) 129. [斯](ᄉᆞ) 130. [山](산).
131. [散](산). 132. [薩](살). 133. [三](삼)
134. [上](샹). 135. [相](샹). 136. [常](샹)
137. [想](샹) 138. [色](식). 139. [生](싱).
140. [西](서). 141. [釋](셕) 142. [先](션).
143. [善](션). 144. [說](셜). 145. [攝](셥)
146. [成](셩). 147. [性](셩). 148. [聖](셩).
149. [聲](셩) 150. [世](세). 151. [所](소).
152. [屬](쇽). 153. [手](슈) 154. [受](슈).
155. [首](슈). 156. [修](슈). 157. [授](슈)
158. [須](슈). 159. [壽](슈). 160. [樹](슈).
161. [習](습) 162. [是](시). 163. [時](시).
164. [識](식). 165. [身](신) 166. [信](신).
167. [神](신). 168. [實](실). 169. [心](심)
170. [十](십).

< 아 >

171. [我](아). 172. [阿](아). 173. [惡](악).
174. [安](안) 175. [眼](안). 176. [若](샤).
177. [於](어). 178. [億](억) 179. [言](언).
180. [業](업). 181. [如](여). 182. [汝](셔)
183. [與](여). 184. [餘](여). 185. [亦](역).
186. [衍](연) 187. [然](연). 188. [緣](연).
189. [影](영). 190. [五](오) 191. [吾](오).
192. [寤](오). 193. [曰](왈). 194. [王](왕)
195. [畏](외). 196. [欲](욕). 197. [牛](우).
198. [雨](우) 199. [云](운). 200. [雲](운).
201. [原](원). 202. [圓](원) 203. [月](월).
204. [位](위). 205. [爲](위). 206. [衛](위)
207. [謂](위). 208. [有](유). 209. [唯](유).
210. [喩](유) 211. [隱](은). 212. [音](음).
213. [應](응). 214. [義](의) 215. [意](의).
216. [疑](의). 217. [議](의). 218. [二](싀)
219. [已](이). 220. [以](이). 221. [而](싀).
222. [異](이) 223. [爾](싀). 224. [人](인).
225. [因](인). 226. [忍](싄) 227. [一](일).
228. [日](싈). 229. [入](싑).

< 자 >

230. [子](ᄌᆞ). 231. [字](ᄌᆞ). 232. [自](ᄌᆞ).
233. [者](쟈) 234. [作](작). 235. [暫](잠).
236. [帳](댱). 237. [藏](장) 238. [才](지).
239. [財](지). 240. [寂](적). 241. [賊](적)
242. [前](젼). 243. [轉](뎐). 244. [切](졀).
245. [正](졍) 246. [定](뎡). 247. [淨](졍).
248. [頂](뎡). 249. [除](뎌) 250. [第](뎨).
251. [提](뎨). 252. [諸](졔). 253. [照](죠)
254. [足](죡). 255. [存](존). 256. [尊](존).
257. [從](죵) 258. [種](죵). 259. [坐](좌).
260. [座](좌). 261. [主](쥬) 262. [住](듀).
263. [柱](듀). 264. [中](듕). 265. [重](듕)
266. [衆](즁). 267. [卽](즁). 268. [曾](증).
269. [證](증) 270. [之](지). 271. [至](지).
272. [地](디). 273. [知](디) 274. [智](디).
275. [直](딕). 276. [眞](진). 277. [盡](진)
278. [震](진). 279. [集](집).

< 차 >	< 하 >
80.[次](츼). 281. [此](츼). 282. [車](챠). 283.[刹](찰) 284. [千](쳔). 285. [天](텬). 286.[僉](쳠). 287. [聽](텽) 288. [諦](톄). 289.[體](톄). 290. [初](초). 291. [出](출) 292.[取](취). 293. [就](취). 294. [趣](취). 295.[置](티) 296. [七](칠).	308. [下](하). 309. [何](하). 310. [河](하). 311. [訶](하) 312. [含](함). 313. [恒](항). 314. [解](힁). 315. [行](힝) 316. [香](향). 317. [虛](허). 318. [現](현). 319. [賢](현) 320. [慧](혜). 321. [号](호). 322. [護](호). 323. [或](혹) 324. [化](화). 325. [花](화). 326. [幻](환). 327. [歡](환) 328. [會](회). 329. [吼](후). 330. [喜](희)
< 카 /타 /파 >	
297.[快](쾌). 298. [他](타). 299. [陀](타). 300.[歎](탄) 301.[土](토). 302. [通](통). 303. [波](바). 304.[婆](바) 305.[八](팔). 306. [品](품). 307. [彼](피).	總字數 330字

4.

4.1. 舊仁의 解讀

舊仁의 解讀은 이미 先學들의 훌륭한 업적이 있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이어서 진척함이 요체일 것이다. 그런데 필자에게 결국 걸림돌이 된 것은 先學마저 풀지 못한 부분, 곧 모든 漢字까지 포함하여 해독한 전체 해독문이 없으므로 결국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쳤다. 그 첫째가 前述한 「單字+ㅅ(ᄒᆞ)系」의 '새김풀이'이다. 이제 그 몇 例를 예거하면 대충 아래와 같은 것들이다.

(1)'入ㅅㄴ_'<2:11>(*들ᄒᆞ_?), (2)'出ㅅ白_'<2:12>(*나아ᄒᆞ_?), (3)'放ㅅㄴ_'<2:23>(*노ᄒᆞ_?), (4)'作ㅅㅊ_'<2:23>(*짛ᄒᆞ_?), (5)'問ㅅㄴ_'<3:2>(*무러ᄒᆞ_?), (6)'動ㅅㅂ_'<3:5>(*뮈우ᄒᆞ_?), (7)'起ㅅㄴ_'<3:13>(*니러ᄒᆞ_?), (8)'蓋ㅅㅁ_'<3:21>(*두푸ᄒᆞ_?), (9)'化ㅅㅱ_'<14:14>(*ᄃᆞ외ᄒᆞ_?), (10)'聽ㅅㅱ_'<14:21>(*드ᄅᆞᄒᆞ_?), (11)'說ㅅㅱ<14:21>(*니ᄅᆞᄒᆞ_?)··등이다.

위 用言들은 그 문맥에 따라 자세히 읽고, 또 음미해 보면 다음과 같은 풀이가 도출됨에 想到한다.

즉 위 (1)은 三昧에 그냥 '들어감'이 아니라 '沒入' 정도가 되어야 하고, (2)의 '千寶蓮花'는 엄청난 (1,000의) 수효의 寶蓮花를 그냥 '나게함'(生)이 아니라, '生出'이나 '湧出' 정도가 되어야 하고, (3)은 大光明을 그냥 풀어 '놓음'이 아니라 뿜어나는 '放出' 정도로, (4)는 어떤 큰 일(何事)을 '짓다'(作)이나 '만듦'이 아니라 '作成'이나 '創作' 정도로, (5)는 엄청난 大衆(十千人)에게 '물으심'이 아니라 '下問' 정도로, (6)은 엄청난 大衆(三千人)을 그냥 '움직임'이 아닌 '感動함' 정도로, (7)은 (禪)定을 좇아 그냥 '일어남'이 아니라 존칭인 '起立' 정도로, (8)은 엄청난 大衆들을 '덮음'이 아니라 크나큰 '覆蓋' 정도로, (9)는 名字를 그냥 '지음'(作)이 아니라 '作行' 정도로, (10)은 보살이 衆生을 '되게 함'[? 語不成說]이 아니라 '敎化' 정도로, (11)은 그냥 '들음'(聽)이 아니라 존칭인 '聽取' 정도로, (12)는 그냥 '말하다'(說)인 '니ᄅᆞ다'가 아닌 '說法'이나 '說經' 정도로, 각각 정중한 존대말씨로 풀이해야 그 單字인 用言의 핵심의미에 적중했다고 생각한다. 이는 곧 위 3.2.1.의 2.「單字+ㅅ(ᄒᆞ)系_ 」의 '單字(漢字)풀이'는 결국 거의 音讀하라는 뜻이 된다. 그러나 이것들은 後述의 原文/讀에 한정되는 것이며, 현대어 풀이인 直譯/讀에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하 이런 例들은 모두 같이 다룬다. 이것이 필자의 새로운 독법의 하나이다.

4.2. 解讀의 修正

1995년 졸고, 「舊譯仁王經 구결 機能 體系」에서 필자가 다시 오독으로 본 부분은 다음의 3 가지이다. 그 첫째가 위 졸고, 4.2.1.의 연결어미 '양보'<p.186. §37> "‥_는 것인들"은 잘못이고, '認知' "‥_ 인 것을/ _인 줄을"이 옳다고 수정한다. 그 둘째가 위 졸고, 4.2.3.의 종결어미 토'_ᄒᆞᆫᄃᆡ'의 '가능법'<p.186. §72> "‥_할 수 있다."라는 추정은 잘못이고, 이는 '確言法'으로서 "‥(確言코)－한다(!)"으로 다시 수정한다. 다음 셋째가 토 'ᄉᆞ'(於)의 독음이다. 17세기의 『四聲通解』(1614)에서도 아직 音 '於/유'

<上33b>로서 나왔음에, 당시 12세기 중엽이면 당연히 格上시킬 수 밖에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종전 독음 '우'를 '유'로서 역시 다시 수정한다. 이것들은 이미 아래 해독문에서 각각 반영되었지만 둘째번 토 '_ᄒᆞᄉᆡ'의 수정은 여기서 조금 부연하고 넘어감이 좋을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이 '確言法'이란 '確言하건대 ‥'가 전제하고, 끝에 가서는 强調로 다짐하는 말투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틀림없이', '반드시', '꼭', '정말', '어김없이' 따위 斷言하다시피 强調하고 다짐하는 독특한 語套가 그 당시 있었다고 실감으로 느껴야 비로소 이 敍法은 파악된다고 필자는 믿는다.

이제 본 자료에서, 토 '_ᄒᆞᄉᆡ'(_음ㅅ다)의 예문은 6회 나타나는데, 그 2회만 싣고, 이의 可否에 對比될 다른 자료인 三綱行實圖 忠臣圖 6과 鄕歌의 同軌 '音叱如'의 4 례도 함께 제시하고서 검증해 본다.

(凡例: 이 '_ᄒᆞᄉᆡ'의 표현을 위해 먼저 ≪確言코≫을 넣고 끝에 가서 强調의 ≪!≫표시를 넣는다.)

A. 舊仁의 例:

① 一切 衆生ㅣ 暫ᄋᆞ火七 報ᄋᆞ十ᄂᆞ 住ᄂᆞᄆᆞᆨㄱ乙 金剛原ᄋᆞ十ᄂᆞ 登ᄂᆞᄯᅡᄒᆞᄀᆞᄅᆡᄋᆞ 淨土ᄋᆞ十ᄂᆞ 居ᄂᆞᄀᆞᄅᆞᄒᆞᄉᆡ<11:7> /一切(의) 衆生은 잠깐야만 (果)報에 (安)住하건만을 金剛의 (根)原에 올라가 계신 분이라야 ≪確言코≫ 淨土에 居(住)하신다≪!≫

② 思議ᄂᆞᄒᆞ, 可ᄒᆞᄂᆞᆫᄀᆞ, 不ᄒᆞᄉᆞᆫ 度量ᄂᆞᄒᆞ, 可ᄒᆞᄂᆞᆫᄀᆞ, 不ᄒᆞᄉᆞᆫᄅᆞᄆᆞᄀᆞ 唯ㅅ 佛人 與ᄒᆞ 佛人ᄅᆡᄀᆞᄋᆞ 乃ᄋᆞ 斯ᄅᆡ 事乙, 知ᄀᆞᄒᆞᄉᆡ<11:24>/ 思議함은 可한 (것) 아니며 헤아림 (또한) 可한 것 아니건만 오직 부처와 더불어 부처님이시라야 이에싸 이 일을 ≪確言코≫ 아신다≪!≫

B. 三綱의 例:

(蘇武ㅣ 닐오되) 내 分이 죽건디 오란 사ᄅᆞ미로ᄃᆡ 모로매 降히요려 커든 내 알ᄑᆡ셔 주거 뵈ᅀᅭ다 ᄒᆞ야ᄂᆞᆯ(自分已死人矣 必欲降請效死於前)/ (蘇武가 말하되) 내 (身)分은 (이미) 죽은지 오랜 사람이관대 모름지기

降(伏)하려코자 하거든 내 (이) 앞에서 ≪確言코≫ 죽엄을 보여 준다≪!≫하거늘

C. 鄕歌의 例:

① 安民歌…後句 君如臣多支民隱如 · 爲內尸等焉國惡太平恨音叱如/ 아아 君 답게 臣 답게 한다면 나라는 ≪確言코≫ 太平한다≪!≫

② 懺悔歌…造將來臥乎隱惡寸隱 法界餘玉只出隱伊音叱如支/ 지으려는 중인 惡業은 法界 넘어서 ≪確言코≫ 나오고 있다≪!≫

③ 常隨歌…難行苦行叱願乙 吾焉頓部叱逐好友伊音叱多/ 難行苦行願을 나는 모두를 ≪確言코≫ 좇아 간다≪!≫

④ 獻花歌…吾肹不喩慚肹伊賜等 花肹折叱可獻乎理音叱如/ 나를 아니 부끄러워 하신다면 꽃을 꺾어 ≪確言코≫ 바치겠다≪!≫

이상에서 가령 이에 대한 反證을 제기한다고 하자. 위 鄕歌의 例 4에서 이를 當爲法으로 처리해서 "-꽃을 꺾어 받침이 마땅하다"고 한다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본다. 위 ≪確言코≫ 바친다≪!≫와 비교한다면 매우 未洽한 표현이라 아니할 수 없다. 기실 이제까지 위 예 ④는 鄕歌 解讀의 諸家도 "바치겠다.", 또는 "바치련다." 정도로 强調해서 표현했지, 愛情이 마구 솟구치는데, 여기서 새삼 무슨 무슨 道理나 理致니, 當爲니 등을 따져 가며-무엇 무엇함이 마땅하다." 云云의 當爲論을 펼 位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問題吐 "ㅎㅗㅣ/音叱如"(_음ㅅ다)의 옳은 解讀은 위와 같이 "-≪確言코≫-ㄴ다≪!≫/-겠다≪!≫" 따위로 풀어야 正解라고 이해한다.

4.3. 解讀文의 차례

아래 첫째, 原文/讀이란 文尾의 『舊譯仁王經上』 原文에서 그 語順을 우리말 語順으로 바꾼 그 「原文+토」를, 다시 필자가 /표 이하에서 독음해 읽어 본 것을 말한다. 둘째, 直譯/讀은 그 위 「현토 原文의 解讀」을 하기

이전 "현대어로 바꾸어 풀이"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접근법의 추론이다. 물론 현대어법에 맞지 않는 것이 있음도 안다. 그러나 당시 "고려어 어법의 특성"까지 재구해 보려는 작업의 일환에서인 것이다. 셋째, 白文/ 譯注는 위 두 글을 쓰기 위해 맨 먼저 白文부터 풀이하면서 注釋까지 첨가했던 草稿의 정서이다. 좀더 객관적인 번역이 필요해서 현대어의 '우리말 번역본'을 찾았으나 아직 구하지 못했으므로 白文/ 日譯을 두어, 日譯文을 대신 실어 對照토록 배려한 것이다.

4.4. 解讀文 일러두기

여기서 처음 시도하는 「모든 漢字의 새김까지 포함하여 '순 우리말'(正音表記)로 풀이한 해독문」이란 특색을 보여준다. 곧 原文/讀에서 /표 이하의 이탤릭체(太字)는 식별을 위해 필자가 일부러 마련한 조치이다. 그리고 直譯/讀에서의 [ ]표 안은 그 앞 해독의 原字 또는 原語이고, 또 ( )표 안은 현대어 풀이를 돕기 위해 白文/ 譯注에서 얻어 따온 풀이에 대한 도움말 등이다. 원래 단행본이면 본 解讀文 밑에 註釋, 解說, 佛敎語 등, 풀이 따위 별도의 欄을 두어 보다 상세하게 논의하며, 또한 旣說에 대한 필자의 批判 등도 포함시켜야 기실 정상이겠으나 지면상 부득이 이런 것들을 모두 脚注에 뭉뚱그리기로 하였음을 밝혀둔다.

4.5. 解讀文

[1] <2:1~3>

原文/讀 信行ㄱ/(淸/*청*)*신힝*ᄋᆞᆯ[1] 具足ᄉᆞᆫᄃᆞᆨ/*구족ᄒᆞ시며* 復ᄉᆞᄀᆞ/*도ᄒᆞᆫ*[2] 五道

1) 위 "淸/청"의 삽입은 이 자료 『舊仁』(二張)의 앞 張次(一)의 끝行 끝字 '淸'자를 문맥상 넣은 것이다.

2) 위 "復ᄉᆞᄀᆞ"의 독음은 '또ᄒᆞᆫ'이나, 당시는 硬音을 배제하므로 여기서는 '도ᄒᆞᆫ'으로 추정, 독음한다. 이하 "亦ᄉᆞᄀᆞ"<2:13, 3:5> 따위도 함께 '도ᄒᆞᆫ'으로 추정, 독음한다.

ㅌ/**오도ㅅ** 一切衆生ㅣ、/**일체즁싱이** 有ㅌナ分/**잇거마**[3] 復ㅅㄱ/**도ᄒᆞᆫ** 他方ㅌ/**타방ㅅ** 量ノㅎ、/**헤알홈**[4] 可ㅌㅅㄱ、/**어루ㅅᄒᆞᆫ**[5] 不矢ㅣㅌㅌ/**안디이닛** 衆、/**즁** 有ㅌナ分/**잇거며** 復ㅅㄱ/**도ᄒᆞᆫ** 十方淨土乙、/**시방정토를** 變ㅅㅎ/**변ᄒᆞ져** 百億高座乙、/**빅억고좌를** 現ㅅㅎ/**현ᄒᆞ져** 百億須彌寶花乙、/**빅억슈미보화를** 化ㅅㅎノㄱㅌ、/**화ᄒᆞ져ᄒᆞᆫᄂᆞ** 有ㅌナㄱㅈ/**잇건여**

直譯/讀 (淸)信의 行을 具足하시며 또[復]한 五道의 一切 衆生이 있[有]었으며 또[復]한 다른[他] (地)方의 헤아림[量] 可한 (것) 아닌[不] 분(들)의 (大)衆이 있[有]었으며 또[復]한 十方(의) 淨土를 變(化)하네≪§71.1≫ 百億(의) 高座를 나타내[現]네≪§71.1≫ 百億(의) 須彌(山) 寶花를 되[化]게 하네≪§71.1≫ (그러)한 것(들)≪§47.2≫ 있[有]었음이라≪§19.17≫

白文/ 譯注 (淸)信行具足 復有五道一切衆生 復有他方不可量衆 復有變十方淨土 現百億高座 化百億須彌寶花/(淸)信[淸淨心信]의 (修)行을 具足하시다. 또[復]한 五道[地獄· 餓鬼·畜生·人·天]의 온갖[一切] 衆生이 있[有]으며 또[復]한 다른[他] (地)方의 可히 헤아릴[量] 수 없[不]는 (大)衆이 있[有]으며 또[復]한 十方[東·西·南·北·東南·西南·西北·東北·上·下의 열 方向]의 淨土[佛陀의 國土]를 變(化)하여 百億의 高座[僧侶 說法의 座席]를 나타내[現]어 百億 須彌(山)[범.Sumeru]의 寶花를 되[化]게 하는 것이 있[有]느니라.

白文/ 日譯 (淸)信の行をも(皆よく)具足せり。復五道の一切の衆生あり。復他方の不可量の衆あり。復十方の淨土を變じて、百億の高座を現ずる有り。百億の須彌の寶華を化するあり。

---

3) 위 "有ㅌナ分"의 토'ナ'(_겨)는 '在'(겨/견)의 약체자이다. 남풍현·심재기(1976:61), 또한 안병희(1977:19)에서 이 '在'를 '완료시상'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과거시제 '있었으며'로 해독한다.

4) 위 "量ノㅎ、"의 독음은 音讀 '량홈'도 가능하나, '헤아리며'<南明上6>, '헤아릴'<類合下13b> 등에 따라 訓讀'헤알홈'으로 새긴다. 이하, 토가 없는 생략형 '量、'도 이 같이 모두 訓讀으로 새긴다.

5) 위 "可ㅅㅎㄱ"의 音讀 '가 ㅅᄒᆞᆫ'(可ᄒᆞᆫ<宣小1:3>)도 옳으나, 前後의 문맥('헤알홈'과 '안디_')을 감안하면 訓讀'어루ㅅᄒᆞᆫ'이 더 勝할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취한다.

[2] <2:3~5>

原文/讀 各ㅋ/*저의* 各ㅋㅈㅎ/*저의아금* 座前ㄴ/*좌 알핏*[6] 花ㅛㄴ/*곳으로ㅅ*[7] 上十/*우희* 量ㅇ丶/*헤알흠* 無ㄴㄱ/*업슨* 化佛ㅐ丶/*화불이* 有ナハニカ/*잇겨기시*[8] *매*[9] 量ㅇ丶/*헤알흠* 無ㄴㄱ/*업슨* 菩薩ㅅ/*보살여* 比丘ㅅ/*비구여* 八部ㅅノㅅㄴ/*팔부여호읏*[9] 大衆ㅐ丶/*대중이* 有ナハニ干/*잇겨기시하*[10] 各ㅋ/*저의* 各ㅋㅇㅎ/*저*

---

6) 위 "座前ㄴ"은 음독 '좌젼ㅅ'도 할 수 있으나, '_알핏'<杜初20:13>을 살려 '座前'을 분리하여 '좌 알핏'로 해독함이 勝할 것으로 이를 취한다. 그러나 이하, "座前ㅈ十"<2:17>는 사정이 다르다. 음독 '좌젼아히'가 옳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座前'따위는 음독, 또는 분리하여 일부의 훈독도 가능하다고 본다.

7) 위 "花ㅛㄴ"의 복합토 ① 'ㅛㄴ/_롯'(_으로부터)은 '花'자에, ② 'ㅛハ/_로기'(_로부터)<14:24, 25>는 '本'자에, ③ 'ㅋㅛ/_의로'(_의로서)<14:24, 15:6>는 '自'자에, 또 ④ 'のㅛ/_ᄃ로'(_까닭으로)<11:2, 22>는 '理由'라는 새김에 각각 식별해서 쓰여, 토'ㅛ'(原字/以)의 의미 기능은 모두 由來를 뜻한 것이다.(졸고, 1995c:174-83)

8) 위 "有ナハニカ"의 주체존대 'ニ/_시'의 형태는 A.ナハニ(이系), B.ㅈハニ, C.ロハニ, D.ㅈハニ(ᄒ系) 등 총 2종 4부 13류이다.(졸고, 1995c:194)

9) 위 "八部ㅅノㅅㄴ"의 토'ㅅ'는 原字와 독음을 '*於/유→우'로 추정한다. 그 이유는 ①「康熙字典」(1716:463)에서 "於于也－于訓於也－"로, ②「四聲通解」(1517:463)에서"－亞[平聲]於于也"로, ③「朴通事上」(1517?:50)에서 "於윳·亞"이다. ④B.Karlgren(1964:101, 37)에서 中古音'wu'이다. ⑤金石文「鳳林寺 眞鏡大師塔碑」(923)에서 "生於浮世－"「韓國古代金石文」(1992:221.注113)의 '於'자가「朝鮮金石總覽上」(1919:101.11行)에서 同字인 '于'자로 나와있다. ⑥『佛說四十二章經』(1361:사6)의 "－逮于今日－"의 '于'자가 현대어판「佛說四十二章經」(1989:사97)에서는 '於' 자로 나와 있다. ⑦이기문(1972:114)에서 "중세어 모음체계표(C)의 'ㅜ'와 'ㅓ'가 동일한 중설모음이었음"도 이를 뒷받침한다. ⑧중국「新華字典」(1971:518)에서 아예 '於'자는 쓰이지 않고 '于(於)/Yu'자로 하나만 단일화함도 이를 입증한다. ⑨都守熙(1987:79-81)에서 '井'에 대한 고유어 'um+r'에 대하여, "於乙, 于乙(泉), 烏沒(um+r)" 등의 제시는 이를 뒷받침한다. ⑩玄平孝(1975:128)에서 '먹엄수다.', '감수다.', '하엿수다.', '보아수다.' 등의 '오'音 따위도 이를 말해준다. 경남 方言에서 '어쩌다가'를 '오짜다가'로 발음하는 따위도 우리는 그 殘影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가지 여기서 反論이 있다. ⑪현대어로서 '於'자를 '어'音으로 읽는다는 현실이다. 이는 아마 上代의 어느 시기에서 그 漢音'유'(平聲虞'韻字)에서 吳音'어'(平聲'魚'韻字)를 받아들인 데서부터 그렇게 된 연유가 아닌가 한다. 그리고 토'ㅅ'의 의미 기능은 동명사 어미인데 이 'ㅅ'와 결합된 복합토는 A.ノㅅ[1인칭 주

의아금[11] 寶蓮花ㅋ十丶/***보련화아히*** 坐ㅅㄷ가/***좌ᄒᆞ시며*** 花上ㅋ十/***화상아히*** 皆ㄴ/***모딕***[12] 量ㅇ丶/***혜알흠*** 無ㄴㄱ/***업슨*** 國土ㅐ丶/***국토이*** 有ㄴㄹㄱㅁ/***잇온다***[13]

直譯/讀 제가끔[各各] 座前의

꽃[花]으로의 위[上]에(는) (限)量 없[無]는 化(生) 佛[부처](들)이 계[有]시었으며 (限)量 없[無]는 菩薩이나 比丘이나 八部이라 한다는 분(들)의≪§4.2≫ 大衆이 계[有]시었어여! 제가끔[各各] 寶蓮花에 앉[坐]으시며 (그) 꽃[花] 위[上]에 모두[皆] (限)量 없[無]는 國土가 있[有]사온되

白文/ 譯注 各各 座前花上 有無量化佛 有無量菩薩比丘八部大衆 各各坐寶蓮花 花上皆有無量國土/各各 座前의 꽃[花] 위[上]에 (限)量 없[無]는 化佛[佛陀의 分身]이 있[有]음이라.(限)量 없[無]는 菩薩[求道者]과 比丘[托鉢의 修行者]와 八部[佛法 守護의 여덟 靈的 存在]의 大衆이 있[有]음이라. 各各 寶蓮花[비유: 宇宙生起의 根源]에 앉[坐]았는데 (그) 꽃[花] 위[上]에는 모두[皆] (限)量 없[無]는 國土가 있[有]고,

白文/ 日譯 各各の座前の華の上に復無量の化佛あり。無量の菩薩と比丘と八部の大衆とあり。各各寶蓮華に坐せり。(その)華上に皆無量の國

어에서], B.ㅅ[3인칭 주어서]인데 그 의미 기능은 "-(라고)한다"라는 확실한 사실을 알려주는 평서법 어미로 해석된다.(졸고, 1995c:184.참조), 여기서 졸고(1995c:162, 201)의 'ᄉ/*우'를 上代로 올려 'ᄉ/*유'로 수정한다. 한편 남풍현(1997)에서는 이 토'ᄉ'자를 '令'(리)→ᄉ(草書)로 추정한 바 있다.

10) 위 토"下/_하"는 15세기 경어법의 토표기인 호격'下/_하'(극칭) 하나 뿐 외에, 여기서는 감탄법 어미에도 쓰인 점은 주목된다.(졸고, 1995c:175, 188)

11) 위 "各ㅋㅈㅎ"에서 토'ㅈ'가 누락된 것인지 식별이 어렵다. 일단, 앞 例에 따라 빠진 것으로 파악한다. 이하도 같다.

12) 위 "皆"은 '*모딕'으로 독음, '모두'로 해독된다.(졸고, 1995c:184)

13) 위 "有ㄴㄹㄱㅁ"의 토'ㄹ'의 原字는 '五'에서온 것이다. 다른 예인 A.'_ㅐㄹㅣ'<2:21>, B.'ㅈㄹㅎ'<3:23, 15:22>, C.'_ㄹᄉㄹ'<3:23, 15:22> 등의 실물을 자세히 봐야 판단한다. 『佛說四十二章經』의 'ㅅ白五ㅁ'<사5, 유10>로서는 명백히 입증된다.(졸고, 1989:68-69) 이를 '乎/ㄹ'자의 由來說로 봄은 근거 없는 잘못이다. 컴퓨터의 글씨체(잘못 入力한 것)를 보고 인용한 說인 듯한데, 이 컴퓨터 入力의 구결자(글씨체/잘못된 字)는 어느 구결자료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土あり。

[3] <2:5~7>

原文/讀 一一 國土ㅅ十ㅏㅣ/*ᄒᆞ나ᄒᆞ나 국토아히마다* 佛ㅅ/*부텨여* 及ㅅ/*밋기* 大衆ㅅㅅㅈㅣㅅ白ㄹㄱㅁ/*대즁여호리이ᄒᆞ술ㅂ온ᄃᆡ*[14] 今ㄱㅅ/*엳을* 如ᄒᆞᆫ/*ᄀᆞᆮ*[15] 異ㅅㄱ/*달ᄒᆞ온*[16] 無ㅌㅋㅎ/*업스시며* 一一 國土ㅌ/*ᄒᆞ나ᄒᆞ나 국토ㅅ* 中ㅅㅌ/*듕앗* 一一 佛ㅅ/*ᄒᆞ나ᄒᆞ나 부텨여* 及ㅅ/*밋기* 大衆ㅅㅅㅎㅏ/*대즁여호유마다* 各ㄱ/*저의* 各ㄱㅇㅎ/*저의아금* 般若波羅蜜ㄱㅅ/*반야바라밀을* 說ㅂㅅㄱㅣ/*니ᄅᆞᄂᆞ기시다*[17]

直譯/讀 하나하나[一一](의) 國土에마다 부처[佛]이나 및[及] 大衆이라 하올 분(들)이시온되≪§18.16≫ (只)今과 같이≪§83.5≫[如=這(ᄀᆞᆮ)] 다른[異] (것) 없[無]으시며 하나하나[一一] 國土(의) 안[中]에서의 한 분[一] 한 분[一](의) 부처[佛]이나 및[及] 大衆이라 한다는 분(들)마다≪§18.11≫ 제가끔[各各] 般若波羅蜜(經)을 (講)說하고 있는 것이다≪§73.2≫

白文/ 譯注 一一國土佛及大衆如今無異 一一國土中一一佛及大衆 各各說般若波羅蜜/(그) 하나하나[一一]의 國土에는 부처[佛] 및[及] 大衆(들)이 (至)今과 같[如]이 다른[異] (것) 없[無]느니라.(그) 하나하나[一一]의 國土 안[中]에서의 하나하나[一一]의 부처[佛] 및[及] 大衆(들)은 各各 般若波羅蜜(經)을 (講)說하니라,

白文/ 日譯 一一の國土に於ける佛及び大衆は、今の如くして異なることなし。(其等の)一一の國土中の一一の佛及び大衆、各各般若波羅蜜を

14) 위 "大衆ㅅㅅㅈㅣㅅ白ㄹㄱㅁ"의 토'ㅈ'는 原字'利/리'로 추정되고 가상 및 추측법 어미로 해석된다.(졸고, 1995c:196), 또한 토'白/숣'(分綴)은 당시의 連綴발음 '*숧ㅂ'으로 想定 표기한다.

15) 위 "如ᄒᆞᆫ"의 토'ᄒᆞᆫ'는 그대로 原字(行書)이고 독음은 'ᄀᆞᆮ', '如=ᄀᆞᆮ'으로 해독, 풀이한다.

16) 위 "異ㅅㄱ"은 '달ᄒᆞ온'으로 새긴다. 'ᄒᆞ'添用語이기 때문이다.

17) 위 "說ㅂㅅㄱㅣ"의 토'ㄱ/_시'는 존재(동・형용)사의 의미기능으로 해독된다. 반드시 토'ㅂㅅ_'가 선행되어야 한다.(졸고, 1995c:187, 193)

說き給へば、

[4] <2:7~9>

原文/讀 他方ㄴ/*타방ㅅ* 大衆ㅅ/*대즁여* 及ㅅ/*밋기* 以ㅸ/*사금*[18] 化衆ㅅ/*화즁여* 此ㅣ/*이*[19] 三界ㄴ/*삼계ㅅ* 中ㅇㄴ/*즁앗* 衆ㅅㄱㄹ/*즁여호긔*[20] 十二大衆ㄱ/*십*

---

18) 위 "以ㅸ"은 '서금'이 아닌 '사금'으로 해독한다. 그 이유는 '以ㅅㅇ'(사아)<3:4, 15:18>, '以ㅅㅇㅡㅡ'(사ᄃᆞ로)<15:12, 13> 등으로 현토되어 있기 때문이다.

19) 위 "此ㅣ"의 토'ㅣ/_이'는 '此'자를 '이'로 읽도록 보여주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수가 없다. '此ㅣ'(모두 7회), '是ㅣ'(모두 6회), '斯ㅣ'(1회) 따위가 더 있다.(졸고, 1995c:169, 188)

20) 위 "ㅅㄱㄹ"의 토'ㄹ'는 原字'*居/어조ᄉᆞ긔→기'<註千31b>의 略字로 추정한다. 이제까지 구결학회에서 이를 향찰'ㄹ(原字)/ㄹ, ㄹ'과 同一한 것으로 해독해 왔다. 그러나 필자는 다음 5 가지 질문의 답이 풀리지 않는 한 수용할 수 없다고 본다. 「질문 1.」 구결'ㅎㅓㅣ'와 同一한 향찰'音叱如'는 4회나 나오는데 'ㄹ' 포함 구결 어형과 同一(또는 비슷한) 어형은 왜 나타나지 않는가? 「질문 2.」 구결'ㄹ'가 독음'ㄹ'일 때, 예 A. "昔(네)ㅇㄹ"<金光.6:23, 7:18><瑜伽.7:2>, B."大師ㅇㄹ"<瑜伽.25:9>, C. "自在ㅎㅇㄹ"<金光.7:6> 등은 토'ㄹ'가 'ㅣ'系音 도 아닌 'ㄹ'인데도 왜 토'_ㄹ' 앞의 'ㅣ'音이 탈락되는가? 「질문 3.」 토'ㄹ'가 독음'ㄹ'일 때, A. "··曰白ㄹ/ᄀᆞᄅᆞ숣+ㄹ"<舊仁.2:24>, B. "··厭足ㄹ/염족+ㄹ"<華嚴.10:17>, C. "··退轉ㄹ/퇴뎐+ㄹ"<華嚴.10:18, 19>, D. "··外ㄹ/밧ㄱ+ㄹ"<華嚴.20:11>, E. "··懈歇ㄹ/개헐+ㄹ"<華嚴.8:10>, F. "··動亂ㄹ/동란+ㄹ"<華嚴.8:14>-등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다시 말하여 현토자는 자기가 읽을 수 도 없는 토를 썼다고 봐야 하나? 「질문 4.」 토'ㄹ'가 속격의 기능까지 한다. 예. A. "如來ㄹ 地ㅇㅓㅡ"/"菩薩ㄹ 功德聚"<華嚴.10:1/14:14>, B. "如來ㄹ 之身ㅣ"<金光.6:20>, C. "菩薩ㄹㅓ 問ㅇ"<華嚴.1:4/6:8> 등에서 토'ㄹ'가 독음'ㄹ'일 때, 15세기의 존칭 속격 표지인 '의'에로 어떻게 음운론적으로 읽어갈 수 있을까 ? 또한 향가의 'ㄹ'에는 왜 속격 표기의 문례는 없는가? 「질문 5.」 토'ㄹ/ㄹ'이 말음 첨기의 기능을 한다는 說이다. 앞에서 나왔지만 그 예문 C. "菩薩ㄹㅓ 問ㅇ"<華嚴.1:4/6:8>의 토'ㄹ_'를 말음첨기로 본다는 견해이다. 첫째 '말음첨기'란 訓讀에만 있고, 音讀에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위 예 A.의 후자인 "菩薩ㄹㅡ"의 'ㄹ'는 분명히 속격 표지이고, 또 C.의 '菩薩ㄹㅓㅡ'의 'ㄹ'는 곧 존칭의 여격 표지('의'에 先代形)이지 결코 말음첨기자는 아니다. 이것 때문에

이대즁은 皆ㄴ/***모딧*** 來ㅅㅋㅎ/***릐ᄒᆞ아금*** 集會ㅅㅋ/***집회ᄒᆞ야***[21] 九劫 蓮花座ㅋㅓ ㅣ/***구겁 련화좌아히*** 坐ㅅ白ㄹㄱㅁ/***좌ᄒᆞ술ㅂ온ᄃᆡ*** 其會ㄴ/***그 회ㅅ*** 方廣ㄱ/***방광은*** 九百五十里ㅐㄱㄹ/***구빅오십리인을*** 大衆ㅐ/***대즁이*** 僉然ᄒᆞ/***여러히***[22] 而ㅭ/***이로***[23] 坐ㅅㅂㅎㄴㅣ/***좌ᄒᆞ느기시다***

直譯/讀 다른[他] (地)方의 大衆이나 및[及] 이로써[以](금) (敎)化(의) (大)衆이나 이[此] 三界(의) 中에의 (大)衆이나 하는 분≪§18.4 /53.2≫ 十二大衆(들)은 모두[皆] (到)來하여금 集會하여 九劫 蓮花(의) 座에 앉으[坐]시온되 그[其] (集)會의 (四)方 넓이[廣]는 九百五十里인 곳을 大衆(들)이 여럿이[僉然] 이[而]로 앉[坐]고 있는 것이다≪§73.4≫

白文/ 譯注 他方大衆及以化衆此三界中衆十二大衆 皆來集會坐九劫蓮

필자는 어느 고승에게 이 문제를 물었다가 "漢文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吐를 다는데 누가 다 알고 있는 '菩薩'이란말에 吐까지 다는가?"라며 놀림의 핀잔과 '난센스'란 무안마저 당했다. 사실 그렇다!고생각한다. 다른 같은 華嚴經의 예"菩薩ㄱㅡ"<1:4/8:20/9:19/14:9/16:4/17:20/18:15,21/19:4,13,17>, 菩薩ㄹㅡ"<2:10>, "菩薩ㅐㅡ"<2:12/8:16/9:4/9:10/17:4>, 따위 수많은 菩薩에는 왜 말음첨기자 토'ㄲ'가 안 붙는가? 또한 향가의 "ㅡ秋察ㅡ"<祭亡妹歌/怨歌>에는 왜 말음첨기자 'ㄲ'가 안 붙는가?ㅡ등을 들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서 필자가 추정한 略字'ㄲ/*긔'의 說은 이상 "5 가지의 질문" 등은 모두 만족시켜 준다고 확신한다. 다만 필자의 추정자(ㄲ←居)가 略字인데 반해 향찰의 'ㄲ'(주검시:原字)는 서로 완전히 別字인 것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향가의 正字'ㄲ'와 함께 연관시켜 해독하지 못함은 물론이다. 한편 남풍현(1996)의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ㄲ/ㄹ'에 대한 考察"이 여기에 좋은 참고가 됨을 밝혀 둔다.

21) 위 "集會ㅅㅋ"의 토'ㅋ'를 남풍현(1985:4)에서 '_아'로, 역시 前後述의 '_花ㅋ ㅓ/아히'나, '放ㅅㅋ/ᄒᆞ아'로 같다. 15세기의 'ᄒᆞ야'의 先代形으로 본다. 물론 '히아투스(hiatus)로 不可를 연상하나 그 당시는 발음이 늘여 가능성을 배재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아래의 낱말도 이를 상기시켜 준다. 예하여 아이(兒孩), 무우(菁根), 가이(犬), 거이(蟹)ㅡ등이다.

22) 위 "僉然ᄒᆞ"는 '여러히'<楞諺10:23a>의 부사형이다. 본 자료<2:19>에서 同軌로 한번 더 나온다.

23) 위 "而"는 '이로'로서 읽는다. 여기 토'ㅭ로'는 접속조사이다. 예하여 '이로 말미암다', '그로 말미암아' 등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花座 其會方廣九百五十里 大衆僉然而坐/다른[他] (地)方의 大衆 및 化衆[敎化의 大衆]인 이[此] 三界[欲界·色界·無色界] 안[中]의 (大)衆(곧) 十二大衆은 모두[皆] (到)來하여 集會하니 九劫[無限時] 蓮花[비유: 佛陀 敎化의 世界]의 座(席)에 앉[坐]느니라. 그[其] (集)會는 (四)方의 넓이[廣]가 九百五十里로서 大衆(들)은 여럿이[僉然] 그리하여[而] 앉[坐]느니라.

白文/ 日譯 他方の大衆及び化衆(並びに)此の三界の中の大衆(卽ち)十二大衆みな來つて集會し、九劫の蓮華の座に坐せり。其の會は方廣九百五十里にして、大衆は僉然として坐せり。

[5] <2:10~12>

原文/讀 爾ᄒᆞᆫᄀᆞ/***이ᄉᆞᄒᆞᆫ*** 時十/***기희***[24] 十号ㅣᄒᆞ/***십호이져*** 三明ㅣᄒᆞ/***삼명이져*** 大滅諦ㅣᄒᆞ/***대멸뎨이져*** 金剛智ㅣᄒᆞᄂᆞᆫᄀᆞ /***금강지이져 ᄒᆞ신*** 釋迦牟尼佛ᄀᆞ/***석가무니불은*** 年乙ㆍ/***히ᄅᆞᆯ*** 初ᄒᆞᄅᆞᄂᆞᆫᄀᆞ/***비릇오ᄒᆞᆫ*** 月ᄂᆞᆯ/***ᄃᆞᆯᄉᆞ*** 八日ㅣ十/***여ᄃᆞᆯ래아히*** 方ᄂᆞᆯ/***ᄇᆞ야ᄒᆞ로***[25] 十地ㅣ十ㆍ/***십디아히*** 坐ᄂᆞᆫᄃᆞ/***좌ᄒᆞ시하*** 大寂室 三昧ㅣ十/***대젹실 삼미아히*** 入ᄂᆞᆫᄂᆞᆫᄀᆞ/***입ᄒᆞ시ᄒᆞᆫ*** 緣乙ㆍ/***연을*** 思ᄂᆞㅣㅎ/***ᄉᆞᄒᆞ아금*** 大光明乙ㆍ/***대광명을*** 放ᄂᆞㅣ/***방ᄒᆞ아*** 三界ᄂᆞᆯ/***삼계ᄉᆞ*** 中乙ㆍ/***즁을*** 照ᄂᆞᄒᆞᄂᆞᆫᄀᆞ/***죠ᄒᆞᄂᆞ기시며***

直譯/讀 이[爾]러한 때[時]에 十號이네≪§31.2≫ 三明이네 大滅諦이네 金剛智이네(라) 하신 釋迦牟尼부처님[佛]은 (一)年을 처음[初]으로 한 (初)月의 八日에서 바야흐로[方] 十地에 앉[坐]으시여! 大寂室 三昧에 들어가[入]셔서 한 (所)緣을 思(念)하여금 大光明을 放(下)하여 三界의 가운데[中]를 照(明)하고 있으며

---

24) 위 "時"의 訓은 'ᄢᅴ'(용비.113/석보.13:1)이다. 물론 'ᄲᅳ', 'ᄢᅴ', '비', 'ᄭᅵ'의 訓도 있다. 釋譜예문의 "이 ᄢᅴ 부텻 나히 닐흔ᄒᆞ나히러니-"가 위 문맥에 맞고 또 우세하므로 이를 택한다. 당시 고려시대는 硬音을 배제하므로 이를 '기'로 추정 표기한다. 이하도 같다.

25) 위 "方ᄂᆞᆯ"을 '*ᄇᆞ야ᄒᆞ로'으로 독음한다. 原文에서 慣用語인 "方坐"에서 쓰일 때는 이를 어느 경우이든 한결같이 '바야흐로‥에 앉는다.'로 풀이함이 慣例이다.(졸고, 1995c:189).여기 日譯文 중, '方に'(まさに) 참조.

白文/ 譯注 爾時十号三明大滅諦金剛智釋迦牟尼佛 初年月八日方坐十地 入大寂室三昧 思緣放大光明照三界中/이[爾] 때[時]에 十号[곧 如來·應供·正遍知·明行足·善逝·世間解·無上士·調御丈夫·天人師·佛世尊 등: 이 十號를 갖춘 釋迦如來]와 三明[宿命明·天眼命·漏盡明 등: 이 3가지 超人能力]과 大滅諦[佛陀의 一切 煩惱를 斷切한 德곧 斷德]와 金剛智[佛陀의 知慧]이신 釋迦牟尼佛은 첫[初] 해[年]의 (初)月 八日에 바야흐로[方] 十地[乾慧地, 性地, 八人地, 見地, 薄地, 離垢地, 已辦地, 支佛地, 菩薩地, 佛地]에 앉[坐]으시여! 大寂室[涅槃:범.nirvana]의 三昧[瞑想·無念境地]에 들[入]어 가시고, 思緣[思惟]하셔 大光明을 放(下)하시니 三界[前注.참조.이하 ∧표를 씀]의 가운데[中]를 비쳐[照]주시다.

白文/ 日譯 爾の時に十號と三明と大滅諦と金剛智の釋迦牟尼佛は、初年の(初)月八日に、方に十地に坐し、大寂室三昧に入りて、思緣して大光明を放ち三界の中を照し給ふ。

[6] <2:12~14>

原文/讀 復ㅅㄱ/*도ᄒᆞᆫ* 於頂上ᄋᆞ十ㅅᄋᆞᆨ/*뎡샹아히ᄒᆞ아* 千寶蓮花ㄹ·/*쳔보련화를* 出ㅅ白ㅎㄱㅁ/*출ᄒᆞ술ㅂ온ᄃᆡ* 其花ㄱ/*그 곳은* 上ㅅㄱ/*우ᄒᆞ온* 非想 非非想天ᄋᆞ十·/*비샹 비비샹텬아히* 至ᄒᆞ/*니르져* 光ㄱ/*빗도* 亦ㅅㄱ/*도ᄒᆞᆫ* 復ㅎ/*도오* 爾ㄴᄒᆞ ㅅㄴㅋ/*그러ᄉᆞ져ᄒᆞ시며*[26] 乃ᄋᆞ/*ᄒᆞ아ᄉᆞ*[27] 他方 恒河沙ㄴ/*타방 ᄒᆞ하사ㅅ* 諸ㄴㄱ/*모ᄃᆞ신* 佛ㄴ/*부텨ㅅ* 國土ᄋᆞ十·/*국토아히* 至ㅣㅅㅂㅂㅅㅣ/*니르리ᄒᆞᄂᆞ기시다*

直譯/讀 또[復]한 頂上에서[於] 하여 千(의) 寶蓮花를 나게[出] 하시온되 그[其] 곷[花]은 위[上]는≪§12.2≫ 非想 非非想天에 이른다[至]네 빛[光]도 또[亦]한 또[復] 그렇다[爾]네 하시며 이에싸[乃]≪§22.1≫ 다른[他] 곳[方] 恒河沙의 모두[諸]이신 부처[佛]의 國土에(까지) 이르[至]게 하시고 있는 것이다

---

26) 위 "爾ㄴᄒᆞ_"에서 '爾=然'이므로, 이를 '然ㄴᄒᆞ_'(그러ㅅ져)와 같은 뜻으로 해독한다.

27) 위 "乃" 속의 토'ᄋᆞ'는 강세'사'이다. 類合<上16b>에서 'ᄒᆞ야사'이므로 先代形'ᄒᆞ아사'로 독음, 현대어로 '이에싸'로 풀이한다.

白文/ 譯注 復於頂上出千寶蓮花 其花上至非想非非想天 光亦復爾 乃至他方恒河沙諸佛國土/또한 頂上에서[於] 千의 寶蓮花[비유: 宇宙根源]를 나타내[出]는데 그 꽃[花]은 위[上]로 非想·非非想天[有頂天: 三昧의 境地]에 이르[至]고, 빛[光]도 또[復]한 그렇[爾 = 然]다네. 또는[乃至] 다른[他] (地)方의 無數[恒河沙]한 여러[諸] 佛(敎)의 國土에까지 이르[至]느니라

白文/ 日譯 復(その)頂上より千の寶蓮華を出し給へば、その華は上非想非非想天に至る。(その)光も亦復爾り。乃ち他方の恒河沙の諸佛の國土に至る。

[7] <2:14~15>

原文/讀 時十/*기희* 無色界ㅅ긔ㄱ/*무쇠계ㅅ로는*[28] 量ø丶/*혜알흠* 無ㅌㄱ/*업슨* 變ㅅㄱㅌㅌ/*변혼ᄃᆞ* 大香花ㄹ丶/*대향화ᄅᆞᆯ* 雨ㄹㄱㅁ/*비 부리온ᄃᆡ*[29] 香ㄱ/*향은* 車輪丶/*챠륜* 如ㅣㅅㅎ/*ᄀᆞᆮ호다ᄒᆞ져*[30] 花ㄱ/*곳은* 須彌山王丶/*슈미산왕* 如ㅣㅏㄱㅅ/*ᄀᆞᆮ호다ᄒᆞ건여* 雲丶/*구룸* 如ㅣㅅㅎ/*ᄀᆞᆮ호다ᄒᆞ아* 而ㅱ/*이로* 下ㅅㅁㅌㄹ分/*하ᄒᆞ고놀며*

直譯/讀 (그) 때[時]에 無色界의로(부터)는≪§13.2≫ (限)量 없[無]는 變(化)한 것의 大香花를 뿌리[雨]온되 (施)香은 車輪(과) 같[如]다 하네 (佛果에의) 꽃[花]은 須彌山王(과) 같[如]다 하였음이라≪§19.18≫ 구름[雲](과) 같[如]다 하여 그리하여[而] (降)下하고 날으며

---

28) 위 "無色界ㅅ긔ㄱ"의 토'_ㅅ_'를 原字'叒/노, 로'의 略字로 추정한다. 그 이유는 이 토'_ㅅㅎ_'의 풀이가 각각 그 문맥<2:14, 3:11, 11:16>들에서 '_으로(부터)'로서 해석되기 때문이다.(졸고, 1995c:203), 이하 脚注 45)도 참조.

29) 위 "雨ㄹㄱㅁ"는 大香花를 '비 오듯이 많이 뿌린다. '의 뜻으로 현토한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비온ᄃᆡ'의 독음은 아니겠고 하여 '비 뿌리온데/*비 부리온ᄃᆡ'로서 想定 풀이한다.

30) 위 "如ㅣㅅㅎ"에서 '如ㅣ_'를 '*ᄀᆞᆮ호다/ᄀᆞᆮᄒᆞ다'<용.6/능언.2:89>로 읽는다. 이를 '다히'<월석.9:48>의 '다'로서 읽는 견해도 있으나 '_답게'의 뜻이 우세하므로 여기 문맥에서는 들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白文/ 譯注 時無色界 雨無量變大香花 香如車輪花 如須彌山王 如雲而下/(그) 때[時]에 無色界[超物質世界]로부터 (限)量 없[無]는 變(化)의 大香花[偉大한 佛供의 香·花]를 비 뿌리[雨]온데 (施)香은 車輪[法輪]과[31] 같으며 꽃[花]은 須彌山[범.sumeru:妙高山.想像의 巨大山]의 王과 같[如]으며 구름[雲]과 같[如]다 하며 그리하여[而] 下(降)하느니라.

白文/ 日譯 時に無色界より無量に變せる大香華香を雨ふらせば、車輪の如き華は須彌山王の如く、雲の如くにして下れり。

[8] <2:15~18>

原文/讀 十八 梵天王ㄱ/*십팔 범텬왕은* 百變 異色花ㄹ丶/*빅변 이식화를* 雨ㅣㅎ/*비 브리이져* 六欲ㅊ/*륙욕ㅅ* 諸ㄱ/*모든* 天ㅁ/*텬도* 量ㅇ丶/*혜알흠* 無ㅊㄱ/*업슨* 色花ㄹ丶/*식화를* 雨ㅣㅎㅅㅏㅁ/*비 브리이져ᄒᆞ겨며* 其佛ㅊ/*그 부텨ㅅ* 座前ㅋㅏ/*좌젼아ᄒᆞ*[32] 自然ㅎ/*ᄌᆞ연히* 而ㅠ/*이로* 九百萬億劫花ㅣ丶/*구빅만억겁화이* 生ㅅㄱㅁ/*싱혼ᄃᆡ* 上ㅅㄱ/*우ᄒᆞ온* 非想 非非想天ㅋㅏ丶/*비상 비비상아히* 至ㅏㅁ/*니르겨며* 是ㅊㅅㄱ/*이ㅅᄒᆞᆫ* 時ㅏ/*기희* 世界ㅊ/*세계ㅅ* 其地ㄱ/*그 다ᄒᆞ온* 六種ㅠ/*륙종으로* 震動ㅅㅗㅂㅣ/*진동ᄒᆞ고ᄂᆞ다*

直譯/讀 十八(의) 梵天王은 百變(하는) 異色(의) 꽃[花]을 뿌리[雨]네 六欲의 모든[諸] 天(帝)도 (限)量 없[無]는 色花를 뿌리[雨]네 하였으며 그[其] 부처님[佛]의 座(席) 앞[前]에서 自然히 이[而]로 九百萬億劫(의) 꽃[花]이 (發)生하온되 위[上]는≪§12.2≫ 非想 非非想天에 이르[至]렀으며 이[是]러한 때[時]에 世界의 그[其] (大)地는 六種으로서 震動하고 있다≪§73.1≫

白文/ 譯注 十八梵天王雨百變異色花 六欲諸天雨無量色花 其佛座前自然而生九百萬億劫花 上至非想非非想天 是時世界其地六種震動/十八의

---

31) 위 "車輪"의 뜻을 '法輪'(眞理의 輪:佛敎의 象徵)과 같이 해석한다. 이는 동국대 역경원 朴敬勛 선생의 助言이다. 다시 한번 고마운 뜻을 표한다.

32) 위 [2]의 "座前"에는 토'ㅊ'이 붙고 여기서는 토'ㅋㅏ'가 붙었다. 따라서 독음이 다르게 파악된다. 곧 전자는 座와 前을 분리하여 '前ㅊ'을 훈독, 후자는 '座前/좌전'으로 음독해야 토'ㅋㅏ'(처격)와 부합되기 때문이다.

梵天王[護法神]은 百(번)이나 變(化)하는 異色의 꽃[花]을 뿌리[雨]며 六欲[色欲·形貌欲·威儀姿態欲·言語音聲欲·細滑欲·人相欲]의 모든[皆] 天(帝)도 (限)量 없[無]는 色(彩)의 꽃[花]을 뿌리[雨]어 그[其] 佛(陀)의 座(席) 앞[前]에서는 自然히 그리하여[而] 九百萬億劫[無限의 時間]의 꽃[花]을 피[生]게 하여, 위[上]에는 非想非非想天[有頂天]에 이르[至]며 이[是] 때[時]에 世界는 六種으로 震動[佛陀 說法時 瑞相의 徵兆]하느니라.

白文/ 日譯 十八の梵天王(も亦た)百に變ぜる異色の華を雨ふらし、六欲の諸天も無量の色華を其の佛座の前には、自然に、九百萬億劫の華を生じ、上非想非非想天に至る。是の時に世界は其の地六種に震動せり。

[9] <2:19~23>

原文/讀 爾ᄉᆞᆫᄀᆡ/***이ᅀᅡᄒᆞᆫ*** 時ᄉᆡ/***기희*** 諸ᄀᆡ/***모ᄃᆞᆫ*** 大衆ᄀᆡ/***대즁은*** 俱ᄉᆞᆫᄃᆞᄒᆞᆷ/***ᄀᆞᆮᄋᆞᆺᄒᆞ아금*** 共ᄉᆞᆫ/***다ᄆᆞᆺ***[33] 僉然ᄒᆞᆫ/***여러히*** 生疑ᄉᆞᆫᄃᆞᆯ/***싱의ᄒᆞ아*** 各ᄋᆞᆨᄒᆞᆷ/***저아금ᄀᆞ***[34] 相ᄀᆞᄆᆞᆨᄎᆞᆮᄀᆞᆯ/***서로모거오***[35] 謂言ᄂᆞᆫᄃᆞᆫᄑᆞ/***위언ᄒᆞ겨긔*** 四無所畏ᄅᆡᄒᆞᆷ/***ᄉᆞ무소외이져*** 十八不共法ᄅᆡᄒᆞᆷ/***십팔불공법이져*** 五眼ᄅᆡᄒᆞᆷ/***오안이져*** 法身ᄅᆡᄒᆞᆷᄂᆞᆫᄀᆡ/***법신이져ᄒᆞ신*** 大覺世尊ᄀᆡ/***대각세존은*** 前ᄒᆞᆫᄃᆞᆯ/***알ᄑᆡ*** 已ᄒᆡ/***이ᄆᆡ사*** 我ᄒᆞᆫ/***우라***[36] 等ᄂᆞᆫᄀᆡ/***ᄀᆞᆮᄒᆞ온*** 大衆ᄒᆞᆫᄃᆞᆫ/***대즁의*** 爲ᄒᆡᄒᆞᆷ/***위ᄒᆞ삼*** 二十九年ᄋᆞᆯ ᄒᆞᆫᄂᆞᆫᄒᆞᆫ/***이십구년아히ᄒᆞ시하*** 摩訶般若波羅蜜ᄉᆞᆯ/***마하반야바라밀여*** 金剛般若波羅蜜ᄉᆞᆯ/***금강반야바라밀여*** 天王問般若波羅蜜ᄉᆞᆯ/***텬왕문반야바라밀여*** 光讚般若波羅蜜ᄉᆞᄂᆞᆫᄀᆞᆫᄂᆞᆯ[37] 說ᄋᆞᆯᄒᆞᄂᆞᆯᄅᆡ/***니ᄅᆞ기시오다***

---

33) 위 "共ᄉᆞᆫ"을 '다ᄆᆞᆺ'<杜초15:33b>으로 풀이한다.

34) 와 "各ᄋᆞᆨᄒᆞᆷ"은 '제아금'으로 독음한다. '제여곰'<석보13:39>의 先代形이 아닌가 한다.

35) 위 "相ᄀᆞᄆᆞᆨᄎᆞᆮᄀᆞᆯ/(*서ᄅᆞ)오모거오"를 문맥에 따라 "서로(相) 모였지라"로 해석한다. 後述의 "非ᄋᆞᆨᄎᆞᆮᄀᆞᆯ/(안)디거오"<14:8>가 문맥에 따라 "아니었지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양자는 當爲기능으로 同軌이다.(졸고, 1995c:181)

36) 위 "我ᄒᆞᆫ"는 '우리'로 독음한다. 남풍현(1976, 1985)참조, 이는 特異吐로서 '그렇게 토를 읽으(讀/토읽을 두)라'고 보여(示/보일 시)주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示讀吐/시두토'로 부르련다.

37) 위 토"ᄉᆞᄂᆞᆫᄀᆞᆫᄂᆞᆯ"에서 '_ᄂᆞᆫᄀᆞᆫ'을 '_홀'이 아닌 '_호ᄂᆞᆯ'로 독음한다. 남광우(1960:90), 유창돈(1964:755)에서 '호ᄂᆞᆯ'을 '하는 것을'로 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直譯/讀 이[爾]러한 때[時]에 모든[諸] 大衆들은 함께[俱] 하여금 다 같이[共] 여러히[僉然] 疑(心)이 생기[生]어 제가끔[各] 서로[相] 모였지라≪§ 32.2≫ 일러[謂] 말[言]하였기(를)≪§ 53.6≫ 四無所畏이네≪§31.2≫ 十八不共法이네 五眼이네 法身이네(라) 하신 大覺(의) 世尊은 (以)前의 이미써[已]≪§22.2≫ 우리[我] 같[等]은 大衆(들)을 위[爲]함 二十九年(間)에 하시어! 摩訶般若波羅蜜(經)이나 金剛般若波羅蜜(經)이나 天王問般若波羅蜜(經)이나 光讚般若波羅蜜(經)이나 하는 것(들)을≪§18.1≫ (講)說하여 계시오이다≪§69.3≫

白文/ 譯注 爾時諸大衆俱共僉然生疑 各相謂言 四無所畏十八不共法五眼法身大覺世尊 前已爲我等大衆 二十九年說摩訶般若波羅蜜 金剛般若波羅蜜 天王問般若波羅蜜 光讚般若波羅蜜/이[爾] 때[時]에 모든[諸] 大衆은 함께[俱] 다 같이[共] 여러히[僉然] 疑(心)이 생기[生]어 各(其) 서로[相] 일러[謂] 말[言]하기를"四無所畏[說法의 無畏 四種인 智慧: 正等覺無畏·漏永盡無畏·說障法無畏·說出道無畏]와 十八不共法[佛陀만의 十八種인 特質]과 五眼[肉眼·天眼·慧眼·法眼 등을 具備한 佛眼]과 法身[佛陀의 宇宙身]이신 大覺世尊은 앞[前]에서 이미[已] 우리[我等]들 大衆을 爲하여 二十九年(間) 摩訶般若波羅蜜多(經), 金剛般若波羅蜜多(經), 天王問般若波羅蜜多(經), 光讚般若波羅蜜多(經) 등을 (講)說하시니라."

白文/ 日譯 爾の時に諸の大衆は俱に共に僉然として疑を生じ、各相謂つて言はく、四無所畏と十八不共法と五眼とを具せる、法身の大覺世尊は、前に已に我等大衆の爲に、二十九年に摩訶般若波羅蜜、金剛般若波羅蜜、天王問般若波羅蜜、光讚般若波羅蜜を說き給ふ。

[10] <2:23>

原文/讀 今日ㅋ十/*오늘날아히* 如來ㅣ/*여릐이* 大光明乙丶/*대광명을* 放ンニトろ7のㄱ/*방ᄒᆞ시누은ᄃᆞᆫ*[38] 斯毛ンㅁㅅ/*이모ᄒᆞ도로가*[39] 何ヒンㄱ/*어딋ᄒᆞᆫ* 事乙

38) 위 "放ンニトろ7のㄱ"의 '放ンニ'를 '노ᄒᆞ'로 독음함은 오독이 아닌가 한다. '大光明'을 '풀어 놓음'이 아니라'放出ᄒᆞ'나 '放下ᄒᆞ' 등으로 봐야 옳기 때문이다. 또한 토'トろ7'을 '동작의 진행법 어미', 곧 '-하고 있는 중'의 뜻으

丶/*일을* 作ソセィンニトフリミセロンヒハニケ/*작ᄒᆞ더ᄒᆞ시눈이앗고ᄒᆞᄂᆞ기시며*

直譯/讀 오늘날[今日]에 (釋迦)如來께서 大光明을 放(下)하시는 중이면 이[斯]만 하도록 어떤[何]한 일[事]인들 만들[作]었지여!≪§79.1≫ (그리)하시는 중≪§54.5≫에 있었고 (또 그리)하고 있으며≪§27.16≫

白文/ 譯注 今日如來放大光明斯作何事 /"오늘날[今日]에 (釋迦)如來께서 大光明을 放(下)하여 이[斯]처럼 어떠한 일[何事]인들 만들[作]어 내시지요."

白文/ 日譯 今日如來は大光明を放つて斯く何事をか作し給ふと。

[11] <2:24~3:1>

原文/讀 時十/*기희* 十六大國王七/*십륙대국왕ㅅ* 中ミセ/*즁앗* 舍衛國主リニア/*샤위국쥬이시긔* 波斯匿王リ/*바ᄉᆞ닉왕이* 名ソレ/*일홈ᄒᆞ녀*[40] 曰白ア/*ᄀᆞᆯᄋᆞᄉᆞᆯᄇᆞ긔* 月光ミンロろ个フ/*월광여ᄒᆞᄉᆞᆯᄇᆞ오유ᄂᆞᆫ* 德行フ/*덕힝ᄋᆞᆫ* 十地ミ/*십디여* 六度ミ/*륙도여* 三十七品ミ/*삼십칠품여* 四不壞淨ミノ乙ソき/*ᄉᆞ불괴정여호ᄂᆞᆯᄒᆞ져* 摩訶衍七/*마하연ㅅ* 化乙丶/*화ᄅᆞᆯ* 行ソきンニトフミ/*힝ᄒᆞ져ᄒᆞ시눈여*

直譯/讀 (이) 때[時]에 十六國王(의) 中에의 舍衛國 (君)主이신 분≪§52.2≫ 波斯匿王이 이름[名]인가?≪§77.1≫ 말씀하[曰]시옵기(를)≪§53.11≫ 月光이라 하옵는다는 분은≪§14.3≫ 德行은 十地이나 六度이나 三十七品이나 (등) 네[四]가지

로 해석한다. 小倉進平(1924:406), 梁柱東(1942-62:748), 홍기문(1957:747-48) 등에서 추정한 것을 따른 것이다. 상론은 졸고(1995c:192)참조.

39) 위 "斯毛ソ巴ハ/(이)모ᄒᆞ도로기"에서 토'巴ハ'를 박희숙(1985:129-30)에서 '도로기'(羅麗吏讀)로 풀이하여 '巴'를 '돌'인 '도로'로 보았다. 그러므로 '斯毛ソ巴ハ/(이)모ᄒᆞ도로기'를 문맥에 따라 '이만 하도록'으로 해석한다. 다만 '모로기'(?) 곧 '문득'의 뜻이 포함됐지 않았나 하는 질의도 있었으나, 先行의 '(이)모ᄒᆞ_'를 연결시켜 풀이하면 오히려 해석이 되지 않는 문제점만이 남는다.

40) 위 "名ソレ"의 토'レ'를 '女/녀, 려'로 추정한다. 그 이유는 여기 문맥에서 '의 문법 어미'인 'ソレ/ᄒᆞ녀'로 해석되기 때문이다.(졸고, 1995:191)

不壞의 (修)淨이나 하는 것(들)을 하네 摩訶衍의 (敎)化를 行하네 (그리)하시는 중≪§54.4≫이라≪§19.15≫

白文/ 譯注 時十六大國王中 舍衛國主波斯匿王名曰月光 德行十地 六度三十七品 四不壞淨 行摩訶衍化 /(이) 때[時]에 十六의 大國王 중[中], 舍衛國[범.Sravastil.中印度, Kosala國]의 (君)主인 波斯匿[범.Prasenajit]王은 그 이름[名]을 月光이라 말[曰]하며 德行[功德과 行法]은 十地[前注.ㄴ]와 六道[布施·持戒·忍辱·精進·禪定·智慧·곧 彼岸에의 여섯 修行]와 三十七品[三十七의 修行方法]과 四不壞淨[三寶·戒 등의 굳은 信念]과 摩訶衍[범.Maha-Yana.最上法.곧 大乘] 등의 (敎)化를 行하나니라.

白文/ 日譯 時に十六大國王中の舍衛國の主、波斯匿王その名を月光と曰ひ、德行は十地と六度と三十七品と四の不壞の淨と摩訶衍の化を行ず。

[12] <3:1~3>

原文/讀 次第ㅅ/*ᄎᆡ뎨로* 居士ㅣㄴㅍ/*거ᄉᆞ이시긔* 寶ㅈ/*보여* 蓋ㅈ/*개여* 法ㅈ/*법여*[41] 淨名ㅈㄴㅍ/*정명여ᄒᆞ긔* 等ㄴㄴㄱ/*ᄃᆞᆯᄒᆞ신* 八百人ㄹㅎㅅ/*팔빅인의희* 問ㄴㅎ/*무르시며* 復ㄴㄱ/*도ᄒᆞᆫ* 須菩提ㅈ/*슈보리여* 舍利弗ㅈㄴㅍ/*샤리불여ᄒᆞ긔* 等ㄴㄴㄱ/*ᄃᆞᆯᄒᆞ신* 五千人ㄹㅎㅅ/*오쳔인의희* 問ㄴㅎ/*무르시며* 復ㄴㄱ/*도ᄒᆞᆫ* 彌勒ㅈ/*미륵여* 師子吼ㅈㄴㅍ/*ᄉᆞᄌᆞ후여ᄒᆞ긔* 等ㄴㄴㄱ/*ᄃᆞᆯᄒᆞ신* 十千人ㄹㅎㅅ/*십쳔인의희* 問ㄴㄴㅎㄴㄴㄱ ㄹ/*문ᄒᆞ시며ᄒᆞ신을* 能ᄉᆞ/*시르디* 答ㄴㄴㅎㅅㄷ/*더답ᄒᆞ시읏* 者ㅅ/*쟈* 無ㄷㅌㅏㄴㅣ/*업ᄂᆞ기시다*[42]

直譯/讀 차례[次第]로 居士이신 분≪§52.1≫ 寶(積)이나 (月)蓋이나 法(財)이

41) 위 "寶ㅈ蓋ㅈ法ㅈ"의 寶는 寶積, 蓋는 月蓋, 法은 法財의 각각 그 약자들이다.(新脩大藏經.제33권 經疏部 乾65의 張379.上段25행)

42) 위 "無ㄷㅌㅏㄴㅣ"는 문맥에 따라 "없고 있는 것이다."가 된다(현평효, 1975: 125 참조).이는 [현재시제+지속상+존재]로 분석된다. 반드시 토'ㅌ'가 先行한다.(졸고, 1995c:193)

나 淨名이나 하는 분≪§53.4≫ 갇[等]하신 八百人에(게) 물으[問]시며 또[復]한 須菩提이나 舍利弗이나 하는 분≪§53.4≫ 갇[等]하신 五千人에(게) 물으[問]시며 또[復]한 彌勒이나 師子吼이나 하는 분≪§53.4≫ 갇[等]으신 十千人에(게) 물으[問]시며 (그리)하신 것을 能히 (對)答하신다는 이의≪§4.4≫ 분[者]은 없[無]는 것이다≪§73.3≫

白文/ 譯注 次第問居士寶蓋法淨名等八百人 復問須菩提舍利弗等五千人 復問彌勒師子吼等十千人 無能答者/(波斯匿王은) 차례[次第]로 居士[在家의 佛徒]인 寶(積), (月)蓋, 法(財), 淨名[범.Subhkirti.毘舍離國의 維摩詰] 등의 八百人에게 물[問]으며, 또[復]한 須菩提[범.Subhuti.釋尊 十弟子의 一], 舍利弗[범.Sariputra.釋尊 弟子의 一] 등의 五千人에게 물[問]으며 또[復]한 彌勒[범.Maitreya](菩薩), 師子吼[비유:佛의 說法者] 등의 十千人[많은 人員]에게 물으나 能히 (對)答하는 者 없[無]느니라.

白文/ 日譯 次第に居士、寶(積)・蓋(善)・法(財)・淨名等の八百人に問ひ、復た須菩提、舍利弗等の五千人に問ひ、復た彌勒、師子吼等の十千人に問へるに能く答ふるものなかりき。

[13] <3:4~6>

原文/讀 爾ㅌㄴㄱ/***이ㅅ호*** 時十/***기희*** 波斯匿王ㄱ/***바ᄉᆞ닉왕온*** 卽ㄹ/***바로*** 神力ㄹ丶/***신력을*** 以ᄋᆞᄋᆞ/***사아***[43] 八萬種ㅌ/***팔만죵ㅅ*** 音樂ㄹ丶/***음악올*** 作ㄴㅁㅎ/***작ᄒᆞ시며*** 十八梵天ᄉᆞ/***십팔만범텬여*** 六欲ㅌ/***륙욕ㅅ*** 諸ㄱ/***모ᄃᆞᆫ*** 天ᄉᆞㄴᄉᆞㅁ/***텬여호유도*** 亦ㄴㄱ/***도ᄒᆞᆫ*** 八萬種ㅌ/***팔만죵ㅅ*** 音樂ㄹ丶/***음악올*** 作ㄴㅁㅎ/***작ᄒᆞ시하*** 聲ㅱ/***소리로*** 三千ㄹ丶/***삼쳔을*** 動ㄴㅂㅅㅁㄱᄉᆞ/***동ᄒᆞᄂᆞ기신여*** 乃ᄋᆞ/***ᄒᆞ아사*** 十方ㅌ/***시방ㅅ*** 恒河沙ㅌ/***ᄒᆞᆼ하사ㅅ*** 佛土ᄋᆞ十丶/***불토아히*** 至ㅂ/***니르리*** 有緣ㄴㄱㄹㅜㄱ/***유연ᄒᆞᆫ의희는*** 斯ㅁㄴㅁㅅ/***이모ᄒᆞ도로기*** 現ㄴㅂㅅㅁㅣ/***현ᄒᆞᄂᆞ기시다***

直譯/讀 이[爾]러한 때[時]에 波斯匿王은 바로[卽] 神力을 써[以]서≪§84.2≫

43) 위 "以ᄋᆞᄋᆞ/사아"는 '써아'의 先代形 '*서아/사아'로 독음한 것(당시 硬音은 없었다고 봄)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神力ㄹ'의 토'ㄹ/_을'을 받아야 함으로서다. 後代의 '用良/쓰아'도 同軌로 본다.

八萬種의 音樂을 지으[作]시며 十八梵天이나 六欲(天)의 모든[諸] 天(帝)이라 한다는 분(들)도≪§15.5 /18.10≫ 또[亦]한 八萬種의 音樂을 지으[作]시여! (그) 소리[聲]로서 三千(人)을 (感)動하고 있음이라≪§19.13≫ 이에써[乃]≪§22.1≫ 十方의 恒河沙의 佛土에(까지) 이르[至]리 (因)緣 있는[有] 곳에는 이[斯]만 하도록 나타나[現]고 있는 것이다≪§73.4≫

白文/ 譯注 爾時波斯匿王卽以神力作八萬種音樂 十八梵天六欲諸天亦作八萬種音樂 聲動三千 乃至十方恒河沙佛土 有緣斯現/이[爾] 때[時]에 波斯匿王[前注.ㅅ]은 곧[卽] 神力을 써[以]서 八萬種의 音樂을 만들[作]고, 十八의 梵天[護國神]과 六欲[前注.ㅅ]의 諸天[佛法의 守護神]도 또[亦]한 八萬種의 音樂을 만드[作]니 (그) 소리[聲]는 三千 乃至 十方[前注.ㅅ] 恒河沙[無數한] 佛土[佛陀의 世界]를 움직여서 (因)緣이 있[有]는 여기[斯]에 나타나[現]느니라.

白文/ 日譯 爾の時に波斯匿王は卽ち神力を以て、八萬種の音樂を作し、十八の梵(天)も、六欲の諸天も亦た八萬種の音樂を作せしかば、(其の)聲は三千乃至十方恒河沙の佛土を動かし、緣ありて斯に現ぜり。

[14] <3:6~9>

原文/讀 彼 他方 佛國ㅌ/***더 타방 불국ㅅ*** 中ㅋㅌ/***중앗*** 南方ㅋㅌ/***남방앗*** 法才菩薩ㄱ/***법지보살은*** 五百萬億 大衆ㅐ/***오빅만억 대중이*** 俱ㅇㄴㄱㄹ·/***굴옷혼올***[44] 共ㅌ/***다못*** 來ㄴㅋㅎ/***리ᄒᆞ아금*** 此ㅐ/***이*** 大會ㅋㅏ/***대회아히*** 入ㄴㄷㅎ/***입ᄒᆞ시며*** 東方ㅋㅌ/***동방앗*** 寶柱菩薩ㄱ/***보듀보살은*** 九百萬億 大衆ㅐ/***구빅만억 대중이*** 俱ㅌㄴㄱㄹ·/***굴옷혼올*** 共ㅌ/***다못*** 來ㄴㅋㅎ/***리ᄒᆞ아금*** 此ㅐ/***이*** 大會ㅋㅏ·/***대회아히*** 入ㄴㄷㅎ/***입ᄒᆞ시며***

直譯/讀 저[彼] 다른[他] (地)方 佛(敎)國(의) 中에의 南方에(서)의 法才菩薩은 五百萬億(의) 大衆이 함께[俱] 하는 곳을 다 같이[共] (到)來하여금 이[此] 大會에 들어오[入]시며 東方에(서)의 寶柱菩薩은 九百萬億(인) 大衆이 함께[俱] 하

44) 下記 [15]의 "俱ㅌㄴㄱㄹ"<3:11>에서 토'ㅌ'이 여기서는 누락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하도 같다.

는 곳을 다 같이[共] (到)來하여금 이[此] 大會에 들어오[入]시며

白文/ 譯注 彼他方佛國中南方法才菩薩共五百萬億大衆俱來入此大會 東方寶柱菩薩共九百萬億大衆俱來入此大會/저[彼] 다른[他] (地)方의 佛(敎)國 中, 南方의 法才菩薩은 五百萬億의 大衆과 함께[俱] 다 같이[共] (到)來하여 이[此] 大會에 들어[入] 오[來]며, 東方의 寶柱菩薩은 九百萬億의 大衆과 함께[俱] 다 같이[共] (到)來하여 이[此] 大會에 들어[入] 오[來]며,

白文/ 日譯 彼の他方の佛國中、南方の法才菩薩は、五百萬億の大衆と共に、俱に來つて此の大會に入り、東方の寶柱菩薩は九百萬億の大衆と共に、俱に來つて此の大會に入り、

[15] <3:9~11>

原文/讀 北方ㅈㅌ/***북방앗*** 虛空性菩薩ㄱ/***허공보살은*** 百千萬億 大衆ㅐ/***빅쳔만억 대즁이*** 俱∅ㅅㄱㄹㆍ/***굴옷ᄒᆞᆫ올*** 共ㅌ/***다뭇*** 來ㅅㅈㅎ/***릭ᄒᆞ아금*** 此ㅐ/***이*** 大會ㅈㅏㆍ/***대회아히*** 入ㅅㄷㅎ/***들ᄒᆞ시며*** 西方ㅈㅌ/***서방앗*** 善住菩薩ㄱ/***션듀보살은*** 十恒河沙ㅌ/***십ᄒᆞᆼ하사ㅅ*** 大衆ㅐ/***대즁이*** 俱ㅌㅅㄱㄹㆍ/***굴옷ᄒᆞᆫ올*** 共ㅌ/***다뭇*** 來ㅅㅈㅎ/***릭ᄒᆞ아금*** 此ㅐ/***이*** 大會ㅈㅏㆍ/***대회아히*** 入ㅅㄷㅎ/***입ᄒᆞ시며***

直譯/讀 北方에(서)의 虛空性菩薩은 百千萬億(의) 大衆이 함께[俱] 하는 곳을 다 같이[共] 到)來하여금 이[此] 大會에 들어 오[入]시며 西方에(서)의 善柱菩薩은 十恒河沙의 大衆이 함께[俱] 하는 곳을 다 같이[共] (到)來하여금 이[此] 大會에 들어 오[入]시며

白文/ 譯注 北方虛空性菩薩共百千萬億大衆俱來入此大會 西方善住菩薩共十恒河沙大衆俱來入此大會/北方의 虛空性菩薩은 百千萬億의 大衆과 함께[俱] 다 같이[共] (到)來허여 이 大會에 들어 오며, 西方의 善住菩薩은 十恒河沙[無數無量]의 大衆과 함께[俱] 다 같이[共] (到)來하여 이 大會에 들어 오며,

白文/ 日譯 北方の虛空性菩薩は、百千萬億の大衆と共に、俱に來つて

此の大會に入り、西方の善住菩薩は十恒河沙の大衆と共に、俱に來つて此の大會に入り、

[16] <3:11~12>

原文/讀 六方ᄀᆞᄉᆞᄒᆞᆫᄀᆞ/*륙방앗로도*[45] 亦ᄉᆞᆫᄀᆞ/*도ᄒᆞᆫ* 復ᄅᆞ/*도오* 是ㅣᄂᆞ/*이* 如ㅣᄉᆞᄒᆞᆫᄀᆞ/*ᄀᆞᆮᄒᆞ다ᄒᆞᄂᆞ기시며* 作樂ᄉᆞᄅᆞᆫᄀᆞ/*작악호긔도* 亦ᄉᆞᆫᄀᆞ/*도ᄒᆞᆫ* 然ᄒᆞᄉᆞᄂᆞᆫ下/*그럿ᄒᆞ시하* 亦ᄉᆞᆫᄀᆞ/*도ᄒᆞᆫ* 復ᄅᆞ/*도오* 共ᄒᆞ/*다못* 量ᄂᆞ/*혜알흠* 無ᄒᆞᄀᆞ/*업슨* 音樂ᄋᆞ/*음악올* 作ᄉᆞᄀᆞ/*작ᄒᆞ아* 如來ᄋᆞ/*여리롤* 覺寤ᄉᆞᄇᆡ白ㅁㅏᄂᆞᆫᄀᆞ/*각오ᄒᆞ이솔ᄇᆞ고기산*[46]

直譯/讀 六方의로(부터)도≪§15.4≫ 또[亦]한 또[復] 이[是](와) 같[如]다 하고 있으며≪§27.15≫ (音)樂을 짓[作]는 일도≪§15.3≫ 또[亦]한 그러[然]하시여! 또[亦]한 또[復] 다 같이[共] (限)量 없[無]는 音樂을 지[作]어 如來를 覺寤케 하옵고 계시는(데)≪§43.5≫

白文/ 譯注 六方亦復如是 作樂亦然 亦復共作無量音樂覺寤如來/六方[東·南·西·北·上·下의 方角]에서도 또[亦]한 또[復] 이[此]와 같[如]으며 (音)樂을 만듦[作]도 또[亦]한 그러하[然]였다. 또[亦]한 또[復] 다 같이[共] (限)量 없[無]는 音樂을 만들[作]어 (釋迦)如來를 覺寤[自覺大悟]케 하니,

白文/ 日譯 六方も亦復是の如くす。樂を作すことも亦た然り。亦復た共に無量の音樂を作して、如來を覺寤し上れば、

---

45) 위 "六方"의 토'ᄒᆞᆫᄀᆞ'를 原字'琴 /노, 로'의 약체자로 추정한다. 그 이유는 이 句節의 문맥에서 '南方, 東方, 北方, 西方', 그리고 '六方으로(부터)도' 모든 菩薩들이 이 大會에 들어 왔다고 나와 있어 앞의 토'ᄒᆞᆫᄀᆞ'는 '_로'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또 토'ᄀᆞ'와 결합토는 통계로 집계한 'ᄀᆞᄀᆞ/_아도', 'ᄉᆞᄀᆞ/_ᄒᆞ야도', 'ᄉᆞᄒᆞᆫᄀᆞ/_ᄒᆞ니도', 'ᄉᆞᄒᆞᄀᆞ/_ᄒᆞ샤도', 'ᄀᆞᆮᄀᆞ/_커늘도', 'ᄋᆞᄀᆞ/_로도' 중, 의 'ᄒᆞᆫᄀᆞ/_로도'(方位格)가 있어서다. 이 '琴/ᄒᆞᆫ'(奴婢의 妻子)자는 그 당시엔 '奴'(奴婢)자와 함께 通字로서, 常用字였다.(졸고, 1995:203)

46) 위 '覺寤ᄉᆞᄇᆡ白ㅁㅏᄂᆞᆫᄀᆞ'의 토'ᄉᆞᄇᆡ/ᄒᆞ이'는 使役形이다.

[17] <3:13~15>

原文/讀 佛ㄱ/*부텨는* 卽ㄹ/*바로* 時ㅣㅿㄹㄱ ᄋᆞㄹ·/*기이거온ᄃᆞᆯ* 知ㄴㅎ/*아ᄅᆞ시며* 衆生ㅋ/*즁싱의* 根ㄹ·/*불휘를* 得ㄴㅅㄱ/*어드시ᄒᆞᆫ* 卽ㄹ/*바로* 定ㄹ·/*뎡을* 從ㄷ/*조ᄎᆞᆺ* 起ㅅㄴㅜ/*긔ᄒᆞ시하* 方 /*ᄇᆞ아ᄒᆞ롯*[47] 蓮花 師子座上ㅣ十·/*련화 ᄉᆞᄌᆞ 좌상아히* 坐ㅅ白ㄹㄱㅁ/*좌ᄒᆞ술ᄇᆞ온ᄃᆡ* 金剛山王ㆍ/*금강산왕* 如ㅣㅅㅁㅏㄴㄱ/*ᄀᆞᆮᄒᆞ다ᄒᆞ고기신* 大衆ㄱ/*대즁은* 歡喜ㅅㅣ/*환희ᄒᆞ아* 各ㅋ/*저의* 各ㅋㅇㅎ/*저의아금* 量ㅇ·/*헤알홈* 無ㄷㄱ/*업슨* 神通ㄹ·/*신통ᄋᆞᆯ* 現ㄹㅂㅏㄴㄱㅣ/*나토ᄂᆞ기신여* 地ㅣ/*다ᄒᆞ여* 及ㅅ/*밋기* 虛空ㅣㅅㅇㅋㅏ/*허공여호유의화*[48] 大衆ㅂ/*대즁이* 而ㅠ/*이로* 住ㅅㅂㅏㄴㅣ/*듀ᄒᆞᄂᆞ기시다*

直譯/讀 부처님[佛]은 바로[卽] 때[時]가 왔는 줄을 아[知]시며 衆生의 (五)根을 (攄)得하셔(서) 한 바로[卽] (禪)定을 좇[從]아 일어[起]나시어! 바야흐로[方]≪§83.6≫ 蓮花의 師子座 위[上]에 앉으[坐]시온되 金剛山(의) 王(과) 같[如]다 하고 계시는(데)≪§43.3≫ 大衆은 歡喜하여 제가끔[各各] (限)量 없[無]는 神通을 나타내[現]고 있음이라≪§19.12≫ (大)地이나 및[及] 虛空이나 한다는 곳에≪§18.6≫ 大衆이 이[而]로 살[住]고 있는 것이다≪§73.4≫

白文/ 譯注 佛卽知時得衆生根 卽從定起方坐蓮花師子座上 如金剛山王 大衆歡喜 各各現無量神通 地及虛空大衆而住/佛(陀)는 바로[卽] 때[時]임을 아[知]시고, 衆生의 (五)根[眼·耳·鼻·舌·身]을 얻[得]으셔 바로[卽] (禪)定[瞑想]을 좇[從]아 일어[起]나시어 바야흐로[方] 蓮花[비유: 釋尊敎化의 世界]의 師子座[佛陀의 座席] 위[上]에 앉[坐]으시니 金剛山[世界 外廓.想像의 高山]의 王과 같[如]다 하여 大衆은 歡喜하며 各各(限)量 없[無]는 神通을 나타내[現]는지라 (大)地와 및[及] 虛空[常住하나 無變易]에 大衆(들)이 그리하여[而] 살[住]고 있는 것이니라.

---

47) 위 '方'의 토' '는 '方'자의 초서체로 추정(김영만.1986)한다. 그 이유는 여기의 '方/*ᄇᆞ아ᄒᆞ롯'과 "方ㄷ/ᄇᆞ아ᄒᆞ롯"<張次 2:11>과는 同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方坐'는 언제나 "바야흐로..에 앉는다."로 풀이됨이 관례이다. 앞 注25) 참조.

48) 위 "虛空ㅣㅅㅇㅋㅏ"의 토'ㅅㅇㅋㅏ'는 토'ㅅㅗㅋㅏ'에서 'ㅗ'가 누락된 것으로 본다.(남풍현/이건식, 1996:32)

白文/ 日譯 佛卽ち時を知ろしめし、衆生の根を得て、卽ち定より起ち、方に蓮華の師子座の上に坐し給へば、金剛山王の如し、大衆は歡喜して、各ゝ無量の神通を現じ、地、及び虛空に大衆住せり。

仁王護國般若波羅蜜經觀空品 第二

[18] <3:17~19>

原文/讀 爾ㅌㅅㄱ/*이ㅅ호* 時十/*기희* 佛ㄱ/*부텨는* 大衆ㅋ十ㆍ/*대중의희* 告ㅅㄴㄷ/*고ᄒᆞ시긔* 十六 大國王ㄲ/*십륙 대국왕이* 意ㅈ十/*듣아히* 國土乙ㆍ/*국토를* 護ノ令ㅌ/*간슈호욧* 因緣乙ㆍ/*인연을* 問白ㆍ/*무ᄅᆞ술ㅂ* 欲人ㅅㄴㄷㅌㄱ のㄹㅅㄴㆍ/*고쟈와ᄒᆞ시누온ᄃᆞᆯᄒᆞ녀* 知白ㅈㅁㄹㄱ ㅣㅅㄱ 乃/*아ᄅᆞ술ㅂ아고온여ᄒᆞᆫ나* 吾ㄱ/*나는* 今ㅅㄱ/*엳ᄒᆞ온* 先ㅈ/*몬자* 諸ㄱ/*모ᄃᆞᆫ* 菩薩ㆍ/*보살* 爲ㅑㅎ/*위ᄒᆞ삼* 佛果乙ㆍ/*불과를* 護ノ令ㅌ/*간슈호욧* 因緣ㅣ/*인연여* 十地ㅌ/*십디ㅅ* 行乙ㆍ/*힝올* 護ノ令ㅌ/*간슈호욧* 因緣ㅣノ乙ㆍ/*인연여호ᄃᆞᆯ* 說白ㄹㅎㅌㅣ/*니ᄅᆞ술ㅂ음ㅅ다*[49]

直譯/讀 이[爾]러한 때[時]에 부처님[佛]은 大衆에(게) 알리[告]시기(를) ≪§53.8≫"十六 大國王이 意(識)에(서) 國土를 (守)護한다는 것의≪§4.1≫ 因緣을 묻[問]삽고저[欲] (함)과 (그리)하시는 중≪§54.8≫인 것(들)≪§37.8≫인가? ≪§77.3≫(를) 아[知]옵고 있음이라 (그리)하나 나[吾]는 지금[今]은 먼저[先] 모든

49) 위 "說白ㄹㅎㅌㅣ"의 토'_ㅎㅌㅣ/_음ㅅ다'(이하 모두 6회)는 분명히 다짐하는 確言法 語尾로서 "반드시-한ㅅ다(!)"라고 强調하는 의미 기능의 말투이다. 이래야만 鄕歌에서 '音叱如/_음ㅅ다'의 해독도 正解가 된다. 혹 이를'_함직하다'던가, '_함이 마땅하다' 등의 이두'爲良 音可 /하얌즉', '爲音可/함즉'(이두사전:233, 269)과는 同一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이 强調法'음ㅅ다'의 말투는 그 殘影이 오늘도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빠떼루 아저씨'의 유행어 "-부정한 사람 빠떼루 쥐야 합다."(조선일보 1996.8.23.15면)이 그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이하 이'음ㅅ다'의 풀이는 다음과 같이 ≪確言코≫라는 用語를 전제로 미리 넣고 "-를 합다≪!≫."(현재시제) 따위로 표기하기로 한다. 이는 다른 석독구결 자료는 물론, 향가의 4 例에서도 정확히 들어맞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ㅎㅌㅣ/音叱如"(_음ㅅ다)의 해독은 이로써 그 '핵심 의미'는 포착되었다고 본다.

[諸] 菩薩을 爲ᄒᆞᆷ(과) 佛果를 (守)護한다는 것의≪§4.1≫ 因緣이나 十地의 (修)行을 (守)護한다는 것의≪§4.1≫ 因緣이나 하는 것(들)을 ≪確言코≫ 說(法)하옵는다≪!≫"≪§72.4≫

白文/ 譯注 爾時佛告大衆 知十六大國王意 欲問護國土因緣 吾今先爲諸菩薩 說護佛果因緣護十地行因緣/이[爾] 때[時]에 佛(陀)는 大衆에게 告하시기를"十六의 大國王들의 意(識)에서 國土를 (守)護함의 因緣을 묻[問]고자[欲]함을 알[知]고 있음으로 나[吾]는 지금[今] 먼저[先] 모든[諸] 菩薩들을 爲하여 佛果[佛道 修行의 結果, 곧 깨달음]를 (守)護함의 因緣과 十地[前注↖]의 (修)行을 (守)護함의 因緣과를 說(法)하려다."

白文/ 日譯 爾の時、佛、大衆に告げ給はく、十六大國王の意を知れり、國土を護るの因緣を問はんと欲す。吾今、先づ諸の菩薩の爲に、佛果を護るの因緣と、十地の行を護るの因緣とを說かん。

[19] <3:19~21>

原文/讀 諦ㅣ/*ᄌᆞ셔야*[50] 聽ㅎ/*드러금* 諦ㅣ/*ᄌᆞ셔이* 聽ㅋ/*드르며* 善ㅋ/*이드며*[51] 之ㄴ、/*이를* 思ᄉᆞᆼ/*ᄉᆞᄉᆞᆷᄒᆞ져* 念ᄉᆞᆼᄉᆞㅋ/*념ᄒᆞ져ᄒᆞ며* 法ㄴ、/*법을* 如ᄂᆞᆫ/*ᄀᆞᆮ* 修行ᄉᆞㅋᄉᆞᄂᆞᆺᄉᆞᄅᆞᄒᆞᆫㄱ/*슈행ᄒᆞ며ᄒᆞ져아ᄒᆞ고기신* 時十/*기희* 波斯匿王ㄱ/*바ᄉᆞ닉왕은* 言ㄷᆞ/*니르시긔* 善ㄷᆞᄅᆞㅋㅓ/*이드시온더* 大事ㄴ/*대ᄉᆞ人* 因緣ㅟ/*인연으로* 故ᄂᆞᄉᆞᄃᆞᄅᆞㅌᆞㄱㅣㄱㅜᄉᆞ/*고로ᄒᆞ시고눈인뎡ᄒᆞ야*[52] 卽ㄹ/*바로* 百億種色ㄴ/*빅억종식人* 花ㄴ、/*곳을* 散ᄉᆞᄅᆞᄒᆞᆫㄱ/*비ᄒᆞ고기신* 變ᄉᆞᄉᆞㅎ/*변ᄒᆞ아금* 百億寶帳

---

50) 위 "諦ㅣ"를 'ᄌᆞ세히'로 독음, '자셔히'로 읽는다. 그 이유는 "諦聽ᄒᆞ라/仔細히 드르라"<楞諺4:7>와 "諦:상심 톄"<類合下21> 곧 '상심이[詳審이]' 등이 나와 있으나, 이 자료들의 年代順을 우선함으로써다.

51) 위 "善ㅋ/*이드며"는 '잘'의 뜻이나, 토'ㅋ'가 부사 파생접미사로서는 주목된다. 최근 석독구결자료 『金光經14』의 "能ㅋ/능히"<5:19>이나, 『瑜伽20』의 "善ㅋ/잘"<3:6, 16:15> 등이 나와 있으므로 수용이 된다고 하겠다.

52) 위 "故ᄂᆞᄉᆞᄃᆞᄅᆞㅌᆞㄱㅣㄱㅜᄉᆞ"의 토'ㅜ'은 '뎡'으로 독음한다. 『吏文大師』<3b>에서도"閒丁··餘丁/한뎡··여뎡"이다. 이는 先行吐"善ㄷᆞᄅᆞㅋㅓ"의 토'ㅓ'(原字는 '彼/뎌' 추정)가 '감탄형 어미'(긍정적, 기꺼울 때 씀) 에 반해, 부정적, 불안할 때 쓰인 것으로 파악된다.(졸고, 1995c:194-95)

ㅐㆍ/***빅억보당이*** 成ㅏㅎ/***일겨아*** 諸ㄱ/***모든*** 大衆ㄹㆍ/***대즁을*** 蓋ㅅㅗㅂㅣ/***개ᄒᆞ고 ᄂᆞ다***

直譯/讀 자세[諦]히 듣게[聽]끔 자세[諦]히 들으[聽]며 잘[善] 이[之]를 思(惟)하게≪§78.1≫ 念(佛)하게≪§78.2≫ (그리)하며 (佛)法과 같이[如 = 這] 修行하며 하였어 (그리)하고 계시는(데) (이) 때[時]에 波斯匿王은 말씀하[言]시기(를)≪§53.7≫ "좋[善]습지여!≪§78.2≫ 大事의 因緣으로서 그러므[故]로 (그리)하시고 있는 중≪§54.6≫이구나!≪§80.3≫ 하여≪§29.10≫ 바로[卽] 百億種 (彩)色의 꽃[花]을 흩뿌리[散]고 계시는(데)≪§43.2≫ 變(化)하여금 百億(의) 寶帳이 이루어[成]졌어 모든[諸] 大衆을 덮어 감싸[蓋]고 있다≪§73.1≫

白文/ 譯注 諦聽諦聽善思念之 如法修行 時波斯匿王言 善大事因緣故 卽散百億種色花 變成百億寶帳蓋諸大衆 /"仔細[諦]히 듣[聽]게, 자세[諦]히 듣[聽]게, 잘[善] 이[之]를 思念하여 (佛)法과 같[如]이 修行하여라." (이) 때[時]에 波斯匿王은 말씀[言]하시기를 "좋[善]습지요! 大事[修行目的]의 因緣인 때문[故]으로 곧[卽] 百億種 (彩)色의 꽃[花]을 흩뿌리[散]며 變(化)시켜 百億의 寶帳[寶石의 帳幕]을 만들[成]어 모든[諸] 大衆을 덮어 싸고[蓋] 있느니라."

白文/ 日譯 諦聽せよ、諦聽せよ。(而して)善く之を思念して如法に修行せよ。時に波斯匿王言はく「善いかな。大事因緣の故に卽ち百億の種色花を散じ、變じて百億の寶帳と成りて、諸の大衆を蓋へり。」

[20] <3:22~23>

原文/讀 爾ㅅᄂᆞㄱ/***이ㅅ호*** 時十/***기희*** 大王ㄱ/***대왕은*** 復ᄂᆞㄱ/***도ᄒᆞᆫ*** 起ᄂᆞㅈ/***긔ᄒᆞ아*** 作禮ᄂᆞㅂㅁㅗ/***작례ᄒᆞ술ㅂㅣ고*** 佛十ㆍ/***부터희*** 白ㅈ/***술ㅂㅣ아*** 言ㄴㄲ/***니르시긔*** 世尊下/***세존하*** 一切 菩薩ㄱ/***일체 보살은*** 云何ㅅᄂᆞㄱㄹ/***어딋ᄒᆞᆫ올*** 佛果ㄹㆍ/***불과를*** 護ᄂᆞㅎ/***간슈ᄒᆞ며*** 云何ㅅᄂᆞㄱㄹ/***어딋ᄒᆞᆫ올*** 十地ㅅ/***십디ㅅ*** 行ㄹㆍ/***힝올*** 護ᄂᆞㅎㅅ/***간슈호욧*** 因緣ㅐㅣᄂᆞㅁㄹㅎㅅㄹ/***인연이다ᄒᆞ고오유오***

直譯/讀 이[爾]러한 때[時]에 大王은 또[復]한 일어[起]나 禮를 갖추[作]옵고

부처님[佛]께 사뢰[白]어 말씀하[言]시기(를)≪§53.7≫ 世尊이시여! 一切(의) 菩薩은 어떠[云何]한 것을 佛果를 (守)護하며, 어떠[云何]한 것을 十地의 (修)行을 (守)護한다는 것의 因緣이다(고) 한다는 것이오?≪§75.2≫

白文/ 譯注 爾時大王復起作禮白佛言 世尊一切菩薩云何護佛果 云何護十地行因緣/이[爾] 때[時]에 大王은 다시[復] 일어나[起] 禮(儀)를 갖추[作]고 佛(陀)께 사뢰어[白] 말씀하[言]시기를"世尊이시여! 一切의 菩薩들은 어찌[云何]함이 佛果[前注.ㄴ]를 (守)護하며, 어찌[云何]함이 十地[前注.ㄴ] (修)行의 因緣을 (守)護한다는 것입니까?"

白文/ 日譯 爾の時に大王は、復起ちて禮を作し、佛に白して言さく、「世尊よ、一切の菩薩は云何が佛果を護り、云何が十地の行の因緣を護り給へるや。」

[21] <3:23~4:1>

原文/讀 佛ㄱ/***부텨는*** 言ㅎㄷ/***니르시긔*** 菩薩ㅣ/***보살이*** 四生ㄱ/***ᄉᆞᅀᅵᆼᄋᆞᆯ*** 化ㅎㅛ/***화호긔뎌*** 色ㅅ/***식어*** 如ㅅㄱᆞᄉᆞᆷ/***여여호유와***[53] 受想行識ㅅ/***슈샹힝식어*** 如ㅅㄱᆞᄉᆞᆷ/***여여호유와***[54] 衆生 我人 常樂 我淨ㅅ/***즁ᄉᆡᆼ 아인 샹락 아졍어*** 如ㅅㄱᆞᄉᆞᆷ/***여여호유와*** 知見 壽者ㅅ/***디견 슈쟈여*** 如ㅅㄱᆞᄉᆞᆷ/***여여호유와*** 菩薩ㅅ/***보샬여*** 如ㅅㄱᆞᄉᆞᆷ/***여여호유와*** 六道 四攝 一ㅣ切 行ㅅ/***륙도 ᄉᆞ셥 일쳬 힝여*** 如ㅅㄱᆞᄉᆞᆷ/***여여호유와*** 二諦ㅅ/***이뎨여*** 如ㅅㄱᆞᄉᆞᆷ/***여여호유와***ㅣ 觀ㅅᆞ/***관ᄒᆞ*** 不多ㄱᆞᄒᆞ ㅣㄴㅣ/***안ᄃᆞᆯ호리이겨다***[55]

---

53) 위 "色ㅅ-如ㅅㄱᆞᄉᆞᆷ"의 토'ㅅ-ㅅ'를 번역함에 있어 前述과 같이 '_이나-_이나'가 아닌 '_에-_이'로서 달리 새긴 것은 '열거기능'의 조사가 아닌 '비교기능'의 조사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이 비교기능조사'_에'와 '_이'의 근거로는 ①'_예'의 예문, "特은 ᄂᆞᄆᆡ 므리예 ᄠᅳ로 다ᄅᆞᆯ씨라"<釋譜. 6:7>, ②'_이'의 예문, "執杖釋의 金像이 ᄀᆞᆮᄒᆞ야"<月曲.37> 등을 들 수 있다.

54) 위 "如ㅅㄱᆞᄉᆞᆷ"의 '如'자를 '眞如'로 보는 근거는 『仁王經疏上卷』(西明寺 沙門圓測撰:新脩大藏經 第23卷 經疏部p.380-81)에서 "經不觀色如受想行識如釋曰--云 見色之如 如卽是空 空無所有 故說不觀如--見彼五陰及眞如 而不分別是色是如 故言不觀-"이다. 여기 '眞如'의 앞 '五陰'이란 곧 '色受想行識の五種の根本', '如→眞如'의 뜻이다.(中村 元:佛敎語大辭典, p.355, 1059)

直譯/讀 부처님[佛]은 말씀하[言]시기(를)≪§53.7≫ 菩薩이 四生을 (敎)化하기(로)되≪§25.6≫ 色에 (眞)如이 (그러)하다는 것과≪§10.2/18.8/20.2≫ 受·想·行·識에 (眞)如이 (그러)하다는 것과≪§10.2/18.8/20.2≫ 衆生·我人·常樂·我淨에 (眞)如이 (그러)하다는 것과≪§10.2/18.8/20.2≫ 知見·壽者에 (眞)如이 (그러)하다는 것과≪§10.2/18.8/20.2≫ 菩薩에 (眞)如이 (그러)하다는 것과≪§10.2/18.8/20.2≫ 六道·四攝·一【*切 (修)行에 (眞)如이 (그러)하다는 것과 二諦에 (眞)如이 (그러)하다는 것과·등은 】觀(心)하지 아니[不]하올 것이었다

白文/ 譯注 佛言菩薩化四生不觀色如 受想行識如 衆生我人常樂我淨如 知見壽者如 菩薩如 六道四攝一【*切行如 二諦如】/佛(陀)는 말씀[言]하시기를"菩薩이 四生[胎生 ·卵生·濕生·化生]을 (敎)化하는 데는 色[物質的 存在]에의 (眞)如와 受·想·行·識[精神的 非色의 四蘊]에의 (眞)如와 衆生[生存人間]·我人[純粹精神]·常樂[無常苦樂]·我淨[無我不淨]에의 (眞)如와 知見[知識見解]·壽者[壽命]에의 (眞)如와 菩薩[求道者]에의 (眞)如와 六道[生死의 六流轉世界]·四攝[布敎의 四方法]·一【*切 (修)行에의 (眞)如와 二諦[眞諦와 俗諦]에의 (眞)如 등은】觀(心)하지 않느니라."

白文/ 日譯 佛の言はく、「菩薩は四生を化するに、色如と受想行識如と、衆生我人常樂我淨如と知見壽者如と、菩薩如と、六道四攝一【*切行如と二諦如とを觀ぜず。」】

[22] <11:1~2>

原文/讀 等ㅅ/***등와*** 慧ㅅ/***혜와***[56] 灌頂ㅅ七/***관뎡왓*** 三品士ㄱ/***삼품ᄉᆞᄂᆞᆫ*** 前ㅋ/***알픠*** 餘ㅅㄱ/***남ᄒᆞ온***[57] 習ㅐㄱ/***닉인*** 無明緣ㅅ/***무명연여*** 無明習相ㅐㄱ/***무명습샹***

---

55) 위 【--】의 표시는 이 자료의 張次3에서 張次4로 넘어간 첫 行의 부분을 그 原文 내용 그대로 復元 및 懸吐를 추정해 본 것이다. 이하 張次11의 25行과 張次15의 25行의 것도 같은 경우로서 이 【--】표시를 사용한다.

56) 위 "等"과 "慧"는 이 자료의 張次11의 앞 張次10의 뒤쪽에 해당하는 原文에서 "等觀菩薩-"과 "慧光開士-"의 각각 그 原名을 약자로 引用한 것이다.

57) 위 "餘ㅅㄱ/남ᄒᆞ온"은 '남ᄒᆞ+ 은'의 ᄒᆞ添用語이다. 또 "等ㅅㄱ/ᄃᆞᆯᄒᆞ+은"<2:21, 14:2, 9, 10> 등이 더 나타난다. 이는 『華嚴14』에서도 "餘ㅅㄱ/남ᄒᆞ+

인 故ᄉᆞᆫᄀᆞᄇᆞᄉᆞᄒᆞᆫᄃᆞ **연고ᄉᆞᄒᆞᆫᄃᆞ** 煩惱ᄋᆞᆫᄀᆞ/**번노ᄒᆞ오ᄒᆞᆯ** 除ᄉᆞᆫᄃᆞᄅᆞᆯᄀᆞᄋᆞᆫᄀᆞ/**더ᄒᆞ시ᄂᆞᆫᄃᆞᆫ**[58] 二諦理ᄀᆞ/**이뎨리를** 窮ᄒᆞ/**막다ᄃᆞᄅᆞ**[59] 一切ᄋᆞᆫᄀᆞ/**일체ᄋᆞᆺ**[60] 盡ᄒᆞᄂᆞᆫ ᄋᆞᄆᆡᄅᆞᄂᆡ/**다ᄋᆞᆫᄒᆞᆫᄃᆞ로이오다**

直譯/讀 等(觀)과 慧(光)와 灌頂과의 三品의 士(들)은 前(生)의 남[餘]은 習(氣)인 無明(의) (因)緣이나 無明(의) 習相인 때문[故]의 (그러)한 것의 煩惱이나 하는 것(들)을 除(去)하시는 중이면 二諦의 理(致)를 窮(極)하여 一切(에)의 것≪§3.5≫ 다[盡]한 까닭이외다≪§69.2≫

白文/ 譯注 等慧灌頂三品士 除前餘習無明緣 無明習相故煩惱 二諦理窮一切盡 /"等(觀)[菩薩名]과 慧(光)[開士名]와 灌頂[菩薩名] 등의 三品[上品· 中品· 下品]의 士[불:傳道者]들은 前(生)에서 남은[餘] 習(氣)[潛在餘力]인 無明緣[根本煩惱의 原因]과 無明[根本煩惱]의 習相[原因의 樣相] 때문[故]인 煩惱 등을 除(去)하면 二諦[前注ㅅ]의 理(致)를 窮(極)하야 一切를 (消)盡함이니라."

白文/ 日譯 「等と慧と灌頂との三品の士は、前の餘習の無明の緣を除く。無明の習相の故煩惱は、二諦の理窮むるを以て一切盡す。」

은"<18:19>을 보여 주어 이를 뒷받침한다. 15세기 구결에선 토'ᄂᆞᆫ/ᄒᆞᆫ'은 거의 冠形形으로만 쓰이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는 '석독구결'이란 곧 '寫音表記'임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58) 위 "除ᄉᆞᆫᄃᆞᄅᆞᆯᄀᆞᄋᆞᆫᄀᆞ"의 '除'자는 訓讀'덜_'이 아닌 音讀'뎌'로 추정된다. 문맥에서 '除去'의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59) 위 "窮ᄒᆞ"는 '*다ᄋᆞ'<釋譜.11:11>로 독음했을 것도 같으나 오히려 '*막다ᄃᆞᄅᆞ아'<類合下37b>로 독음했을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이어서 '盡ᄒᆞ/*다ᄋᆞ'가 나와 이렇게 서로 색임을 달리 읽혀졌다고 생각해야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60) 위 "一切ᄋᆞᆫᄀᆞ"의 토'ᄋᆞᆫᄀᆞ/_ᄋᆞᆺ'은 '_에의'(유창돈:510)로 해독한 것 같으나 여기서는 名詞化한 '_에의 것'으로 파악된다. 왜냐하면 이 자료의 'ᄋᆞᆫᄀᆞ/_ᄋᆞᆺ'은 모두 4회<11:2, 14:8, 11, 15:25> 나타나는데, 名詞化로 풀이해야 문맥에 맞기 때문이다. '一切∅'의 관형사화 9회, 부사화 2회 등은 따로 나타나기 때문이다.(졸고, 1995c:202) 다른 예를 더 들어 보면 『華嚴.14』에서 "一切ᄋᆞᆫᄀᆞ 礙ᄒᆞ 無ᄒᆞᆷ"<3:16>와 『金光.3』에서 "一切ᄋᆞᆫᄀᆞ 其身上ᄀᆞ、 莊嚴ᄂᆞᄒᆞᆷ<6:7>" 따위다.

[23] <11:3~5>

原文/讀 圓智ㄱ/*원디는* 無相乙ᄉᆞᄆᆞ下/*무상을ᄒᆞ시하* 三界七/*삼계ㅅ* 王ㅣㅁ/*왕이라* 三十生乙/*삼십싱을* 盡ᄀᆞㅁ/*다ᄋᆞ고* 等ᄀᆞ/*ᄃᆞᆯ비야*[61] 大覺ᄉᆞᄆᆞ가/*대각ᄒᆞ시며* 大寂無爲ㅣㄱ/*대적무위인* 金剛藏乙ᄉᆞᄆᆞ가/*금강장을ᄒᆞ시며* 一切報乙/*일체보ᄅᆞᆯ* 盡ᄀᆞㅁ/*다ᄋᆞ고* 無極ᄉᆞㄱᄒᆞ七/*무극ᄒᆞᄂᆞᆺ* 悲乙ᄉᆞᄆᆞ가/*비를ᄒᆞ시며* 第一義諦ᄀᆞ十/*뎨일의뎨아히* 常ㅣ/*덛덛이* 安隱ᄉᆞᄆᆞ下/*안온ᄒᆞ시하* 窮原ᄉᆞᄀᆞ/*궁원ᄒᆞ져* 盡性ᄉᆞᄀᆞᄉᆞᄆᆞㄱ/*진성ᄒᆞ져ᄒᆞ신* 妙智ᄀᆞㅣ/*묘디사이*[62] 存ᄉᆞᄆᆞ가/*존ᄒᆞ시며*

直譯/讀 圓智는 無相 하시여! (그러므로) 三界의 王이니라 三十生(涯)을 다[盡]하고 같이하[等]여 大覺하시며 大寂(定)의 無爲인 金剛藏을 하시며 一切(의)(果)報를 다[盡]하고 無極한 것의 (慈)悲를 하시며 第一義諦에 (恒)常 安穩하시여! (根)原을 窮(究)하네≪§71.1≫ (本)性을 다[盡]하네≪§71.1≫(라) 하신 妙智야가 ≪§1.3≫ 存(在)하시며

白文/ 譯注 圓智無相三界王 三十生盡等大覺 大寂無爲金剛藏 一切報盡無極悲 第一義諦常安隱 窮原盡性妙智存 /"圓智[一切智:佛陀]는 無(形)相이시어! 三界[前注.ㅅ]의 王이니라.三十生(涯)를 다[盡]하시고 大覺[偉大한 覺悟]을 같이[等]하여 大寂(定)[범.nirvana], 無爲[超時間的 存在]함은 金剛藏[不變智의 集積]이니, 一切의 (果)報를 다[盡]하며 無極[佛의 境地]한 (慈)悲이시니라. 第一義諦[完全한 眞理]는 (恒)常 安穩[無煩惱의 境地]하며 (根)原을 窮(究)하고 (本)性[原因]을 (消)盡하여 妙智[不可思議의 佛智]를 (常)存하니라."

---

61) 위 "等ᄀᆞ"는 독음이 'ᄃᆞᆯ비야/ᄃᆞᆯ오아'(等/ᄃᆞᆯ을 등)<光千.42a>가 되어 의미 기능은 ①"同時に"(中村. 『佛教辭典』, pp.1002-3) ②"ひとしくする"(諸橋. 8:772)로서 풀이한 것이다. 곧 '어울리는', '같이하여'는 大覺(부처님)과 '같게 됨'의 뜻이다.

62) 위 "妙智ᄀᆞㅣ"는 『佛說四十二章經』(1361:경2b, 7a)과 『六祖檀經』(1496:23a)에서 토'ㅅᄀᆞ/이사'와는 倒置形 같다. 이를 '_ᄅᆞ싀'의 '_싀'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졸고, 1989:67) 왜냐하면 '_싀'면 토'乙ㅿㅅ'가 되어 토'乙'이 있어야 하며 문맥도 맞지 않고, 또 'ᄀᆞ'(沙/사)와 'ㅿ'(ㅅ/ᄉᆞ)는 글자부터 相異하기 때문이다.

白文/ 日譯 「圓智の無相は三界の王たり、三十生を盡して大覺に等し。大寂にして無爲なるは金剛藏なり、一切の報盡きて極まりなきの悲あり、第一義諦は常に安隱にして、原を窮め性を盡して妙智を存す。」

[24] <11:6~7>

原文/讀 三賢ᄉᆞ/*삼현여* 十聖ᄉᆞᄂᆞᆫᄀᆞ/*십성여호유는* 果報ᄋᆞ十/*과보아히* 住ᄂᆞᆫᄀᆞᆯ/*듀ᄒᆞ신을* 唯ᄒᆞᆫ/*오지기* 佛ㅣᄂᆞᆫᄇᆞᆯ/*부텨이시긔* 一人ㅣᄂᆞᆫᄉᆞ/*일인이시사* 淨土ᄋᆞ十ᄂᆞ/*정토아히* 居ᄂᆞᆫᄀᆞㅣᄆᆞᆷ/*거ᄒᆞ신이라* 一切 衆生ᄀᆞ/*일체 중싱온* 暫ᄉᆞ 火七/*사ᄇᆞᆯᄉᆞ*[63] 報ᄋᆞ十ᄂᆞ/*보아히* 住ᄂᆞᆫᄅᆞᄀᆞᆯ/*듀ᄒᆞ곤ᄋᆞᆯ* 金剛原ᄋᆞ十ᄂᆞ/*금강원아히* 登ᄂᆞᆯᄒᆞᄂᆞᆫᄀᆞㅣᄉᆞ/*등ᄒᆞ거기신이사* 淨土ᄋᆞ十ᄂᆞ/*정토아히* 居ᄂᆞᆫᄅᆞᄒᆞᄉᆡ/*거ᄒᆞ시옴ᄉᆞ다*

直譯/讀 三賢이나 十聖이라 한다는 분(들)은≪§14.1/18.9≫ (다만) 果報에 (安)住하신 곳을 오직[唯] 부처님[佛]이신 분≪§52.2≫ 한 사람[一人]이시어야 淨土에 居(住)하시니라.一切(의) 衆生은 잠깐[暫]야만 (果)報에 (安)住하건만을 金剛의 (根)原에 올라[登]가 계신 분이라야 ≪確言코≫ 淨土에 居(住)하신다≪!≫≪§72.2≫

白文/ 譯注 三賢十聖住果報 唯佛一人居淨土 一切衆生暫住報 登金剛原居淨土 /"三賢[十住·十行·十回向]과 十聖[十地의 聖者]은 果報[應報]에 (安)住하거늘 오직[唯] 佛(陀) 한 분[一人] 뿐 淨土[極樂國土]에 居(住)하시니라.一切의 衆生은 잠깐[暫]만 (果)報에 (安)住하건만 金剛[喩定]의 (根)原에 오르[登]시는 분이라야 淨土[前注↖]에 居(住)하시느니라."

白文/ 日譯 「三賢十聖は果報に住し、唯佛一人のみ淨土に居り給ふ。一切の衆生は暫く報に住し、金剛の原に登れば淨土に居す。」

---

63) 위 "暫ᄉᆞ 火七"(사브ᄉᆞ)은 霎時間(삽시간)의 先代形이 아닌가 한다. 곧 '暫=ᄉᆞ 火七'로 보고 '사브ᄉᆞ'으로 해독한다.

[25] <11:8>

原文/讀 如來ㄴ/*여러ㅅ* 三業ㄱ/*삼업은* 德ㅣ/*덕이* 無極ㅅ ᄒᆞ나ㅎㄱ/*무극ᄒᆞ고 기신* 我ㅣㄹ/*나이과*[64] 今ㅅ/*엳ᄒᆞ가*[65] 月光ㄱ/*월광온* 三寶ㄹ·/*삼보ᄅᆞᆯ* 禮ㅅ 白ㅁ ᄒᆞᄅᆞㄱ ᄉᆞ/*례ᄒᆞ술ᄇᆞ고누온여*

直譯/讀 如來의 三業은 德(行)이 無極하고 계시는(데)≪§43.1≫ 나[我]인 몸≪§53.1≫ 여지[今]껏≪§60.2≫ 月光은 三寶를 禮(儀)하옵고 있는 중≪§54.9≫이라≪§19.16≫

白文/ 譯注 如來三業德無極 我今月光禮三寶 /"(釋迦)如來의 三業[意業·身業·口業]은 德行이 無極[圓滿無上]하시고 나[我] (至)今 月光[波斯匿王]은 三寶[佛·法·僧]를 禮(儀)하니라."

白文/ 日譯 「如來の三業の德は極まり無し、我いま月光は三寶を禮す。」

[26] <11:9~10>

原文/讀 法王ㄱ/*법왕온* 上·/*우ᄒᆞ* 無ㅌᆞㅈ/*업사* 人中ᄒᆞㅌᆞㅊ/*인듕앗* 樹ㅣㄴㄱ下/*큰 나모이시하*[66] 大衆ㄷ·/*대즁을* 覆蓋ㅅ 白ㅁㄹㅁ/*부개ᄒᆞ술ᄇᆞ오긔더* 量∅·/*헤알흠* 無ㅌᆞㄱ/*업슨* 光ㅱㅅㄴㅋㅿ/*빗으로ᄒᆞ시며* 口ᄒᆞㅏ/*입아히* 常ㅣ/*덛덛이* 說法ㅅ 白ㅁㄹㅁ/*설법ᄒᆞ술ᄇᆞ오긔더* 無義ㅅㄱ ㅇㄷㅅㄹ·/*무의ᄒᆞᆫ돌ᄒᆞ긔* 非ᄉᆞㅅㄴㅋㅿ/*안*

64) 위 "我ㅣㄹ"의 토'ㅣㄹ'는 前述의 토'ㅣㄴㄹ'<2:24, 3:1>와 同軌이다. 따라서 '_인몸'으로 새긴다.(졸고, 1995c:183, 190) 그리고 토'ㅣㄹ'는 후대의 토'ㅣㅂ'로 파악된다. 이는 『梵網經』(1306:12b, 15a)에서 모두 주격조사'_이/가', 또는 '_로서'로 풀이된다.

65) 위 "今ㅅ/*엳기"를 '여지껏'으로 풀이한다. 그 이유는 토'ㅅ'를 끝자로 쓰인 경우는 모두 부사 또는 부사어미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예하여 ①'及ㅅ', '唯ㅅ', ②'本ㅱㅅ', '斯ㅁㅇㅌㅅ' 등이다. 그러나 '今ㅅㄱ/*엳ᄒᆞᆫ'이 '지금은'(강조형)의 풀이와는 사정이 다르다. 마치 15세기의 '_ㄴ대'와 '_ㄴ댄'이 그 현대어'_니까'와 '_니까는'을 그 同軌로 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66) 위 "樹"자는 類合에서 '큰나모 슈'<上5b>이므로 문맥에도 어울리는 '큰 나모'로 새긴다.

돌ᄒᆞ시며 心智 寂滅ᄂᆞᆫᄃᆞ/***심디 적멸ᄒᆞ시하*** 緣ㆍ/***연*** 無ᄒᆡ/***업시*** 照ᄒᆞᄂᆞᆫᄆᆞᆫᄀᆞᆯᄒᆞᆫ/***죠ᄒᆞ시골며***

直譯/讀 法王은 (그 以)上이 없[無]어 사람[人] 중[中]에서의 (큰) 樹(木)이시여! 大衆을 둘러쳐[覆] 가리[蓋]시옵기(로)되≪§25.7≫ (限)量 없[無]는 빛[光]으로서 하시며 입[口]에(서) (恒)常 說法하시옵기(로)되≪§25.7≫ 義 없[無]는 것을 하는 것≪§53.5≫ 아니[非]하시며 心智가 寂滅하시여! (因)緣이 없[無]이 비추[照]시고 (그)럴 것이며

白文/ 譯注 法王無上人中樹 覆蓋大衆無量光 口常說法非無義 心智寂滅無緣照 /"法王[佛陀]은 (그 以)上이 없[無]어 人(間) 중의 (神靈의) 樹(木)이시니라.大衆을 둘러쳐 덮게[覆蓋]하시어 (限)量 없[無]는 빛[光]이시며, 입[口]으로 (恒)常 (佛)法을 (講)說하시어 義 없음[無]은 아니[非]하시며 心智[心體의 智用]는 寂滅[解脫의 境地]하시어 無緣[對象無의 境地]으로 비추[照]시니라."

白文/ 日譯 「法王は無上にして人中の樹なり、大衆を覆蓋して無量の光あり。口に常に法を說いて義なきに非ず、心智寂滅にして無緣を照し給ふ。」

[27] <11:11~13>

原文/讀 人中ᄋᆞᆫ/***인듕앗*** 師子ㄱ/***ᄉᆞᄌᆞ는*** 衆ᄀᆞ/***즁의*** 爲ᄋᆞᄒᆞ/***위ᄒᆞ삼*** 說ㅁㅏㄴㄱ/***니ᄅᆞ고기신*** 大衆ㄱ/***대즁은*** 歡喜ᄂᆞᆫᄋᆞ/***환희ᄒᆞ아*** 金花ㄷᆞ/***금화ᄅᆞᆯ*** 散ᄂᆞ白ㅁㅣᄒᆞᆫᄃᆞ/***비ᄒᆞᄉᆞᆯ뷔고ᄂᆞᆯ며*** 百億萬土ㄱ/***빅억만토는*** 六 大動ᄂᆞㅁㅣᄒᆞᆫᄃᆞ/***여슷 대동ᄒᆞ고ᄂᆞᆯ며*** 生ㄷᆞ/***싱ᄋᆞᆯ*** 含ᄂᆞㄱㅣㅂᄀᆞ/***함ᄒᆞᆫᄂᆞᆺ*** 之生ㄱ/***싱은*** 妙報ㄷᆞ/***묘보ᄅᆞᆯ*** 受ㅁㅣㅂㄱ/***받고는여*** 天尊ㄱ/***텬존은*** 快ᄒᆞ/***쾌히*** 十四王ᄒᆞᄋᆞᆫㄷᆞ/***십ᄉᆞ왕의아ᄂᆞᆯ*** 說ㅁㅏㄴㄱ/***니ᄅᆞ고기신*** 是ㅐ/***이*** 故ᄆᆞ/***젼ᄎᆞ로***[67] 我ㄱ/***나는*** 今ᄂᆞㄱ/***엳ᄒᆞ온*** 略ᄒᆞ/***략히*** 佛

67) 위 "故ᄆᆞ"는 '젼ᄎᆞ로/때문으로'로서 새긴다. 한번 더 張次<14:5>에서 나타난다. 반드시 '是'(이)자가 先行한다. 그러나 後述에서 토'ᄆᆞ/のᄆᆞ'를 先行시켜 쓴 '故ㅅ/고로'<14:5, 15:8>와는 아주 대조적이다. 그런데 위 "故ㅅ"를 '*고호'로 읽는 견해도 있다. 『瑜伽20』에서 "故ᄀᆞ"로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乙丶/*부텨를* 歎ソ白ロトろ丨ソヒハニ丨/*탄ᄒᆞ술ᄇᆞ고누오다ᄒᆞᄂᆞ기시다*

直譯/讀 사람[人] 중[中]에서(의) 師子는 (大)衆의 爲함 說(法)하고 계시는(데)≪§43.1≫ 大衆은 歡喜하여 (黃)金의 (蓮)花를 흩뿌리[散]옵고 날리며 百億萬의 (國)土는 여섯[六]번 크[大]게 (震)動하고 날으며 生(命)을 먹음[含]은 것의 (出)生은 妙한 (應)報를 받[受]고 (태어)난 것이라≪§19.11≫ 天尊은 快히 十四王의 이들을 說(法)하고 계시는(데)≪§43.1≫ 이[是] 때문[故]으로 나[我]는 지금[今]은 (簡)略히 부처님[佛]을 (讚)歎하옵고 있는 중이다≪§73.1≫(라) 하고 있는 것이다≪§73.6≫

白文/ 譯注 人中師子爲衆說 大衆歡喜散金花 百億萬土六大動 含生之類受妙報 天尊快說十四王 是故我今略歎佛 /"人(間) 中에 師子[佛陀]는 大衆을 爲해 說(法)하시매 大衆은 歡喜하야 (黃)金의 (蓮)花를 흩뿌리[散]는데 百億萬의 (國)土는 여섯[六]번 크[大]게 (震)動하여 衆生의 (出)生도 妙報[應報]를 받[受]느니라. 天尊[佛陀]은 快히 十四의 王들을 說(法)하시고 이[是] 때문[故]으로 나[我]는 (至)今 (簡)略히 佛(陀)를 (讚)歎하고 있느니라."

白文/ 日譯 「人中の師子は(大)衆の爲に說き給へば、大衆歡喜して金華を散じ、百億萬の土は、六たび大いに(震)動し、含生の類も妙報を受く。天尊はよく十四の王を說き給ふ、是の故に我いま略して佛を歎じ上つる。」

[28] <11:14~16>

原文/讀 時十/*기희* 諸ㄱ/*모든* 大衆ㄱ/*대즁은* 月光王ㅐ/*월광왕이* 十四王ㅋ/*십ᄉᆞ왕의* 量ø丶/*헤알흠* 無ㅌㄱ/*업슨* 功德藏乙丶/*공덕장을* 歎ソニトろㄱのこ丶/*탄ᄒᆞ시누온ᄃᆞᆯ* 聞白ロソㄱ/*드ᄅᆞ술ᄇᆞ고ᄒᆞᆫ*[68] 大法利乙丶/*대법리를* 得ヒハニ分/*얻*

하나의 典籍에서 오직 1회 뿐인 경우는 손으로 쓴 理由로서 채택하지 않음이 관례인 것으로 안다.

68) 위 "聞白ロソㄱ"의 토'ソㄱ/_ᄒᆞᆫ'은 'ᄒᆞ+은/ᄒᆞᆫ'으로 주제격 조사이다.(남광우:476/유창돈:735), 이는 '들으시옵고 한'으로 해석된다.(졸고, 1995c:182)

ᄂᆞ기시며 卽ㄹ/**바로** 於座ㄷ/**좌ᄉᆞ** 中ㅣ十/**듕아히** 十恒沙ㄷ/**십ᄒᆞᆼ사ᄉᆞ** 天王ㅣ/**텬왕여** 十恒沙ㄷ/**십ᄒᆞᆼ사ᄉᆞ** 梵王ㅣ/**범왕여** 十恒沙ㄷ/**십ᄒᆞᆼ사ᄉᆞ** 鬼神王ㅣ/**귀신왕여** 乃ㅣ/**ᄒᆞ아사** 至ㅢ/**니르리** 三趣ㄷᄒᆞᆫㅣᄉᆞᆫᄉᆞ/**삼츄ᄉᆞ로여호유**[69] 有ㄷᄒᆞᆫᄀᆞㅣ/**잇건여** 無生法忍ㄹᆞ/**무싱법인을** 得ᄂᆞᆫᄀᆞ/**얻겨며**

直譯/讀 (이) 때[時]에 모든[諸] 大衆(들)은 月光王이 十四(의) 王(들)의 (限)量 없[無]는 功德藏을 (讚)歎하시는 중≪§54.7≫인 것을≪§37.7≫ 들으[聞]시옵고 한 큰[大] 法利를 얻[得]고 있으며 바로[卽] 座(席)의 中에 있어서[於] 十恒沙의 天王이나 十恒沙의 梵王이나 十恒沙의 鬼神王이나 이에써[乃]≪§22.1≫ 이르[至]리 三趣에로(까지)이라 한다는 것(이)≪§51.3≫ 있[有]었음이라≪§19.17≫ 無生의 法忍을 얻[得]었으며

白文/ 譯注 時諸大衆聞月光王 歎十四王無量功德藏 得大法利 卽於座中 有十恒沙天王 十恒沙梵王 十恒沙鬼神王 乃至三趣得無生法忍/(이) 때[時]에 모든[諸] 大衆은 月光王[波斯匿王]이 十四 王들의 (限)量 없[無]는 功德藏[곧 佛陀]을 (讚)歎하는 것을 듣[聞]고서 큰[大] 法利[佛法上의 功德, 利益]를 얻[得]으며 곧[卽] 座(席) 中에서[於] 十恒沙[不知其數]의 天王[靈的 王者]과 十恒沙[不知其數]의 梵王[梵天의 王]과 十恒沙의 鬼神王[神靈] 등의 王과 乃至 三趣[三惡神]에까지 있[有]음이라 無生(滅)의 法忍[非情法에의 忍辱]도 얻[得]으며

白文/ 日譯 「時に諸の大衆は、月光王の十四の無量の功德藏を歎ずるを聞いて、大いなる法利を得たり。卽ち座の中に於いて、十恒沙の天王と、十恒沙の梵王と、十恒沙の鬼神王と、乃至三趣とありて無生法忍得、」

[29] <11:17~19>

原文/讀 八部 阿須輪王ㄱ/**팔부 아슈륜왕온** 現ㅣ十/**나토아히** 鬼身ㄹᆞ/**귀신을** 轉ᄉᆞᆫ로/**뎐ᄒᆞ고** 天上ㅣ十ᄉᆞᆫㅣ/**텬상아히ᄒᆞ아** 道ㄹᆞ/**도롤** 受ᄂᆞᆫᄀᆞ/**받겨며** 三生ㄹᆞᆫ로/**삼싱을ᄒᆞ고** 正位ㅣ十ᄂᆞ/**졍위아히** 入ᄉᆞᆫᄀᆞㅂ기ㅢ/**입ᄒᆞᆫᄂᆞ도이져** 者 或ᄉᆞ

69) 위 "三趣ㄷᄒᆞᆫㅣᄉᆞᆫᄉᆞ"의 토'ᄒᆞᆫ'에 대해서는 본 脚注28을 참조.풀이는 '三趣으로(까지)이라 한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ㄱ/*혹ᄒᆞᆫ*[70] 四生ㅅ/*ᄉᆞ싱여* 五生ㅅ/*오싱여* 乃ᄋᆞ/*ᄒᆞ아사* 至ㅣ/*니르리* 十生ㅅㅅㅣㄹㅗ/*십싱여호ᄂᆞᆯᄒᆞ고* 得ㅠ/*시러금* 正位ᄋᆞㅓㅅ/*정위아히* 入ㅅㄱㅂㅋㅣㅎㅅㅏㅅ/*입ᄒᆞᆫᄂᆞ도이져ᄒᆞ며* 聖人性ㄹㅣ/*셩인성을* 證ㅅㄱㅂㅋㅣㅅ/*증ᄒᆞᆫᄂᆞ도이며* 一切 無量報ㄹㅣ/*일체 무량보ᄅᆞᆯ* 得ㅂㅋㅣㅏㅣ/*얻ᄂᆞ도이겨다*

直譯/讀 八部의 阿須輪王은 나타남[現]에 鬼身으로 (變)轉하고 天上에서 하여 道(諦)를 받[受]았으며三生을 하고 正位에 들어가[入]는 이[者]도 있다네 혹[或]은 四生이나 五生이나 이에싸[乃] ≪§22.1≫ 이르[至]리 十生이나 하는 것(들)하고≪§18.2/26.6≫ 能하게[得]끔 正位에 들어가[入]는 이도 있다네 하였으며 聖人性을 證(悟)한 이도 있으며 一切 (限)量 없[無]는 (果)報를 얻[得]는 이도 있었다

白文/ 譯注 八部阿須輪王現轉鬼身天上受道 三生入正位者 或四生五生乃至十生得入正位 證聖人性得一切無量報/八部[四天王에 속한 八種의 鬼神]의 阿須輪王[阿修羅王: 惡神]은 나타남[現]에 鬼身으로 (變)轉하여 天上[天의 世上]에서 道(諦)를 받아, 三生[前生・現世・後世]하고서 正位[無煩惱의 境地]에 들어[入]가는 者도 있으며 或은 四生[胎生・卵生・濕生・化生], 五生[息苦生・隨類生・勝生・增上生・最後生] 乃至 十生[無數한 生・死의 輪廻인 緣起를 벗어나야 할 生]까지 하여 能히[得] 正位[前注.ㅅ]에 들어 가며 聖人性[聖者의 素質]을 證(悟)하고서 一切 (限)量 없[無]는 (果)報도 얻[得]느니라.

白文/ 日譯 八部の阿須輪王は現に鬼身を轉じて天上に道を受け、三生にして正位に入る者あり、或は四生五生乃至十生にして正位に入ることを得、聖人の性を證して、一切無量の報を得ぬ。

[30] <11:20~22>

原文/讀 佛ㄱ/*부텨는* 諸ㅎ/*모ᄃᆞᆫ의* 道果ㄹㅣ/*도과ᄅᆞᆯ* 得ㅏㄱ/*얻건* 實天衆ㅎㅏ

---

70) 위 "或ㅅㄱ"을 '*혹ᄒᆞᆫ'으로 새긴다. 文例로는 '시혹'만 있어 여기서는 문맥에 맞추어 '또ᄒᆞᆫ'인 당시 硬音이 없는 '도ᄒᆞᆫ'으로 새겼을까? 미상이다. '或은'의 先代形으로 이것도 'ㅎ'添用語의 하나가 아닌가 한다.

丶/*실뎐즁의희* 告ㄴㄹ/*고ᄒᆞ시긔* 善男子ㅣ/*션남ᄌᆞ아* 是ㅂ/*이* 月光王ㄱ/*월광왕ᄋᆞᆫ* 已ㅣ/*이믜사*[1] 於過去ㅌ/*과거ᄉᆞ* 十千劫ㅌ/*십쳔겁ᄉᆞ* 中ㅣㅌ/*듕앗* 龍光王佛法ㅌ/*룡광왕불법ᄉᆞ* 中ㅣ十ㅅㅣ/*듕아히ᄒᆞ아* 四住ㅌ/*ᄉᆞ듀ᄉᆞ* 開士ㅂㄹ丶/*기ᄉᆞ이긔*[2] 爲ㅇㄷㅅㅣㄴㄱㄷ/*ᄃᆞ외ᄃᆞᆯᄒᆞ다건을* 我ㄱ/*나ᄂᆞᆫ* 八住ㅌ/*팔듀ᄉᆞ* 菩薩ㅂㄹ丶/*보살이긔*[3] 爲ㅇㄷㅅㅣㅅ白ㄹㄱㅇ/*ᄃᆞ외ᄃᆞᆯᄒᆞ다기ᄉᆞᆯ팀ᄋᆞᆫᄃᆞ로*[4] 今ㅅㄱ/*엳ᄒᆞᆫ* 於我ㅋ/*나읫* 前ㅣ十ㅅㅣ/*알퓌아히ᄒᆞ아* 大師子吼ㄷㅅㄴㅏㅣ/*대ᄉᆞᄌᆞ후를ᄒᆞ겨누다*

直譯/讀 부처님[佛]은 모두[諸]의 道果를 얻[得]었는 實(體)의 天衆에(게) 알리[告]시기(를)≪§53.7≫ 善男子(들)아! 이[是] 月光王은 이미[已]싸≪§22.2≫ 過去에 있어서[於](의) 十千劫의 中에 (또) 龍光王佛(理)法의 中에서 하여 四住의 開士인 몸 된[爲]들 (그리)한다 했는 것을 내[我]는 八住의 菩薩인 몸 되[爲]들 (그리)하여 나간다 하옵는 까닭(으로) 지금[今]은 내[我]의 앞[前]에서[於] (이렇게) 하여 大師子吼를 했는 중이다≪§73.2≫

白文/ 譯注 佛告諸得道果實天衆 善男子 是月光王已於過去十千劫中龍光王佛法中 爲四住開士 我爲八住菩薩 今於我前大師子吼如是/佛(陀)는 모든 道果[佛道修行의 結果]를 얻[得]은 實(體)인 天衆[天上界의 諸神]에게 알리[告]시기를"善男子[念佛하는 男兒.곧 菩薩]들아! 이[是] 月光王[前注丶]은 이미 過去의 十千劫[아득한 긴 歲月] 中, 龍光王佛(之世)의 法中에 있어서[於] 四住[見一切住地·欲愛住地·色愛住地·有愛住地:곧 四種의 煩惱]의 開士[菩薩]가 되[爲]었고, 내[我]는 八住[八種의 住法]의 菩薩이 되[爲]느니라.(至)今 내[我] 앞[前]에서[於] 大師子吼[佛陀의 諸法]를 하는 것 이[是]와 같은 것이니라."

白文/ 日譯 佛は諸の道果を得る實の天衆に告げ給はく、「善男子よ、

---

71) 위 "已ㅣ/_사"의 '已'는 '旣'(이믜)<類合上30b>와 同意語이다. 이는 '이믜'에 强勢(사)를 더한 것'*이믜사'로서 분석된다.

72) 위 "開士ㅂㄹ丶"의 토'ㅂㄹ丶/*이긔'의 해석은 '_인몸'으로 풀이한다. 위 脚注64 참조.

73) 위 "薩ㅂㄹ丶/*이긔"는 앞 "士ㅂㄹ丶/*이긔"와 同軌이다. '菩薩인몸'으로 풀이한다.

74) 위 "爲ㅇㄷㅅㅣㅅ白ㄹㄱㅇ"의 토'ㅅㅣㅅ' 중, 토'ㅅ'는 여기서 '동작 지속상'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응한 'ㅅㅣ/ᄒᆞ다'+'ㅅ/기'의 풀이는 '_하여 나간다'의 뜻으로 해독해야 한다.

是の月光王は、已に過去の十千劫中の龍光王佛の法中に於て、四住の開士となり、我は八住の菩薩たりき。今わが前に於いて大師子吼すること」(筆者 注:日譯은 다음 첫 구절"如是如是"[是の如く是の如し。]를 이 구절에 넣었으나, 原 懸吐文대로 처리했다. 따라서 相異함. 요참조.)

[31] <11:22~24>

原文/讀 是ㆍ/*이* 如ㅣㅅ分/*ᄀᆞᆮᄒᆞ다ᄒᆞ며* 是ㆍ/*이* 如ㅣㅅ ᄀᆞᆷ/*ᄀᆞᆮᄒᆞ다ᄒᆞ아* 汝ᄀᆞᆞ/*너의* 解ㅅᄉᆞᆨㄱㆍ/*히ᄒᆞ견*[75] 所ᄀᆞᆷㆍ/*바아* 如ㅣㅅᄂᆞㅣ/*ᄀᆞᆮᄒᆞ다ᄒᆞ겨다* 眞義ㄹㆍ/*진의를* 得ᄀᆞᆷ/*얻아* 說ㅏㄱㅣㅁ/*니ᄅᆞ눈이라* 思議ㅅᄒᆞㆍ/*ᄉᆞ의홈* 可ㅊㅅㄱㆍ/*어루ᄉᆞᄒᆞᆫ* 不ᄉᆞᆨ分/*안디며* 度量ㅅᄒᆞㆍ/*도량홈* 可ㅊㅅㄱㆍ/*어루ᄉᆞᄒᆞᆫ* 不ᄉᆞᆨㅣㅁㄱ/*안디이곤* 唯ㅅ/*오지기* 佛人/*부텨와* 與ㅌ/*다ᄆᆞᆺ*[76] 佛人ㅣㄴᄀᆞ/*부텨와이시사* 乃ᄀᆞ/*ᄒᆞ아사* 斯ㅣ/*이* 事ㄹㆍ/*일을* 知ㄴᄒᆞㅌㅣ/*아ᄅᆞ심ᄉᆞ다*

直譯/讀 이[是]와 같[如]다 하며 이[是]와 같[如]다 하여 너희[汝]의 (理)解하였는 바[所](와) 같[如]다 하였다 참[眞]다운 (敎)義를 얻[得]어 (講)說하는 중≪§54.1≫이라≪§70.2≫ 思議함은 可(能)한 (것) 아니[不]며 헤아림[度量] (또한) 可(能)한 (것) 아니[不]건만 오직[唯] 부처[佛]와 더불어[與] 부처님[佛]이시라야 이에싸[乃]≪§22.1≫ 이[斯] 일[事]을 ≪確言코≫ 아[知]신다≪!≫≪§72.1≫≪§22.1≫

白文/ 譯注 如是 如是 如汝所解 得眞義說不可思議不可度量 唯佛與佛乃知斯事 /"이[是]와 같[如]다 하며 이[是]와 같[如]다 하여 너희[汝]가 (理)解하는 바[所]와 같[如]으니라. 참[眞]다운 (敎)義를 얻[得]어 說(法)한다는 것은 可히 헤아릴[思議] 수 없[不]으며 (또) 可히 가늠할[度量] 수 없[不]느니라.오직[唯] 부처[佛]와 더불[與]어 부처님[佛(陀)] 뿐이곧[乃] 이[斯] 일[事]을 아[知]시니라."

---

75) 위 "解ㅅᄉᆞᆨㄱㆍ"의 토'ᄉᆞᆨ'는 그 해석이 '(理)解ᄒᆞ견-'(과거시제)으로 풀이될 때, 다음 "如ㅣㅅᄂᆞㅣ"(과거시제)의 풀이(문맥)와도 一致한다. 따라서 同一文句의 文脈에서는 同一時制이므로 앞의 토'ᄉᆞᆨ'는 'ᄂᆞ'의 誤字로 본다.

76) 위 "與ㅌ"은 '다ᄆᆞᆺ(與)<杜초7:11>의 새김이다. '더브렛'(將數子)<杜기초7:1>도 보이나 上代의 考證이 미흡하다.

白文/ 日譯 「是の如く是の如し。汝が言ふ所の如きは、眞の義を得て、不可思議不可度量を說く。唯佛と佛とのみ乃ち斯の事を知り給ふ。」(筆者注:日譯과는 相異함.上揭文/注 참조.)

[32] <11:24~25.-12:1>

原文/讀 善男子ㅣ/*선남ᄌᆞ아* 其 說白ᄒᆞᆫᄃᆡ/*그 니ᄅᆞ술ᄇᆞᆫ* 所ㄴ/*바ㅅ* 十四 般若波羅蜜ㅣㄱ/*십ᄉᆞ 반야바라밀인* 三忍ㅣ/*삼인여* 地地ㅣ十/*디디아히* 上中下ㅅᄂᆞㄱ/*샹듕하금ᄒᆞᆫ* 三十忍ㅣㄴᄃᆞ/*삼십인여호ᄃᆡ* 一切【*行藏ㅣ라/*일체 힝장이며* 一切 佛藏ㅣㅠ/*일체 불장이라* … 】

直譯/讀 善男子(들)아! 그[其] 說(法)하옵는 바[所]의 十四(의) 般若波羅蜜(經)인 三忍이나 (十)地(의) 地(마다)에 上·中·下씩 한 三十忍이나 하는 것(들은)≪§18.4/53.2≫ 一切【 *行藏이며 一切 佛藏이라 … 】

白文/ 譯注 善男子 其所說十四般若波羅蜜 三忍地地上中下三十忍 一切【*行藏一切佛藏 … 】/"善男子[前注.ㅅ]들아! 그[其] 說(法)하는 바[所]의 十四의 般若波羅蜜(經)의 三忍[法忍·信忍·順忍]과 地地[十地의 地마다]의 上·中·下(品)의 三十忍[四善根의 三十番 忍位]은 一切【*行藏[一切 佛陀의 總行績]이며 一切 佛藏[一切 佛陀의 總佛說]이라 … 】"

白文/ 日譯 「善男子よ、其說く所の十四の般若波羅蜜の三忍と地地の上中下の三十忍とは、一切の【*行藏にして(又)一切の佛藏なり。…】」

[33] <14:1~2>

原文/讀 (幻)化ㄴ/*환화ㅅ* 衆生ㅣ/*즁ᄉᆡᆼ이* 幻化ㄹᆞ/*환화ᄅᆞᆯ* 見ㅏㄱㅣㅁ/*보ᄂᆞᆫ이며* 幻化ㅣ/*환화이* 幻化ㄹᆞ/*환화ᄅᆞᆯ* 見ㅏㄱㅣㅁ/*보ᄂᆞᆫ이라* 婆羅門ㅅ/*바라문여* 刹利ㅅ/*찰리여* 毗舍ㅅ/*비샤여* 首陀ㅅㄴᆞ/*슈타여호의* 神我等ㅅㄱ/*신아ᄃᆞᆯᄒᆞ온* 色心ㄹ/*식심을* 名ㅈ/*일홈아*[77] 爲幻諦ㅅㄴᄎᆡㅣ/*위환톄여호리이며*

77) 위 "名ㅈ"를 '일ᄏᆞᆯ아'로 새김직한데 '稱'자에 그런 訓이 있고, '名'자에는 일찍이 보이지 않는다. 뜻은 같으나 '일홈아'로 새긴다.

直譯/讀 (幻)化의 衆生이 幻化를 보[見]는 중≪§54.1≫이며≪§27.5≫ (또한 그) 幻化가 幻化를 보[見]는 중≪§54.1≫이라≪§70.2≫ 婆羅門이나 刹(帝)利이나 毗舍이나 首陀이나 하는 것(들)의≪§18.5≫ 神我 같[等]은 色心을 일컬[名]어 幻諦로 됨[爲]이라 하올 것이며

白文/ 譯注 (幻)化衆生見幻化 幻化見幻化 婆羅門刹利毗舍首陀 神我等色心 名爲幻諦 /"(幻)化[幻像物]의 衆生이 幻化[前注.↖]를 보[見]는 것이므로 (곧) 幻化가 幻化를 보[見]는 것이니라.婆羅門[僧侶階級]과 刹利[王族·武士階級]와 毗舍[庶民階級]와 首陀[隷民]와 神我[魂靈] 등의 色心[身·心]을 일컬어[名] 幻諦[幻像과 眞實]라 함[爲]이라."

白文/ 日譯 「一(幻)化なり、衆生幻化を見る。幻化にして幻化を見る。婆羅門·刹(帝)利·毗舍·首陀·神我等の色心名けて幻諦と爲す。」

[34] <14:2~4>

原文/讀 幻諦ㄴ/*환뎨ㅅ* 法ㄱ/*법은* 佛ㅐ/*부텨이* 出世ㅅ白ㅎ尸ㆍ/*출셰ᄒᆞ술ㅂ오긔* 無ㄴㅁㄱㅂㄴ/*업스신ᄃᆞ* 前ㅈ十/*알핀아히* 名字ㆍ/*명ᄌᆞ* 無ㄴㅎ/*업ᄉᆞ져* 義ㄴ/*의ㅅ* 名ㆍ/*일훔* 無ㄴㅎㅅ/*업ᄉᆞ져ᄒᆞ며* 幻法ㅈ/*환법여* 幻化ㅈㅅ수ㄱ/*환화여호유는* 名字ㆍ/*명ᄌᆞ* 無ㄴㅎ/*업ᄉᆞ져* 體相ㆍ/*체샹* 無ㄴㅎㅅ/*업ᄉᆞ져ᄒᆞ며* 三界ㄴ/*삼계ㅅ* 名字ㆍ/*명ᄌᆞ* 無ㄴㅎ/*업ᄉᆞ져* 善惡 果報ㅐㄱ/*선악 과보인* 六道ㄴ/*륙도ㅅ* 名字ㆍ/*명ᄌᆞ* 無ㄴㅎㅅㅏㅣ/*업ᄉᆞ져ᄒᆞ겨다*

直譯/讀 幻諦의 法은 부처님[佛]이 出世 하시옵는 바≪§53.12≫ 없[無]으신 것의 앞[前]에(서) 名字는 없[無]다네 (敎)義의 이름[名]도 없[無]다네 하며 幻法이나 幻化이라 한다는 것(들)은≪§14.1/ 18.9≫ 名字가 없[無]다네 體相도 없[無]다네 하며 三界의 名字는 없[無]다네 善·惡·果報인 六道의 名字(도) 없[無]다네 하였다

白文/ 譯注 幻諦法 無佛出世前無名字無義名 幻法幻化無名字無體相無三界名字 無善惡果報六道名字 /"幻諦[前注.↖]의 法은 佛(陀)의 出世가 없[無]던 (以)前에 名字[名色: 精神과 肉體]는 없[無]으며 (敎)義의

名[心的 領域]도 없[無]느니라.幻法[幻相이란 法理]과 幻化[幻相과 化佛]는 名字[前注.ㄴ]도 없[無]으며 體相[本體의 外相]도 없[無]느니라.三界[欲界·色界·無色界:세 輪廻界]의 名字[前注.ㄴ]는 없[無]으며, 善惡의 果報[應報]인 六道[前注.ㄴ]의 名字[前注.ㄴ]도 없[無]느니라."

白文/ 日譯 「幻諦の法無く、佛の出世、前には名字もなく義名も無し、幻法と幻化は名字もなく、體相もなく、三界の名字も無く、善惡の果報六道の名字も無し。」

[35] <14:4~7>

原文/讀 大王下/*대왕하* 是ㅣ/*이* 故ᄆᆞᆫ/*젼ᄎᆞ로* 佛佛ㅣ/*불불이*[78] 於世十ㆍ/*누리희* 出現ᄒᆞ니下/*출현ᄒᆞ시하* 衆生ㄱ/*즁싱ᄋᆞᆯ* 爲人ᄒᆞ니ᄃᆞ/*위ᄒᆞ와ᄒᆞ시긔ᄃᆞ로* 故ㅅ/*고로*[79] 說ᄒᆞ샤/*니ᄅᆞ금* 三界ㅅ/*삼계여* 六道ㅅ ㅅᄉᆞᆫㄴ/*륙도여호읏* 名字ㄱ ㆍ/*명ᄌᆞᄅᆞᆯ* 作ᄉᆞ白ㅎㄱ ㄱ/*작ᄒᆞᄉᆞᆯ ᄇᆞ온ᄋᆞᆯ* 是ㄱ/*이*를 名ㅎ/*일홈아* 無量 名字ㅅ ㅅᄎᆞ ㄱㅅ/*무량 명ᄌᆞ여호린여* 空法人/*공법와* 四大法人/*ᄉᆞ대법와* 心法人/*심법와* 色法人ㆍ/*식법와* 如ㅣᄉᆞ ㄱㅣ ㅂᄀᆞ/*ᄀᆞᆮᄒᆞ다ᄒᆞᆫ이며*

直譯/讀 大王이시여! 이[是] 때문[故]으로 많은 부처들[佛佛]이 世上에 있어서[於] 出現하시여! 衆生을 爲함과 (그리)하시기(인)≪§53.9≫ 까닭 때문[故]으로 說(法)하여금 三界이나 六道이라 한다는 곳의≪§4.2≫ 名字를 作(行)하옵는 것을 이[是]를 일컬[名]어 (限)量 없[無]는 名字이라 하올≪§41.2≫ 것≪§42.1≫이라≪§19.5≫ 空法과 四大法과 心法과 色法과 같[如]다 하는 것이며

白文/ 譯注 大王 是故佛佛出現於世 爲衆生故 說作三界六道名字 是名無量名字 如空法四大法心法色法 /"大王이시여! 이[是] 때문[故]으로 많

78) 위 "佛佛"은 '諸佛之意', 곧 '많은 부처들'로 풀이한다. <『佛光大辭典』, 3:2627>

79) 위 "故ㅅ"의 토'ㅅ'를 'ᄉᆞ'의 약체'ㅅ'가 아닌 'ᄆᆞ'의 약체로도 보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脚注67에서 상론한 바 있다. 다시 밝히지만 이 "故ㅅ"는 先行한 토'ᄋᆞ/ᄃᆞ로'(까닭)가 반드시 나와(모두 4회.14:5, 15:8, 15:13 복, 15:14) '_ㄴ 까닭'이란 전제어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 '-때문으로'가 이어져 풀이되기 때문에 반드시 '_로'의 독음이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토'ᄆᆞ/호'의 '호'발음은 있을 수 없다고 하겠다.

은 부처[佛佛]들이 世(上)에[於] 出現하여 衆生을 爲함 때문[故]으로 說(法)하며, 三界[前注.ㅅ]와 六道[前注.ㅅ]의 名字[前注.ㅅ]를 作(成)한 것을 이[是]를 일컬어[名] (限)量 없[無]는 名字[前注.ㅅ]라 하느니라.空法[空無의 理法]과 네[四] 가지 (偉)大한 (修)法과 心法[精神的存在]과 色法[物質的 存在] 등과 같[如]은 것이니라."

白文/ 日譯 「大王よ、是の故に諸佛は世に出現して、衆生の爲の故に、說いて三界六道の名字を作し給ふ。是を無量の名字と名く。空法と四大法と心法と色法との如し。」

[36] <14:7~8>

原文/讀 相續 假法ㄱ/***상쇽 가법은*** 一ㆍ/***일*** 非ᄉᆞᆷ/***안디저*** 異ㆍ/***이*** 非ᄉᆞᆷᄉᆞᄂᆞㅣ/***안디저ᄒᆞ겨다*** 一ㅣㅣᄉᆞᄅᆞᄆᆞᄂᆞㄱ/***일이다ᄒᆞ고긔든*** 亦ᄉᆞㄱ/***도ᄒᆞᆫ*** 續ᄉᆞᄉᆞᆫㆍ/***쇽ᄒᆞ유*** 不ᄉᆞᆷ/***안디며*** 異ㅣㅣᄉᆞᄅᆞᄆᆞᄂᆞㄱ/***이이다ᄒᆞ고긔든*** 亦ᄉᆞㄱ/***도ᄒᆞᆫ*** 續ᄉᆞᄉᆞᆫㆍ/***쇽ᄒᆞ유*** 不ᄉᆞᆷㄱᄋᆞᄆᆞᄉᆞ/***안딘ᄃᆞ로여*** 一ㆍ/***일*** 非ᄉᆞᆷ/***안디며*** 異ㆍ/***이*** 非ᄉᆞᆷᄀᆞᄅᆞ/***안디거오*** 故ㄱ/***그랑거***[80] 名ᄆᆞ/***일홈아*** (相)續諦ㅅㅣᄂᆞᄎᆞㅣㅣᄀᆞ/***(상)쇽뎨여호리이뚀***[81]

直譯/讀 相續의 假法은 一이 아니[非]라네 異도 아니[非]라네 하였다 一이다 하고 (그)럴 것이면≪§30.6≫ 또[亦]한 (相)續한다는 것≪§51.5≫ 아니[不]며 異이다 하고 (그)럴 것이면 또[亦]한 相續한다는 것 아닌[不] 까닭이라≪§19.7≫ 一이 아니[非]며 異도 아니[非]었지라 그랑[故]게≪§61.1≫ 일컬[名]어 (相)續의 (眞)諦이라 하올 것≪§48.2≫ 이며≪§18.13 /27.8≫

白文/ 譯注 相續假法非一非異 一亦不續異亦不續非一非異故 名續諦 /

80) 위 "故ㄱ"는 '*그랑거←그랑게'로 독음한다. 현대어 호남 방언'그랑게'(그러므로)의 先代形이 아닌가 한다. 『金光.3』과 『瑜伽20』에서도 '故ㄱ'<金.14:1>, <瑜.25:5>가 나타난다. 이는 同軌로 보이는 '永ㄱ/*길거←길게'<華嚴14.3:11, 4:2>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위 '故ㄱ/*그랑거'의 추정은 구결공동연구회(1993.7.13.정문연)에서 김대식 교수의 조언에 의한 것이다. 이에 고마운 뜻을 표한다.

81) 위 "續諦ㅅㅣ—"의 '相續諦ㅅㅣ—'<高麗大藏經:1026.2段20行>에서 '相'자가 빠진 것이다. '相續諦'라야 맞는다.

"相續[相互連續]의 假法[假의 法]은 一[專一]이 아니[非]며 異[變化]도 아니[非]니라.一[專一]이면 또한[亦] (相)續되지 않[不]으며 異[變化]이면 또한[亦] (相)續되지 않[不]으므로 一[專一]이 아니[非]며 異[變化]도 아니[非]니라.(그런) 故로 일컬어[名] (相)續의 (眞)諦[究極의 眞理]라 하느니라."

白文/ 日譯 「相續の假法は、一にあらず異にあらず。一も亦續かず異も亦續かず。一にあらず異にあらざるが故に續諦と名く。」

[37] <14:8~10>

原文/讀 相待 假法ㄹ/***상덕 가법을*** 一切ᄉᆞᄂᆡ/***일체잇*** 名ᄒᆞ/***일홈아*** 相待ᄒᆞᄂᆞᆫ/***상덕여ᄒᆞ며*** 亦ᄂᆞᆫᄃᆡ/***도ᄒᆞᆫ*** 名ᄒᆞ/***일홈아*** 不定 相待ᄒᆞᄂᆞᆫᄃᆡᄒᆞᄂᆞᆫ/***부덩 상덕여호린야***[82] 五色等ᄂᆞᆫᄃᆡ/***오식돌ᄒᆞᆫ*** 法ㅅ/***법와*** 有無ㄴ/***유무ㅅ*** 一切等ᄂᆞᆫᄃᆡ/***일체돌ᄒᆞᆫ*** 法ㅅ/***법와*** 如ᄒᆞᄂᆞᆫᄃᆡᄒᆞᄀᆞᆫ/***ᄀᆞᆮᄒᆞ다ᄒᆞᆫ이며***

直譯/讀 相待의 假法을 一切(에)의 것≪§3.5≫ 일컬[名]어 相待이라 하며≪§18.17≫ 또[亦]한 일컬[名]어 定하지 않[不]은 相待이라 하올≪§41.2≫ 것이라≪§19.5≫ 五色 같[等]은 法과 有無의 一切 같[等]은 法과 같[如]다 하는 것이며

白文/ 譯注 相待假法一切名相待 亦名不定相待 如五色等法 有無一切等法 /"相待[相互 應待]의 假法[假想의 理法]은 一切를 일컬어[名] 相待[前注ㄴ]라 하며, 또한[亦] 일컬어[名] 定하지 않[不]은 相待[前注ㄴ]라 하며 五色[靑·黃·赤·白·黑:五感官의 對象] 따위[等]의 (理)法과 有無의 一切 따위[等]의 (理)法과 같[如]으니라."

白文/ 日譯 「相待の假法をば、一切相待と名け、亦不定相待と名く、五色等の法と有無一切等法との如し。」

---

82) 위 "不定相待ᄒᆞᄂᆞᆫᄃᆡᄒᆞᄂᆞᆫ"의 토'ᄂᆞᆫᄃᆡᄒᆞᄂᆞᆫ'을 '_호리ᄂᆞᆫ'이 아닌 '_호린'으로 새긴다. 예하여 "成佛 못ᄒᆞᆫ 젼ᄎᆞ로"<金剛諺43>에 따라 풀이는 '-을 것(인)-'으로 파악된다.

[38] <14:10~11>

原文/讀 一切法ㄱ/*일체법은* 皆ㄴ/*모딧* 緣ㅱ/*연으로* 成ㅅㄱㅣ/*성혼여* 假成衆生ㅣ/*가성 중싱여* 俱時ㄴ/*구시스* 因果ㅣ/*인과여* 異時ㄴ/*이시스* 因果ㅣ/*인과여* 三世ㄴ/*삼세스* 善惡ㅣㅅ수ㄱ/*선악여호유는* 一切ㄹㄴ/*일체잇* 幻化ㅐㅏㄱㅐㅁ/*환화이견이라* 是ㄷ/*이*를 幻諦ㄴ/*환톄스* 衆生ㅣㅅㅊㅐㅏㅣ/*중싱여호리이겨다*

直譯/讀 一切法은 모두[皆] (因)緣으로서 이루어[成]진 것이라≪§19.3≫ (虛)假로 이루어[成]진 衆生이나 俱時의 因果이나 異時의 因果이나 三世의 善惡이라 한다는 것(들)은≪§14.1≫ 一切(에)의 것≪§3.5≫ 幻化이었느니라 이[是]를 幻諦의 衆生이라 하올 것이었다≪§18.15≫

白文/ 譯注 一切法皆緣成假成衆生 俱時因果異時因果 三世善惡一切幻化 是幻諦衆生 /"一切法[一切 理象的 存在 全部]은 모두[皆] (因)緣으로 成(立)되며 (虛)假로 衆生을 이루[成]니라.俱時[同一時]의 因果[原因과 結果]나, 異時[相異時]의 因果나 三世[過去·現在·未來]의 善惡 등 一切는 幻化[幻像物]인 것이니라. 이[是]를 幻諦[幻像과 眞諦]의 衆生이라 하느니라."

白文/ 日譯 「一切の法は皆緣より成り、假りに衆生を成す。俱時の因果、異時の因果、三世の善惡は一切の幻化なり。是れ幻諦の衆生なり。」

[39] <14:11~13>

原文/讀 大王ㅜ/*대왕하* 若ㄴ/*마치스* 菩薩 上ㅜ/*보살 우희* 見ㄹㄷㅣ/*보오긔* 所ㅎㅣ/*바아* 如ㅣㅅㄱ/*곧ᄒᆞ다ᄒᆞᆫ* 衆生ㄱ/*중싱은* 幻化ㅐㅁ/*환화이라* 皆ㄴ/*모딧* 是ㅐㄱ/*이는*[83] 假誑ㅅㄱㅈ/*가광ᄒᆞᆫ디* 空中ㅎㄴ/*공듕앗* 花ㅣ/*곳* 如ㅣㅅㅏㄱㅐㅁ/*곧*

83) 위 "是ㅐㄱ/이는"은 '대명사(이)+주격조사(는)'으로 분석된다. 결국 '是 = 이'로서 '이'의 訓까지 읽도록 보여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읽으라'는 吐 따위, 이런 特異吐를 여기서는 편의상 '이'는 '示(보일 시)+讀(토 읽을 두)'로 해석하여 '示讀吐'(시두토)라 부르련다. 同軌로 '此ㅐ/이'<2:7, 3:8>, '斯ㅐ/이'<11:24>, '我ㅜ/우리'<2:21>, '如ᄒᆞᆫ/곧'<2:5, 3:19>, '/ᄇᆞ아ᄒᆞ롯'<3:13>, '是ㅐ

ᄒᆞ다ᄒᆞ견이라

直譯/讀 大王이시여! 만일[若] 菩薩(이) 위[上]에(서) 보[見]온 것(인)≪§53.10≫ 바[所](와) 같[如]다 한 衆生은 幻化이라 모두[皆] 이[是]는≪§84.1≫ 假誕한 것이≪§24.2≫ 空中의 꽃[花]](과) 같[如]다 하였는 것이라

白文/ 譯注 大王 若菩薩如上所見衆生幻化 皆是假誕如空中花 /"大王이시여! (萬)若 菩薩도 위[上]에서 본[見] 바[所]와 같[如]이 衆生은 幻化[幻像物]이니라.모두[皆] 이[是]는 假誕[假借의 誕惑]한 것이 空中의 꽃[花]과 같[如]은 것이니라."

白文/ 日譯 「大王よ、若し菩薩も上の所見の如く、衆生も幻化なり、皆是れ假誕なり、空中の華の如し。」

[40] <14:13~14>

原文/讀 十住菩薩ㅅ/***십듀보살와*** 諸ㄷㅋㄱ/***모ᄃᆞᆫ신*** 佛ㅅㄴㄷ/***부텨왓*** 五眼ㄱ/***오안도*** 幻諦ㄹㆍ/***환톄를*** 如ᄒᆞᆫ/***ᄀᆞᆮ*** 而ᄉᆞᆷ/***이로*** 見ㄴㅏㅌㄱㅣㄴㅏㅣ/***보시눈이겨다*** 菩薩ㅣ/***보살이*** 衆生ㄹㆍ/***즁싱ᄋᆞᆯ*** 化ㅅㄲ/***화ᄒᆞ과***[84] 此ㆍ/***이*** 爲若ㅣㅅㄴㅏㅣㅅㄴㅋㅜ/***ᄒᆞ기 ᄀᆞᆮᄒᆞ다ᄒᆞ겨다ᄒᆞ시하***

直譯/讀 十住의 菩薩과 모두[諸]이신 부처[佛]와의 五眼도 幻諦와 같이≪§83.5≫[如=這] 이[而]로 보[見]시는 중≪§54.2≫이었다≪§66.8≫ 菩薩이 衆生을(敎)化하기(를)≪§53.3≫ 이[此]렇게 함[爲]과 같[如]다 하였다 하시여!

白文/ 譯注 十住菩薩諸佛五眼 如幻諦而見 菩薩化衆生 爲若此 /"十住[眞諦位의 心的 安住處]의 菩薩과 모든[諸] 부처[佛]의 五眼[肉眼·天眼·慧眼·法眼·佛眼]은 幻諦[前注.ㅅ]와 같[如]이 보고[見]서 菩薩이 衆

ㄱ/이는'<14:12>, '以ㅣㅎ/사아'<3:4, 15:18> 따위가 더 있다.(졸고, 1995c: 189)

84) 위 "化ㅅㄲ"의 토'ㅅ'는 흘림체의 글씨이다. 토'ㄴ'로 봄은 잘못이다. 先行의 '菩薩'이 3인칭 주어이기 때문이다.(졸고, 1995c:171.No.244.목록)

生을 (變)化하는 것도 이[此]와 같[如]이 함[爲]이니라."

白文/ 日譯 「十住の菩薩(及び)諸佛の五眼は、幻諦の如くに見て、菩薩の衆生を化することも此のごとしと給へり。」

[41] <14:14~16>

原文/讀 此ㅣ/*이* 法ㄹ丶/*법을* 說ㄷᄉᆞᆫㄷㅣ/*니ᄅᆞ시읏* 時ㅓ/*긔희* 量ㅇ丶/*혜알흠* 無ㅂㄱ/*업슨* 天子ㅣ/*텬ᄌᆞ여* 及ㅅ/*밋기* 諸ㄱ/*모든* 大衆ㅣㄴᄉᆞ丶/*대즁여호유* 有ㅂㄴㄱㅣ/*잇견여* 伏忍ㄹ丶/*복인을* 得ㅌㅏㄲㅏ/*얻ᄂᆞ도이며* 空ㅣ/*공여* 無生ㅣㄴᄉᆞᆫㄷ/*무싱여호읏* 忍ㄹ丶/*인을* 者得ㅌㅏㄲㅏ/*얻ᄂᆞ도이며* 乃ㅣ/*ᄒᆞ아사* 至ㅣ/*니르리* 一地ㅣ/*일디여* 十地ㅣㄴᄉᆞᆫㄷ/*십디여호읏* 不可說ㄷ/*불가셰ㅅ* 德行ㄹㄴㄱㅌㅏㄲㅣㄴㅏㅣ/*덕힝을ᄒᆞᆫᄂᆞ도이겨다*[85]

直譯/讀 이[此] (佛)法을 (講)說하신다는 (적의) 때[時]에 (限)量 없[無]는 天子이나 및[及] 모든[諸] 大衆이라 한다는 (분들이) 있[有]었음이라 伏忍을 얻[得]는 이도 있으며 空(無)이나 無生이라 한다는 것의≪§4.2≫ 忍(辱)을 얻[得]는 이도 있으며 이에써[乃]≪§22.1≫ 이르[至]리 一地이나 十地이라 한다는 것의≪§4.2≫ 可히 說(明)할 수 없[不]는 德行을 하는 이도 있었다

白文/ 譯注 說此法時有無量天子及諸大衆 得伏忍者 得空無生忍 乃至一地十地不可說德行 /"이[此] (佛)法을 (講)說하는 때[時]에 (限)量 없[無]는 天子[國王]와 및[及] 모든[諸] 大衆들이 있[有]는데, 伏忍[煩惱 制伏의 位]을 얻[得]는 者도 있으며, 空(無)이나 無生(滅)의 忍(辱)을 얻[得]는 者도 있으며, 乃至 一地[同一의 境地]와 十地[前注.ㅅ] 등의 可히 說明할 수 없[無]는 德行[功德과 行法]을 얻[得]는 者도 있느니라."

---

85) 위 "德行ㄹㄴㄱㅌㅏㄲㅣㄴㅏㅣ"의 토는 'ㄹ+ㄴㄱ+ㅌㅏ+ㄲㅣㄴㅏㅣ'로 분석되어 곧 '_을·(얻)는·이도·있었다'로 풀이된다. 先行吐 "伏忍ㄹ·得ㅌㅏㄲㅏ"에서"_忍ㄹ·得ㅌㅏㄲㅏ"의 토 일부씩를 다시 한번 인용 반복한 현토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시 고려시대의 석독구결이란 15세기의 逐字直譯의 單一吐형식이 아닌 逐文意譯의 複合吐라는 독특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다. 필자는 이런 경우의 토를 '다시 반복해 거듭 쓴다'고 해서 '부용토'[復用吐]로 부르련다.

白文/ 日譯 「此法を說きたまふ時に諸の無量の天子及び諸の大衆ありて、伏忍を得たるものあり、(又は)空無生忍を得たるものあり、乃至一地十地不可說の德行を得たるものありき。」

仁王護國般若波羅蜜經 二諦品 第四[86]

[42] <14:18~20>

原文/讀 爾ㅌㅅㄱ/*이ᄉᆞᆫ* 時十/*기희* 波斯匿王ㄱ/*바사닉왕은* 言ㄴㄹ/*니르시긔* 第一義ㅌ/*뎨일의ᄉᆞ* 中ㅇ十/*듕아히* 世諦ㆍ/*셰뎨* 有ㅌㅣㅅㅇㅁㅎㅇ/*잇다ᄒᆞ고오유야*[87] 不ㅊㅣㅁㄱㅌㅣㅎㅇ/*안디이온ᄂᆞ아* 若ㅌ/*마ᄎᆞᆺ* 言ㄴㄹ/*니르시긔* 無ㅌㅣㅅㄴ ㅁㅎㄹ/*업다ᄒᆞ시오리긔ᄃᆞᆫ* 者智ㄱ/*디는* 二ㅣㅎㆍ/*이임* 應ㅌㅅㄱㆍ/*당다ᄉᆞᆫ* 不ㅊㅣㅁㄷㅁ/*안디이골며*[88] 若ㅌ/*마ᄎᆞᆺ*[89] 言ㄴㄹ/*니르시긔* 有ㅌㅣㅅㄴㅁㅎㄹ ㄱ/*잇다ᄒᆞ시고리긔ᄃᆞᆫ* 者智ㄱ/*디는* 一ㅣㅎㆍ/*일임* 應ㅌㅅㄱㆍ/*당다ᄉᆞᆫ* 不ㅊㅁㅣ/*안디오다* 一ㅣㅁ/*일이며* 二ㅣㅂㅌ/*이이ᄂᆞᆺ* 之義ㄱ/*의는* 其事 /*그 일* 云何ㅌㅅㅁㅂㅁ/*어ᄃᆞᆺᄒᆞ고ᄂᆞ오*

直譯/讀 이[爾]러한 때[時]에 波斯匿王은 말씀하[言]시기(를)≪§53.7≫ 第一義의 가운데[中]에 世諦가 있[有]다고 한다는 것이오?≪§75.2≫ 아니[不] 있다는 것이오? (萬)若 말씀하[言]시기(를)≪§53.7≫ 없[無]다 하시고 (그)럴 것이면≪§30.3≫ (悟)智는 二임은 (相)應한 (것) 아니[不]고 (그)럴 것이며 (萬)若 말씀하[言]시기(를)≪§53.7≫ 있[有]다 하시고 (그)럴 것이면≪§30.4≫ (悟)智는 一임은 (相)應한 (것) 아닌[不] 것이외다 一이며 二인 것의 뜻[義]은 그[其] 일[事]이 어찌[云何]

---

86) 『高麗大藏經』(p.1026.3段7行)에는 위 '經名'이 '仁王般若波羅蜜護國經'으로 나와 있다. 곧 '護國'자의 위치가 前後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87) 위 "有ㅌㅣㅅㅇㅁㅎㅇ"와 "不ㅊㅣㅁㄱㅌㅣㅎㅇ"는 이를 각각 풀이하면 '*있다고 하닝기아? '와 '*아니(不) 있닝기아? '정도의 아주 먼 어느 '先代形 판정의문법'의 하나가 아닌가 추정한다.(졸고, 1995c:187)

88) 위 "不ㅊㅣㅁㄷㅁ"는 '照ㅅㄴㅁㄷㅁ'<11:10>와는 同軌이다. '一이(하)고 (그)럴 것이며'로 해석되기 때문이다.(졸고, 1995c:179)

89) 위 "若ㅌ"은 '*마ᄎᆞᆺ→마치(若)'<類合下49a>의 새김에서 연유된, 곧 부사 '만약'<김민수:381>으로 파악된다.(졸고, 1995c:184)

되고 있는 것이오?≪§75.1≫

白文/ 譯注 爾時波斯匿王言 第一義中有世諦不 若言無者 智不應二 若言有者智不應一 一二之義其事云何/이[爾] 때[時]에 波斯匿王[범.Pasenajit: 舍衛國王.一名 月光]은 (佛陀께) 말씀[言]하기를"第一義[究極의 眞理] 가운데[中]에 世諦[世俗的 眞理]가 있다[有]는 것이오? 아니[不] 있다는 것이오? (萬)若 말씀[言] 하시기를 없[無]다고 하시면 (悟)智는 二[對立]에 (相)應하지 아니[不]하며 (萬)若 말씀하[言]시기를 있다[有]하시면 (悟)智는 一[專一]에 (相)應하지 아니[不]하니 一과 二의 뜻[義]이란 그[其] 일[事]이 어떠한[云何] 것인지요?"

白文/ 日譯 爾の時に波斯匿王言はく、「第一義の中に世諦ありや、不や。若し無しと言はゞ、智は應に(眞智俗智の)二なるべからず。若し有りと言はゞ、智は應に一なるべからず。一二の義その事いかん。」

[43] <14:20~21>

原文/讀 佛ㄱ/*부텨는* 大王ㅋㅏ/*대왕의히* 告ㄴㅍ/*고ᄒᆞ시과*[90] 汝ㄱ/*그듸는* 於過去ㄷ/*과거ㅅ* 七佛ㅏ/*칠불희* 已ㅣ/*이믜사* 一ㅣㅂㄷ/*일이ᄂᆞᆯ* 義ㅣ/*의여* 二ㅣㅂㄷ/*이이ᄂᆞᆯ* 義ㅣㅅㄴㄷㆍ/*의여호ᄃᆞᆯ* 問白ㅎㅏㄴㄱㅣㅁ/*묻ᄉᆞᆯ*ㅂ*아가신이라* 汝ㄱ/*그듸는* 今ㅅㄱ/*엳ᄌᆞ온* 聽ㅅㅍㆍ/*텽호긔* 無ㄷㅎ/*업스며* 我ㄱ/*나는* 今ㅅㄱ/*엳ᄌᆞ온* 說ㅅㅍㆍ/*설호긔* 無ㄷ白ㅎㅣ/*업ᄉᆞᆯ*ㅂ*오다*

直譯/讀 부처님[佛]은 大王에게 알려주[告]시기(를)≪§53.7≫ 그대[汝]는 過去의 七佛(인 때)에 있어서[於] 이미써[已]≪§22.3≫ 一인 것의 뜻[義]이나 二인 것의 뜻[義]이나 하는 것(들)을 물으[問]시옵아 계신 분이라 그대[汝]는 지금[今]은 듣[聽]은 것≪§53.1≫ 없[無]으며 나[我]는 지금[今]은 說(明)한 것≪§53.1≫ 없[無]사옵니다

90) 위 "告ㄴㅍ"를 '니ᄅᆞ시긔'로 샛길 수 있으나, 이제까지 '言', '說', '謂'··따위의 '니ᄅᆞ시기'와 뜻을 가려서 여기서는 '알려준다'는 原義대로 '고ᄒᆞ시긔'로 새긴다.

白文/ 譯注 佛告大王 汝於過去七佛 已問一義二義 汝今無聽我今無說/佛(陀)은 大王에게 알리[告]시기를"그대[汝]는 過去에서[於] 七佛[佛陀以前의 六佛: 毘婆尸佛· 尸棄佛· 毘舍浮佛· 拘留孫佛·拘那牟尼佛·迦葉佛+釋迦牟尼]인 때에 이미[已] 一의 뜻[義]과 二의 뜻[義]을 물었[問]는데 그대[汝]는 지금[今] 들은[聽] 바 없[無]고, 나[我]는 지금[今] 說(明)한 바 없[無]느니라."

白文/ 日譯 佛大王に告げてのたまはく、「汝は過去七佛(の時)に於いて、已に一義二義を問ひき。汝も今聽くことなく、我も今說くことなし、」

[44] <14:21~23>

原文/讀 聽ノ尸丶/*텽호긔* 無ヒ分/*업스며* 說ノ尸丶/*설호긔* 無ヒ기の乙/*업슨* 돌 卽ㄹ/*바로* 爲一ㅣヒヒ/*위일이* 義ㅣソ分/*의여ᄒᆞ며* 二ㅣヒヒ/*이이* 義ㅣノ手기の灬/*의여호린ᄃᆞ로* 故ノㅣ/*고로여* 諦聽 諦聽分/*뎨텽 뎨텽며* 善分/*이드며* 之乙丶/*이를* 思ソ寺/*ᄉᆞᄒᆞ져* 念ソ寺ソ分/*념ᄒᆞ져ᄒᆞ며* 法乙丶/*법을* 如ㅌ/*ᄀᆞᆮ* 修行ソナ彡/*슈힝ᄒᆞ겨아* 七佛ヒ/*칠불ㅅ* 偈ㅣ/*게이* 是丶/*이* 如ㅣソナㅣ/*ᄀᆞᆮᄒᆞ다ᄒᆞ겨다*

直譯/讀 듣[聽]은 것≪§53.1≫ 없[無]으며 說(明)한 것≪§53.1≫ 없[無]는 것(들)을 바로[卽] (이것으로) 하여[爲]금 一인 것의 뜻[義]이라 하며 二인 것의 뜻[義]이라 하을 것인≪§42.1≫ 까닭≪§18.13≫ 때문[故]이라≪§19.1≫ 자세히[諦] 듣고[聽] 자세히[諦] 들으[聽]며 잘[善] 이[之]를 思惟하게≪§78.1≫ 念佛하게 (그리)하며 (佛)法과 같이≪§83.5≫[如 = 這] 修行하였어 七佛의 偈(頌)이 이[是]와 같[如]다 하였다

白文/ 譯注 無聽無說 卽爲一義二義故 諦聽諦聽善思念之 如法修行七佛偈如是 /"들은[聽]것 없[無]으며 說(明)한 것 없[無]음은 바로[卽] 一[專一]의 뜻[義]이며, 二[對立]의 뜻[義]인 때문[故]이라.자세히[諦] 듣[聽]고 자세히[諦] 들으[聽]며, 잘[善] 이[之]를 思念[思慮]하여 (佛)法과 같[如]이 修行하게 七佛[前注.↖]의 偈(頌)[佛敎 稱頌의 漢詩]도 이[是]와 같[如]으니라."

白文/ 日譯 「聽くことなく說くことなきを卽ち一義二義とするが故に、

諦かに聽き諦かに聽きて、善く之を思念し、法の如くに修行せよ。七佛の偈も是の如し。」

[45] <14:24~25>

原文/讀 相ㆍ/*샹* 無ㅌㄱㅂㅌ/*업슨ᄂᆞᆫ* 第一義ㄱ/*뎨일의는* 自ㆍ/*ᄌᆞ*[91] 無ㅌㅎ/*업ᄉᆞ저* 他作ㆍ/*타쟉* 無ㅌㅎㄴᄀᆞ/*업ᄉᆞ저ᄒᆞ며* 因緣ㅠ/*인연으로* 本ㅠㅅ/*본ᄃᆡ로ᄀᆞᆫ*[92] 自ㄹㅠ/*스싀로* 有ㄴㄱㅂㄲ/*유ᄒᆞᆫᄂᆞ도* 自ㆍ/*ᄌᆞ* 無ㅌㅎ/*업ᄉᆞ저* 他作ㆍ/*타쟉* 無ㅌㅎㄴᄀᆞ/*업ᄉᆞ저ᄒᆞ며*

直譯/讀 (形)相 없[無]는 것의 第一義는 自(作)이 없[無]다네 他作도 없[無]다네 하며 因緣으로서 본디[本]부터 自(體)의로서≪§9.2≫ 있다[有] 하는 것도 自(作)은 없[無]다네 他作도 없[無]다네 하며

白文/ 譯注 無相第一義 無自無他作 因緣本自有 無自無他作 /"無相[無의 形相]의 第一義[前注ㆍ]는 自(作)[從自而作]이 없[無]으며 他作[從他而作]도 없[無]느니라. 因緣은 본디[本]부터 스스로[自] 有[存在]이니, 自(作)는 없[無]으며 他作도 없[無]느니라."

白文/ 日譯 「無相の第一義は、自も無く他作も無し。因緣は、本より自ら有にして、自も無く他作も無し。」

[46] <14:25~15:2>

原文/讀 法性ㄱ/*법성은* 本ㅠㅅ/*본ᄃᆡ로기* 無ㄴㄱ/*무ᄒᆞᆫ* 性ㅣㅠ/*셩이라* 第一義ㅣㅎ/*뎨일의이저*[93] 空ㅣㅎ/*공이저* 如ㅣㅎㄴᄀᆞ/*여이저ᄒᆞ며* 諸ㄹ/*모ᄃᆞᆫ의* 有ㅌㅣㄱ/*이시ᄉᆞ인* 本有ㄴㅂㅌ/*본유ᄒᆞᆫᄂᆞᆫ* 法ㄱ/*법은* 三假ㅣ/*삼가이* 集ㄴㄱ ㅇㅠㅅㅈ/*집*

91) 위 "自"자는 訓讀 '스싀로'가 아닌 후행의 他作에 대응하므로 音讀 'ᄌᆞ'가 되야 문맥에 맞는다고 본다. 이하도 같다.

92) 위 "本ㅠㅅ"는 '*본ᄃᆡ로기'로 독음하고 後代의 축약형 '본ᄃᆡ록', 곧 '본디부터'<유창돈:389>로 해석된다.(졸고, 1995c:185.注8))

93) 위 『欄外』의 加筆 부분: "第一義ㅠㄴㅁㄱ"은 '第一義[眞諦]로서 하건만'<14:25.난외>로서 해석된다.

ᄒᆞᆫᄃᆞ로ᄒᆞ아 假有ᄂᆞᆫᄀᆞᄅᆡᄉᆞᆷ/***가유ᄒᆞᆫ견이며*** 無ᄀᆞᆷ/***무도*** 無ᄂᆞᆫᄀᆞᆺᄒᆞ/***무ᄒᆞᆫ디사*** 諦實ᄂᆞᆫᄀᆞᄐᆞᆫᄀᆞᆺ/***톄실ᄒᆞᆫᄂᆞᆫ*** 無ᄅᆡᄇᆞᆨᄀᆞᄅᆡᄆᆞᆷ/***무이ᄂᆞᆫ이라*** 寂滅ᄅᆡᄒᆞᆷ/***젹멸이져*** 第一空ᄅᆡᄒᆞᆷᄂᆞᆺᄉᆞᆷ/***뎨일공이져ᄒᆞ며***

直譯/讀 法性은 본디[本]부터 (空)無한 (本)性이라 第一義이네 空(無)이네 (眞)如이네 하며 모두[諸]의 (所)有인 本有하는 것의 (佛)法은 三假이 集(成)한 까닭으로 하여 假有하였던 것이며 (空)無도 無(有)한 것이라야 諦實한 것의 (全)無인 것이라 寂滅이네 第一(義) 空이네 하며

白文/ 譯注 法性本無性 第一義空如 諸有本有法 三假集假有 無無諦實無 寂滅第一空/"法性[萬有의 本體]은 본디[本]부터 無性[無自己存在性]이니라. 第一義[前注ㅅ]도 空如[空無와 眞如]이니라. 모든[諸] 有[存在]는 본디[本]부터 有法[存在者]으로서 三假[法假·受假·名假]의 集[苦惱集成의 힘]은 假有[自然的 存在]이니라.(空)無와 無(有)와의 (眞)諦는 實로 (全)無인것이니라.寂滅[靜寂:涅槃의 境地]하여 第一空[究極의 眞理]이니,"

白文/ 日譯 「法性は本より無性なり。第一義も空如なり。諸有は本より有法にして、三假の集は假有なり。無と無との諦は實に無なり。寂滅にして第一空なり。」

[47] <15:2~4>

原文/讀 諸ᄀᆞ/***모ᄃᆞᆫ*** 法ᄀᆞ/***법은*** 因緣ᄆᆞ/***인연으로*** 有ᄂᆞᆷᄂᆞᄆᆞᄀᆞ/***유ᄒᆞ며ᄒᆞᆫ*** 有ㅅ/***유와*** 無ㅅᄂᆡᆨ/***무왓*** 義ᄅᆡ/***듣이*** 是ᄅᆡ丶/***이*** 如ㅣᄂᆞᄂᆞㅣ/***ᄀᆞᆮᄒᆞ다ᄒᆞ겨다*** 有ㅅ/***유와*** 無ㅅᄀᆞ/***무왇*** 本ᄆᆞㅅᄂᆞ/***본디로기*** 自ᄒᆞᄋᆞ/***스싀로***[94] 二ᄅᆡᄀᆞᆺ/***둘ᄒᆞ인디*** 譬のᄀᆞ/***가줄비ᄃᆞᆫ*** 牛ᄒᆞ/***쇼의*** 二角丶/***두 블*** 若ㅣᄂᆞᆷ/***ᄀᆞᆮᄒᆞ다ᄒᆞ며*** 照解ᄀᆞ十/***죠히아히*** 無二ノᄀᆞのㄴ丶/***무이혼ᄃᆞᆯ*** 見ㅏᄀᆞᄅᆡᄆᆞ/***보ᄂᆞᆫ이라*** 二諦ᄀᆞ/***이톄는*** 常ᄅᆡ/***덛덛이*** 卽ᄂᆞᆫᄀᆞᄐᆞ丶/***즉ᄒᆞᆫᄂᆞ***[95] 不ᄉᆞᆺᄅᆡᄂᆞᆫᄀᆞᄅᆡᄉᆞᆷ/***안디이견이며***

---

94) 위 "自ᄒᆞᄋᆞ"는 앞 [45]에서 '本ᄆᆞㅅ 自ᄒᆞᄆᆞ'<14:24>가 보이므로 같은 문맥으로 파악되어, 여기 '自ᄒᆞ'에선 토'ᄆᆞ'가 누락된 것으로 본다.

95) 위 "卽ᄂᆞᆫᄀᆞᄐᆞ"의 토'ᄐᆞ/ᄂᆞ'는 동명사 어미이다. 이는 '爲飛是/ᄒᆞᄂᆞ이'의 '飛

直譯/讀 모든[諸] (佛)法은 因緣으로서 있다[有] 하며 (그리)하건만 (假)有와 (空)無와의 뜻[義]은 이[是]와 같[如]다 하였다 (假)有와 (空)無와는 본디[本]부터 스스로[自]의 二인 것이≪§24.1≫ 비유하[譬]면 소[牛]의 두[二] 뿔[角]과 같[若]다 하며 照(見) (理)解함에 無二한 것(들)을 보[見]는 중≪§54.1≫ 이라≪§70.2≫ 二諦는 (恒)常 卽한 것≪§47.1≫ 아니[不]었던 것이며

白文/ 譯注 諸法因緣有 有無義如是 有無本自二 譬若牛二角 照解見無二 二諦常不卽 /"모든[諸] (佛)法은 因緣의 有[存在]이니라.有無[存在와 非存在]의 뜻[義]이란 이[是]와 같[如]으니라.有[存在]와 (空)無는 본디[本]부터 스스로[自] 二[對立]인 것이니, 비유[譬喩]하면 소[牛]의 두 뿔[二角]과 같[如]아 照(見) (理)解함에 無二[無對立]를 보[見]는 듯하나, 二諦[眞諦와 俗諦]는 (恒)常 卽[不二·不離]한 것 아닌[不] 것이니라."

白文/ 日譯 「諸法は因緣の有なり。有無の義は是の如し。有と無とは本より自ら二なり譬へば牛の二角の如し。照解すれば無二なりと見るも、二諦は常に不卽せず。」

[48] <15:4~5>

原文/讀 解ノㄱㅂㄴ/*히혼ᄂᆞ* 心ㅋㅓ/*ᄆᆞᅀᆞᆷ아히* 二丶/*이* 不矢ㄱのㄹ丶/*안딘ᄃᆞᆯ* 見トㄱㅐㅠ/*보ᄂᆞᆫ이라* 二ㄹ丶/*이를* 求ノㄱㅅ/*구혼ᄃᆡ* 得ㅋㄹㅎ丶/*얻ᄂᆞᆷ*[96] 可ㅂノㄱ丶/*어루ᄉᆞ혼* 不矢ㅎ/*안디며* 謂ノㅎ丶/*위호유* 非矢ㅐㅣ/*안디이다* 二諦ㅐ/*이뎨이* 一ㅐㅣノ尸丁/*일이다ᄒᆞ긔뎡* 二丶/*이* 非矢ㄱㅐ尸の기/*안딘이긔ᄃᆞᆫ* 何ㅂㅈ/*어듸ᄉᆞ여*[97] 得ㄹㅎ丶/*얻ᄂᆞᆷ* 可ㅂノチ尸ロノチㄱのᄆㅈ/*어루ᄉᆞᄒᆞ리긔고호린ᄃᆞ로여*

(ㅂ/ㄴ)'와 同軌이다.(졸고, 1987:38)

96) 위 "得ㅋㄹㅎ丶"과 함께 『欄外』의 加筆 부분:"不矢ㄱㅈ 可ㅂノㄱ丶 得ㅋㄹㅎ丶"<15:4.난외>는 '얻으(得)옴은 可(能)한 (것) 아닌(不) 것이라'로 해석된다.

97) 위 "何ㅂㅈ"는 '*어듸ᄉᆞ여'로 추정된다. '어떻게여!'의 뜻으로 풀이한다. 여기 끝의 토 'ㅈ/_여'는 이제까지 '열거/접속', '비교' 기능의 조사와는 별개의 取音吐이다. 단지 '여'의 音만 표기하기 위한 표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번 더 "云何ㅂㅈ"<15:21>가 나타난다.

直譯/讀 解(脫)한 것의 마음[心]에 二 아닌[不] 것(들)을 보[見]는 중이라≪§70.2≫ 二를 求하되 얻으[得]옴 可(能)한 (것) 아니[不]며 (그리) 말[謂]한다는 것(은)≪§51.1≫ 아님[非]이다 二諦가 一이다 하는 것이구나!≪§80.2≫ (그러나) 二가 아닌[非] 것이면≪§30.2≫ 어찌[何]어 얻으[得]옴 可(能)할 것인고≪§26.7≫ (그리)하올 것인 가닭이라≪§19.9≫

白文/ 譯注 解心見不二 求二不可得 非謂二諦一 非二何可得 /"解(脫)한 마음[心]은 二[對立]가 아님[不]을 보느[見]니라.二[對立]를 求하되 (認)得이 可하지 아니[不]함이라.二諦[眞諦와 俗諦]가 一[專一]이다(고) 말함[謂]은 아님[非]이다. 二[對立]가 아님[非]을 어찌어[何] (認)得함이 可할 것인가?"

白文/ 日譯 「解心は不二なりと見る、二を求むるに不可得なり。二諦は一なりと謂ふにあらず、非二も何ぞ得べけむや。」

[49] <15:5~6>

原文/讀 於解ㅋ十/*허아히* 常ㅂ/*덛덛이* 自Ø〻/*스싀로*[98] 一ㅂㅁ/*일이며* 於諦ㅋ十/*뎨아히* 常ㅂ/*덛덛이* 自ㅎ〻/*스싀로* 二ㅂㄱㅂㅋㅊㅣㅅㅋ/*이인이앗다ᄒᆞ아* 此ㅂ/*이* 無二ㅅㄱのㄱ丶/*무이ᄒᆞᆫ*ᄃᆞᆯ 通達ㅅㅋㅎㄷㅋㄱ乙/*통달ᄒᆞ아기신*을 眞ㅎ/*즘* 第一義ㅋ十丶/*뎨일의아히* 入ㅅㅊㅎㄷㅋㅂㅅノ千ナㅣ/*입ᄒᆞ거기신이여호리겨다*

直譯/讀 解(脫)에 있어서[於]는 (恒)常 스스로[自] 一이며 (眞)諦에 있어서[於]는 (恒)常 스스로 [自] 二인 (것)이었다 하여 이[此] 無二한 것(들)을 通達하여 계신 곳을 참[眞](으로) 第一義에 들어[入]가 계신 분이라 하올 것이었다

白文/ 譯注 於解常自一 於諦常自二 通達此無二 眞入第一義 /"解(脫)함에 있어서[於]는 (恒)常 스스로[自] 一[專一]이며, (眞)諦에 있어서[於]는 (恒)常 스스로[自] 二[對立]이니라.이[此] 無二[無對立]에 通達[貫徹]하는 것을 眞(實)로 第一義[前注ㅅ]에 들어[入]가는 것이니라."

98) 위 "自Ø〻"는 앞 [45]의 '自ㅎ〻' 및 [47]의 '自ㅎØ'와 함께 同軌로 보아, 토 'ㅎ'의 누락으로 본다.

白文/ 日譯 「解に於いては常に自ら一にして、諦に於いては常に自ら二なり。此の無二に通達すれば、眞に第一義に入る。」

[50] <15:7~8>

原文/讀 世諦ㄱ/*세톄는* 幻化ᄭ/*환화으로* 起ㅅㅁㄱ/*긔ᄒᆞ곤*[99] 譬のㄱ/*가줄비ᄃᆞᆫ* 虛空ㅌ/*허공ㅅ* 花ㆍ/*곳* 如ㅣㅅ가ㅅㄱㅣㆍ/*ᄀᆞᆮᄒᆞ다ᄒᆞ며ᄒᆞᆫ여* 影ㆍ/*그르메여* 三ᄉᆞㅌ/*세렷*[100] 手ㅐ/*손이*[101] 無ㅅㄱㅜㅈㆍ/*무혼덩호유* 如ㅣㅅ가ㅅㄱㅣㆍ/*ᄀᆞᆮᄒᆞ다ᄒᆞ며ᄒᆞᆫ여* 因緣ᄭ/*인연으로* 故ㅅ/*고로* 誑有ㅅㄴㄱㅐㅎ/*광유ᄒᆞ건이며*

直譯/讀 世諦는 幻化로서 (緣)起하건만 비유하[譬]면 虛空의 꽃[花](과) 같[如]다 하며 (사람) 그림자[影]에 세[三] 방향의≪§3.6≫ 손[手]이≪§20.1≫ (全)無함이구나! ≪§80.1≫ (그리)하다는 것(과)≪§51.4≫ 같[如]다 하며 (그리)함이라 ≪§19.4≫ 因緣으로서 그러므[故]로 속임수[誑]가 있[有]었던 것이며

白文/ 譯注 世諦幻化起 譬如虛空花 如影三手無 因緣故誑有 /"世諦[世俗的 眞理]는 幻化[幻物과 化佛]로부터 (生)起하느니라. 譬(喩)하면 虛空의 꽃[花]과 같[如]다 하며, (人)影에 셋[三]의 손[手]이 (全)無함과 같[如]아, 因緣 때문[故]으로 誑有[誑惑의 假有]인 것이니라.

白文/ 日譯 「世諦は幻化より起る、譬へば虛空の華の如し。影と三手との無なるが如く。因緣の故に誑有なり。」

---

99) 위 "起ㅅㅁㄱ"은 訓讀 '니ᄅᆞᄒᆞ곤'이 아닌, 音讀 '긔ᄒᆞ곤'으로 새긴다. 문맥으로 起는 '緣起'의 뜻이기 때문이다.

100) 위 "三ᄉᆞㅌ"의 토'ᄉᆞㅌ'를 '*렷'으로 추정한다. 이를 '*세렷'(3 方向의 뜻)으로 독음(및 풀이)한다. 'ᄉᆞ'는 '劣'자의 초서체로 보기 때문이다.(졸고, 1995c:205.文尾 부록 참조) 이는 『書釋』(최범훈.1982)와 그 影印 '복사본'에서 '四門'의 夾注"四ᄉᆞᄆᆞ門し"과 "四ᄉᆞᄆᆞ目し"로 나왔고, '*_렷'(序數詞)까지 뒷받침하고 있어 이를 立證한다. 한편 李箕永(1982:172)은 이를 '세째 손', 곧 'ᄉᆞㅌ'를 '_째'(序數)로 본 바 있다.

101) 위 "影ㆍ一手ㅐ"의 토'ㆍ‥ㅐ'를 '_에‥_이'로 풀이한 것은 문맥으로 읽어 보아, 전자'ㆍ'를 이제까지의 '_이나'인 나열 기능조사가 아닌 비교 기능조사로 보았기 때문이다.

[51] <15:8~9>

原文/讀 幻化ㅣ/*환화이* 幻化ㄴ/*환화ㅅ* 衆生ㄱ/*중싱ᄋᆞᆯ* 見ㅏㄷ/*보누오* 名ㅎ/*일홈아* 幻諦ㅣㄴᄀᆞ티ㅣ가/*환뎨여호리이며*[102] 幻師ㅣ/*환ᄉᆞ이* 幻法ㄱ/*환법을* 見ᄒᆞ야ㄷ시ㅎ/*보기딧ᄒᆞ아*

直譯/讀 幻化이 幻化의 衆生을 보는[見] 중임≪§34.1≫ 일컬[名]어 幻諦이라 하올 것이며.≪§18.14≫ 幻師가 幻法을 보[見]는 듯이 하여≪§29.7≫

白文/ 譯注 幻化見幻化 衆生名幻諦 幻師見幻法 /"幻化[前注.ㄴ]가 幻化를 보[見]는 衆生을 幻諦[前注.ㄴ]라 일컫[名]느니라.幻(術)師가 幻法[幻像의 理法]을 보이[見]건만

白文/ 日譯 「幻化は幻化を見る、衆生を幻諦と名く。幻師は幻法を見れとも、」

[52] <15:9~10>

原文/讀 諦實ㅭᄉᆞᄅᆞᄀᆞ/*뎨실으로ᄒᆞ곤* 卽ㄷ/*바로* 皆ㄷ/*모ᄃᆞᆫ* 無ᄉᆞᄀᆞㅣㅎᄃᆡᄉᆞᄆᆞㄷ/*무ᄒᆞᆫ이앗다ᄒᆞ긔ᄃᆞᆯ* 名ㅎ/*일홈아* 爲諸佛ㄷ/*위졔불ㅅ* 觀ㅣㄴᄀᆞ티ㅣ가/*관여호리이며* 菩薩ㄷ/*보살ㅅ* 觀ㄲ/*관도* 亦ᄉᆞᄀᆞ/*도ᄒᆞᆫ* 然ㄷᄉᆞᆫᄂᆞㅣ/*그리ᄉᆞᄒᆞ겨다*

直譯/讀 諦實로서 하건만 바로[卽] 모두[皆]의 (空)無한 것이었다(고) 한 것(들)을≪§37.6≫ 일컬[名]어 諸佛의 觀(察)로 삼은[爲] (것)이라 하올 것이며 菩薩의 觀(察)도 또[亦]한 그러[然] 하였다

白文/ 譯注 諦實卽皆無 名爲諸佛觀 菩薩觀亦然/"諦實[眞諦의 眞實]은 곧[卽] 모두[皆] (空)無한 것이니라 일컬[名]어 諸佛의 觀(察)로 삼음[爲]이니, (즉) 菩薩의 觀(察)도 또한[亦] 그러한[然] 것이니라."

---

102) 위 『欄外』의 加筆 부분: "幻化ㅎᄉᆞᆫᄃᆞ 見ㅏㄷ 幻化ㄱ 衆生ㅋᄂᆞᄀᆞᄉᆞᆫㅅ 名ㅎ 幻諦ㅣㄴᄀᆞ티ㅣ가"<15:8.난외>의 풀이는 "幻化에서 하여 幻化를 보[見]는 중임 衆生의 것들인가? 일컬[名]어 幻諦이라 하올 것이며"로 해석된다.

白文/ 日譯 「諦實は卽ち皆無なり。(これを)名けて諸佛の觀と爲す、菩薩の觀も亦た然かなり。」

[53] <15:11~12>

原文/讀 大王ㅏ/***대왕하*** 菩薩摩訶薩ㄱ/***보살마하살은*** 於第一義ㄷ/***데일의ㅅ*** 中ㅇㅓㅇ/***듕아히ᄒᆞ아*** 常ㅂ/***덛덛이*** 二諦ㄹ、/***이뎨를*** 照ㅅㅇ/***죠ᄒᆞ아*** 衆生ㄹ、/***즁싱ᄋᆞᆯ*** 化ㅅㅗㅏㄱㅣ/***화ᄒᆞ시눈여*** 佛ㅣ/***부텨여*** 及ㅅ/***밋기*** 衆生ㅣㅅᄉㄱ/***즁싱여*** ***호유는*** 一ㅂㅠ/***일이라*** 而ㅠ/***이로*** 二、/***이*** 無ㄷㅏㅣ/***업ᄉᆞ겨다***

直譯/讀 大王이시여! 菩薩摩訶薩은 第一義의 中에서[於] 하여 (恒)常 二諦를 照(解)하여 衆生을 (敎)化하시는 중≪§54, 3≫이라≪§19.14≫ 부처[佛]이나 및[及] 衆生이라 한다는 분(들)은≪§14.1 /18.9≫ 一이라 이[而]로 二(는) 없[無]었다

白文/ 譯注 大王 菩薩摩訶薩於第一義中 常照二諦化衆生 佛及衆生一而無二 /"大王이시여! 菩薩摩訶薩[偉大한菩薩]은 第一義[究極의 眞理] 中에서[於] (恒)常 二諦[眞諦와 俗諦]를 照(解)하여 衆生을 (敎)化하느니라. 부처[佛]와 및[及] 衆生들은 一[專一]이며 그리하여[而] 二[對立]는 없[無]느니라."

白文/ 日譯 「大王よ、菩薩摩訶薩は、第一義の中に於いて常に二諦を照して衆生を(敎)化す。佛と及び衆生とは一にして而も二無し。」

[54] <15:12~13>

原文/讀 何以故ㅇㄱ/***하이고ᄃᆞᆫ*** 衆生空ㅅㄱㅇㄹ、/***즁싱공ᄒᆞᆫᄃᆞᆯ*** 以ㅣㅇㅠ/***사ᄃᆞ로*** 故ㅅ/***고로*** 得ㅎ/***시리금*** 菩提空ㄹ、/***보리공ᄋᆞᆯ***[103] 置ㅅㅎ/***티ᄒᆞ며*** 菩提空ㅅㄱㅇㄹ、/***보리공ᄒᆞᆫᄃᆞᆯ*** 以ㅣㅇㅠ/***사ᄃᆞ로*** 故ㅅ/***고로*** 得ㅎ/***시리금*** 衆生空ㄹ、/***즁싱공***

103) 위 『欄外』의 加筆 부분: "提空ㅋㅓ/아히"<15:13.난외>는 '提空에서'로 풀이된다. 原文 "菩提空ㄹ、"의 토 'ㄹ'을 토 'ㅋㅓ'로 바꿔야 옳다고 보아, 欄上에 加筆한 것으로 생각된다. 곧 '置'자가 오므로 對格'ㄹ'보다 處格'ㅋㅓ'라야 맞기 때문이다.

ᄋᆞᆯ 置ㅅᄀᆞᆫᄃᆡ ᄒᆞᄆᆞᆫ/*ᄃᆡᄒᆞ며호린ᄃᆞ로여*

直譯/讀 왜냐하[何以故]면 衆生空한 것(들)을 갖[以]는 까닭 때문[故]으로 能하게[得]끔 菩提의 空(無)을 두[置]며 菩提의 空(無)한 것(들)을 갖[以]는 까닭 때문[故]으로 能하게[得]끔 衆生空을 두[置]며 (그리)하올 것인 까닭이라≪§19.8≫

白文/ 譯注 何以故 以衆生空故得置菩提空 以菩提空故得置衆生空 /"왜냐하면[何以故] 衆生空[無我]을 갖[以]는 때문[故]으로 菩提[佛陀正覺의 智]의 空(無)에 둠[置]]을 얻[得]고 菩提[前注ㅅ]의 空(無)를 갖[以]는 때문[故]으로 衆生空[無我]에 둠[置]을 얻[得]는 것이니라."

白文/ 日譯 「何となれば衆生空なるを以ての故に、菩提の空に置くことを得、菩提空なるを以ての故に、衆生の空に置くことを得ればなり。」

[55] <15:13~15>

原文/讀 一切 法空ㅅᄀᆞᆫ ᄋᆞᆫᄃᆡ/*일체 법공ᄒᆞᆫᄃᆞᆯ* 以ᄒᆞᄆᆞᆫᄃᆡ/*사ᄃᆞ로*[104] 故ㅣ/*고로* 空ㄲ/*공도* 空ㅅᄂᆞᆡ/*공ᄒᆞ겨다* 何以故ᄋᆞᆫᄀᆞ/*하이고ᄃᆞᆫ* 般若ㄱ/*반야ᄂᆞᆫ* 無相ㅅ/*무샹ᄒᆞ며* 二諦ㄱ/*이뎨는* 虛ㅣᄒᆞᆷ/*허이저* 空ㅣᄒᆞᆷㅅ/*공이저ᄒᆞ며ᄒᆞᆫᄃᆞ로여* 般若ㅣ/*반야이* 空ㅅᄀᆞᆷ/*공ᄒᆞᆫᄃᆡ* 於無明ㄷᆡ/*무명을* 從ㄷᆡ/*조ᄎᆞᆺ*[105] 乃ᄒᆞ/*ᄒᆞ아사* 薩婆若ᄒᆞㅏㅅ/*살바야아히* 至ㅣㅅᄂᆞᆡ/*리르리ᄒᆞ겨다*

直譯/讀 一切 法空한 것(들)을 갖[以]는 까닭 때문[故]으로 空(無)도 空(無)한 것이었다 왜냐하[何以故]면 般若는 無相하며 二諦는 虛(無)이네 空(無)이네 하며 (그러)한 까닭이라≪§19.10≫ 般若는 空(無)하되 無明을 (그)에서[於] 좇[從]아 이에써[乃]≪§22.1≫ 薩婆若에 이르[至]게 하였다

白文/ 譯注 以一切法空故空空 何以故 般若無相 二諦虛空般若空 從於無

---

104) 위 "以ᄒᆞᆫᄃᆡ"는 '以'자가 '뼈이'<光千14a/石千14a>이므로 당시는 그 訓 '뼈'의 硬音을 배제한 대립모음 '사'를 썼을 것으로 想定, 해독한다.

105) 위 "從ㄷᆡ 於無明ㄷᆡ"은 『高麗大藏經』에선 '從無明'<p.1027.1段 9行>로서 '於'자가 없다.

明乃至薩婆若 /"一切 法空[法無我]을 갖[以]는 때문[故]으로 空(無)도 空(無)한 것이니라.왜냐하면[何以故] 般若[開悟의 智]는 無(形)相으로서 二諦[眞諦와 俗諦]는 虛(無)이라 空(無)이라 般若[前注ㄴ]도 空(無)이므로 無明[原初的 煩惱]에서[於]부터 좇[從]아 이에[乃] 薩婆若[범.sabbannu:全智者]에까지 이르[至]게 함이니라."

白文/ 日譯 「一切の法は空なるを以ての故に、空も(亦た)空なり。何となれば般若は無相にして二諦は虛空なり、般若空なれば、無明より乃至薩婆若にいたるまで、」

[56] <15:15~18>

原文/讀 自相ㆍ/*ᄌᆞ샹* 無ᄒᆞᆯ/*업ᄉᆞ져* 他相ㆍ/*타샹* 無ᄒᆞᆯᄊᆞᆫᄀᆞ ᄋᆞᆷ/*업ᄉᆞ져ᄒᆞᆫ ᄃᆞ로* 故ㅣㆍ/*고로여* 五眼ㅣ/*오안이* 成就ᄉᆞᆫᄃᆞᆫᄀᆞ ᄒᆞᆫᄀᆞᆫ/*셩취ᄒᆞ거기신ᄂᆞᆫ* 時十/*기희* 見ᄃᆞᆫᄀᆞ 乃/*보신나* 見ㄹᄃᆞㆍ/*보오긔* 所ᄒᆞᆷㆍ/*바아* 無ᄒᆞᆫᄃᆞᆫ 分/*업스시며* 行ᄒᆞᆷ十/*힝아히* 亦ᄉᆞᆫᄀᆞ/*도ᄒᆞᆫ* 不受ᄉᆞᆷᄒᆞᆷ/*불슈ᄒᆞ져* 不行ᄒᆞᆷ十/*불힝아히* 亦ᄉᆞᆫᄀᆞ/*도ᄒᆞᆫ* 不受ᄉᆞᆷᄒᆞᆷ/*불슈ᄒᆞ져* 非行 非不行ᄒᆞᆷ十/*비힝 비불힝아히* 亦ᄉᆞᆫᄀᆞ/*도ᄒᆞᆫ* 不受ᄉᆞᆷᄒᆞᆷ/*불슈ᄒᆞ져* 乃ᄒᆞᆷ/*ᄒᆞ아사* 至ㅣ/*리르리* 一切法ᄒᆞᆷ十ㅏ/*일쳬법아히도* 亦ᄉᆞᆫᄀᆞ/*도ᄒᆞᆫ* 不受ᄉᆞᆷᄒᆞᆷᄉᆞᆫᄀᆞᆫᄀᆞᆫᄒᆞᆷㅎㅣ/*불슈ᄒᆞ져ᄒᆞ시며ᄒᆞ심ᄉᆞ다*

直譯/讀 自相(은) 없[無]다네≪§71.1≫ 他相(도) 없[無]다네 하는 까닭 때문[故]이라≪§19.1≫ 五眼이 成就하고 계신 (적의) 때[時]에 보[見]셨으나 보[見]온 것(인)≪§53.10≫ 바[所] 없[無]으시며 (修)行에 또[亦]한 (感)受하지 않는[不]다네≪§71.1≫ (修)行하지 않음[不]에 또[亦]한 (感)受하지 않는[不]다네≪§71.1≫ (修)行하지 않음[非] (修)行하지 않지[不] 않음[非]에 또[亦]한 (感)受하지 않는[不]다네≪§71.1≫ 이에싸[乃]≪§22.1≫ 이르[至]리 一切法에서도 또[亦]한 (感)受하지 않는[不]다네 하시며 ≪確言코≫(그리) 하신다≪!≫≪§72.5≫

白文/ 譯注 無自相無他相故 五眼成就時見無所見 行亦不受 不行亦不受 非行非不行亦不受 乃至一切法亦不受 /"自相[自體의 樣相]은 없[無]으며 他相[他體의 樣相]도 없[無]는 때문[故]으로 五眼[前注ㄴ]이 成就한 때[時]에 보았[見]으니 본[見] 바[所] 없[無]으며 (修)行에서 또[亦]한

(感)受하지 아니[不]하니라. 不(修)行에서도 또[亦]한 (感)受하지 아니[不]하니라. 非(修)行과 非不(修)行에서도 또[亦]한 (感)受하지 아니[不]한 것이니라. 乃至 一切의 (佛)法에서도 또[亦]한 (感)受하지 아니[不]한 것이니라."

白文/ 日譯 「自相も無く他相も無きが故に。五眼も成就する時は、見れども所見無し。行も亦受けず、不行も亦受けず。非行非不行も亦受けず、乃至一切法も亦受けず。」

[57] <15:18~19>

原文/讀 菩薩ㅣ/*보살이* 成佛ᄒᆞ尸ㆍ/*셩불ᄒᆞ긔* 未ㅣᄒᆞᄂᆞᆫ/*안이ᄒᆞᄂᆞᆫ* 時十/*기희* 菩提ㄹㆍ/*보리를* 以ᄒᆞᆞ/*사아* 煩惱ㆍ/*번노* 爲ᄒᆞᄂᆞᆫ尸ㅣ/*ᄒᆞ사거긔여*[106] 菩薩ㅣ/*보살이* 成佛ᄒᆞᄉᆞᆨᄀᆞᆫ ᄒᆞᄂᆞᆫ/*셩불ᄒᆞ건ᄂᆞᆫ* 時十/*기희* 煩惱ㄹ/*번노를* 以ᄒᆞ/*사아* 菩提ㆍ/*보리* 爲ᄒᆞᄂᆞᆫ ᄉᆞᆨㅣ/*ᄒᆞ사겸ᄉᆞ다*

直譯/讀 菩薩이 成佛하기(를)≪§53.3≫ 아직[未] 아니하는 (적의) 때[時]에 菩提를 써[以]서≪§84.2≫ 煩惱(를) 삼[爲]았음이라≪§19.19≫ 菩薩이 成佛헸는 (적의) 때[時]에(는) 煩惱를 써[以]서 ≪確言코≫ 菩提(로) 삼[爲]았다≪!≫≪§72.3≫

白文/ 譯注 菩薩未成佛時 以菩提爲煩惱 菩薩成佛時 以煩惱爲菩提 / "菩薩이 아직[未] 成佛하지 않은 때[時]에는 菩提[佛陀 正覺의 智]를 갖[以]이므로 煩惱가 되[爲]나, 菩薩이 成佛한 때[時]에는 煩惱를 갖[以]이므로 菩提[前注↖]가 되[爲]는 것이니라."

白文/ 日譯 「菩薩の未だ成佛せざる時は菩提を以て煩惱と爲し。菩薩の成佛する時は、煩惱を以て菩提と爲す。」

---

106) 위 "爲ᄒᆞᄂᆞᆫ尸ㅣ"에서 '爲ᄒᆞᆞ_'의 '爲'자가 독음 'ᄒᆞ사_'의 'ᄒᆞ'인지 또는 'ᄒᆞ기사_'의 'ᄒᆞ기'인지 아니면 音讀의 '위사_'의 '위'인지 미상이다. 필자는 전자(ᄒᆞ)를 취한다. 後行의 "爲ᄒᆞᄂᆞᆫ ᄉᆞᆨㅣ"의 '爲ᄒᆞᆞ_'도 같은 경우이다.

[58] <15:19~20>

原文/讀 何以故ㅇㄱ/***하이고든*** 於第一義ㅇㅓ/***데일의아히*** 而ㅱ/***이로*** 二ㆍ/***이*** 不矢ㄱㅇㅱ/***안딘ᄃᆞ로*** 故ㅅㅐㅿ/***고로이며*** 諸ㄴㄱ/***모ᄃᆞ신*** 佛ㅐㄴㄹ/***부텨이시긔*** 如來ㅣ/***여릐여*** 乃/***ᄒᆞ아사*** 至ㅐ/***리르리*** 一切法ㅣㅅㅇㄱ/***일체법여호유는*** 如ㅐㄴㄱㅇㅱ/***여이신ᄃᆞ로*** 故ㅅㅣ/***고로여***

直譯/讀 왜냐하[何以故]면 第一義에 있어서[於] 이[而]로 二가 아닌[不] 까닭 때문[故]이며 모두[諸]이신 부처[佛]이신 분≪§52.2≫ 如來이나 이에써[乃]≪§22.1≫ 이르[至]리 一切法이라 한다는 것(들)은≪§14.1 /18.9≫ (眞)如이신 까닭 때문[故]이라

白文/ 譯注 何以故 於第一義 而不二故 諸佛如來 乃至一切法如故 /"왜냐하면[何以故] 第一義[究極의 眞理]에 있어서[於] 그리하여[而] 不二[不對立] 때문[故]으로 모든 부처[佛] 如來[修行完成者]와 乃至 一切의 (佛)法도 (眞)如인 때문[故]이라."

白文/ 日譯 「何となれば第一義に於いては不二なるが故に。諸佛如來も乃至一切の法も如なるが故に。」

[59] <15:21~22>

原文/讀 佛十ㆍ/***부텨희*** 白ㅇ/***ᄉᆞᆯᄇᆞ아*** 言ㄴㄹ/***니르시긔*** 云何ㅌㅣ/***어듸ㅅ여*** 十方ㅌ/***시방ㅅ*** 諸ㄴㄱ/***모ᄃᆞ신*** 如來ㅣ/***여릐여*** 一切 菩薩ㅣㅅㅈ/***일체 보살여호리*** 文字ㄹㆍ/***문ᄌᆞ를*** 離ㆍ/***여희디*** 不ㅎㅅㅇ/***안ᄃᆞᆯ하아*** 而ㅱ/***이로*** 諸ㄱ/***모ᄃᆞᆫ*** 法相ㅇㅓ/***법샹아히*** 行ㅅㄴㅋㅎㅌㅣㅅㅇㅁㅇㅎㅇㅎ/***힝ᄒᆞ심ㅅ다ᄒᆞ고오유오***

直譯/讀 부처님[佛]께 사뢰[白]어 말씀하[言]시기(를)≪§53.7≫ 어찌[云何]어 十方의 모두[諸]이신 如來이나 一切 菩薩이라 하올 이(가)≪§18.12 /48.1≫ 文字를 떠나[離]지 아니[不]하여 이[而]로 모든[諸] 法相에(서) ≪確言코≫(修)行하신다≪!≫고 한다는 것이오?≪§75.3≫

白文/ 譯注 白佛言 云何十方諸如來一切菩薩不離文字 而行諸法相/(大王이) 佛(陀)에게 사뢰[白]어 말씀하[言]기를 "어째서[云何] 十方[八方上下]의 모든 如來[修行完成者]와 一切의 菩薩들은 文字[經書]를 떠나[離]지 아니[不]하고서, 그리하여[而] 모든[諸] 法相[諸法의 樣相]을 (修)行한다는 것이오?"

白文/ 日譯 佛に白して言さく「云何が十方の諸の如來と一切の菩薩とは、文字を離れずして而も諸法の相を行ずるや。」

[60] <15:22~24>

原文/讀 大王下/***대왕하*** 法輪リ ー ンフ のフ/***법륜이다혼ᄃᆞᆫ*** 者法本 如リ ケ/***법본 여이며*** 重誦 如リ ケ/***듕숑 여이며*** 授記 如リ ケ/***슈긔 여이며*** 不誦偈 如リ ケ/***불숑게 여이며*** 無問/***무문*** 而/***이*** 自說 如リ ケ/***ᄌᆞ설 여이며*** 戒經 如リ ケ/***계경 여이며*** 譬喩 如リ ケ/***비유 여이며*** 法界 如リ ケ/***법계 여이며***

直譯/讀 大王이시여! 法輪이다(고) 한다면 法本(도) (眞)如이며 重誦(도) (眞)如이며 授記(도) (眞)如이며 不誦 偈(頌)(도) (眞)如이며 無問 而 自說(도) (眞)如이며 戒經(도) (眞)如이며 譬喩(도) (眞)如이며 法界(도) (眞)如이며

白文/ 譯注 大王 法輪者 法本如 重誦如 授記如 不誦偈如 無問而自說如 戒經如 譬喩如 法界如/(부처님 말씀이)"大王이시여! 法輪[法眞理의 輪]이란 法本[一切法의 本體]도 (眞)如이며 重誦[重復의 誦經]도 (眞)如이며 授記[成佛約束의 授與]도 (眞)如이며 不誦偈[偈頌의 不誦讀]도 (眞)如이며 無問而自說(經)[阿彌陀經]도 (眞)如이며 戒(律)經[범.Patimokkha]도 (眞)如이며 譬喩(의 談義)도 (眞)如이며 法界[범.Dharma 佛法의 根源]도 (眞)如이며,"

白文/ 日譯 (佛の言はく)「大王よ、法輪とは、法本も如なり。重誦も如なり。授記も如なり。不誦偈も如なり。無問自說も如なり。戒經も如なり。譬喩も如なり。法界も如なり。」

[61] <15:24~25-16:1>

原文/讀 本事 如ㅣ亇/*본사 여이며* 方廣 如ㅣ亇/*방광 여이며* 未曾有 如ㅣ亇/*미증유 여이며* 論議 如ㅣ亇ㅅナㅣ/*론의 여이며ᄒᆞ겨다* 是ㅣ/*이* 名味句ㄱ/*명미구는* 音聲ㄷ/*음성ㅅ* 果ㅣㄱㅣ/*과인여* 文字記句ㄱ/*문ᄌᆞ긔구는* 一切之ㄷ/*일체잇* 如ㅣナㅣ/*여이겨다* 若ㄷ/*마치ㅅ* 【 * 文字乙丶/*문ᄌᆞ를* 】 取ソナᄉᆞㄱ/*취ᄒᆞ겨유는* 【 *者 空乙丶/*공을* 行ソ丶/*힝ᄒᆞ* 不多ノチリナㅣ/*안돌호리이겨다* 也 】

直譯/讀 本事(도) (眞)如이며 方廣(도) (眞)如이며 未曾有(도) (眞)如이며 論議(도) (眞)如이며(라) 하였다 이[是] 名味句는 (說法한) 音聲의 (佛)果인 것이라≪§19.2≫ 文字·記·句 (등)은 一切(에)의 것≪§3.5≫ (眞)如이었다.(萬)若 【 * 文字를 】 取하였다는 것은≪§14.2≫ 【 * 空(無)을 (修)行하지 아니[不]하올 것이었다 】

白文/ 譯注 本事如 方廣如 未曾有如 論義如 是名味句 音聲果文字記句 一切如 若取【 * 文字者不行空也… 】/本事(說)[범.itivṛttaka:十二部經의 一]도 (眞)如이며 方廣[범.Vaipulya:大乘經典]도 (眞)如이며, 未曾有[범.adbhutadharma:最勝經]도 (眞)如이며, 論議(經)[범.upaesa:經文要義의 論議]도 (眞)如이며 이[是] 名味句[經典 成句]도 音聲[經誦의 發音聲]도 (佛)果인 文字·記·句[經典·注釋·文句]도 一切는 (眞)如이니라.(萬)若 【 * 文字[經典注釋]만을 】 取한다는 것은 【 * 空(無)을 (修)行하지 아니[不]하는 것이니라. …" 】

白文/ 日譯 「本事も如なり。方廣も如なり。未曾有も如なり。論義も如なり。是の名味句も音聲も果たる文字記句も一切如なり。若し【 * 文字を 】取るものは【 空を行ぜざるなり。… 】」

5.

이제까지 논의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처음 시도한 「모든 漢字의 새김까지 포함하여 '순 우리말'(正音表記)로만 풀이한 해독문」(이탤릭체 太字 부분)은 위 4.5. [해독문]이 그 전부이다. 간간이 미숙한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 중에서 특히 「單字+ㅅ(ᄒᆞ)系」의 해독은 이로써 正解라고 믿어진다.

(2) 이제까지 問題吐인 "_ㅎㄴㅣ"(音叱如)는 우리가 추정했던 當爲法인 "－함이 마땅하다."의 서법은 決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새로 필자가 제안하는 確言法이라야 正解로 믿는다.

(3) 또하나 여기서 시도한 특징은 위 解讀文의 현대어 풀이에서 모든 '조사와 어미'가 졸고(1995c:174-189)의 모든 '조사와 어미'(표)와 완전히 一致(≪ ≫표 대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도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석독구결 토풀이의 正解는 "同一吐는 언제나 同一義이다."라는 命題로서 여기에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4) 이제까지 필자가 추정한 토"ᄉᆞ"(原字: 於의 略字/유)의 독법 및 의미 기능은 위 傍證(脚注)에서도 합리성을 충분히 논증하였다고 생각한다.

(5) 여기서 토 "ᄉᆞ"의 특징의 하나는 동명사 어미로서 주로 主格(또는 主題)와 연결시켜 준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 낸 것이다.

(6) 이제까지 필자가 추정한 토 "ᄇᆞ"(原字: 居의 略字/긔)의 독법 및 의미 기능은 舊仁에서는 해독에 한 점도 모순됨이 없이 고루 만족을 제공함으로써 解讀되었다고 믿어진다. 다만 略字(ᄇᆞ← 居)가 아닌 鄕札의 正字 'ᄇᆞ'와는 別字이므로 서로 연계해서 풀이가 안되는 점은 당연하지만, 기실 일반에 아직은 수용이 안되므로 아쉬움으로 남는다. 後考를 기다린다.

(7) 여기서 토"ᄇᆞ"의 특징의 하나는 동명사 어미로서 主格(또는 主題) 외의 조사나 어미를 연결시켜 준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8) 이제 舊仁의 完譯은 冒頭의 다른 4 개 석독구결 자료들도 모두 이 같은 解讀이 거의 완료되고 나서, 그리고 또한 그와 同一吐들이 함께 항상 傍證으로 同一義를 존속시켜 줄 때, 비로소 필자의 해독은 완성될 것으로 인식한다.

(9) 위에서 필자가 이 정도만이라도 해독할 수 있게 한 것은, 오로지 先學들의 부단한 각고와 그 업적에 힘입은 것이었음은 췌언의 여지가 없다. 나머지 필자의 未盡과 誤讀은 後功에 이어져 보다 정밀을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 (1997.6.27.)

참고 문헌

1. 논저

강길운(1995), 『향가신해독연구』, 학문사.

강신항(1973), 『사성통해연구』, 신아사.

고정의(1987), "정도사오층석탑조성형지기의 이두", 『울산어문론집』 3, 울산대.

김두찬(1986), "구역인왕경 토 'ㅇ'에 대하여", 단국대 대학원(미출판물 보고서), 단국대.

_____(1987), "고려판 남명집의 구결여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1990), "구역인왕경 구결 'ᄂᆞᆨ/혼'에 대하여", 제6회 구결연구회 발표요약문.

_____(1991), "구역인왕경 몇 구결자에 대하여", 제7회 구결연구회 발표요약문.

_____(1992), "구역인왕경과 범망경의 구결에 대하여", 구결공동연구회 발표요약문.

_____(1993), "구인경의 구결목록에 대하여", 구결공동연구회 발표요약문.

_____(1994a), "향가에서 '於'자의 해독", 구결공동연구회 발표요약문.

_____(1994b), "구역인왕경 석독구결(원백문) 해독", 제11회 율곡학술세미나 발표요약문.

_____(1995a), "석독구결 'ㄹ'에 대하여", 구결공동연구회(동기) 발표요약문. 충남대

_____(1995b), "구역인왕경 구결의 해독", 구결공동연구회(하기) 발표요약문. 단국대(천안)

김두찬(1995c), "구역인왕경 구결 기능체계", 『소곡 남풍현 선생 회갑기념론총』 태학사.
김영만(1986), "구역인왕경의 석독표기 소고(1)", 『국어학신연구』, 탑출판사.
김완진(1980), 『향가해독연구』, 서울대 출판부.
남풍현 · 심재기(1976), "구역인왕경의 구결연구(기 1)", 『동양학』 6.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남풍현(1977), "향가와 구역인왕경 구결의 '之叱'에 대하여", 『언어』 2-1.
_____(1984), "구역인왕경 구결 텍스트", 단국대 대학원 교재.
_____(1985), "구역인왕경 석독구결의 연대", 『동양학』 15,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_____(1993), "고려본 유가사지론의 석독구결에 대하여", 『동방학지』 81, 연세대 국학연구원.
_____(1994), "신역 화엄경 권 14의 고려시대 석독구결", 구결강독회 발표 요약문.단국대 문학관.
남풍현(1996a), "고려시대 석독구결'ㄲ/ㄹ'에 대한 고찰", 『구결연구』 제1집.
_____(1996b), "'금광명경 권3' 석독구결에 나타난 ㄲ의 용법에 대하여", 『이기문 교수 정년퇴임기념론총』
도수희(1987), "백제어 '泉 · 井'에 대하여", 『국어학』 16, 국어학회.
박희숙(1984), "대명률직해의 이두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명지대.
심재기(1975), "구결의 생성 및 변천에 대하여", 『한국학보』 1, 일지사.
_____(1975), "구역인왕경 구결에 대하여", 『미술자료』 18, 국립박물관.
안병희(1977a), 『중세국어 구결의 연구』, 일지사.
_____(1977b), "양잠경험촬요와 우역방의 이두의 연구", 『동양학』 7,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_____(1987c), "균여의 방언본 저술에 대하여", 『국어학』 16, 국어학회.
_____(1987d), 『이문과 이문대사』, 탑출판사.
양주동(1965), 『고가연구(증정)』, 일조각.
유창균(1994), 『향가비해』, 설형출판사.
이광호(1982), "중세국어의 대격연구", 『국어연구』 28, 국어연구회.
이기문(1972), 『국어사개설(개정)』, 민중서관.
이기문(1977), 『국어 음운사 연구』, 탑출판사.
이기영(1978), "인왕호국반야경", 『불전해설』목탁신서 2. 한국불교연구원출판부.

이기영(1982), "인왕반야경과 호국불교", 『한국불교연구』, 한국불교연구원 출판부.
이동림(1982), "구역인왕경의 구결해독을 위하여", 『논문집』 21, 동국대 대학원.
이승녕(1981), 『중세국어문법(개증)』, 을유문화사.
이승재(1990), "고려본 범망경의 구결", 『애산학보』 9, 애산학회.
_____(1996), "고려중기 구결자료의 주체경어법 선어말어미'_ㅏ(겨)_'"
_____(1992), 『고려시대의 이두』, 태학사.
차상원(1984), 『신완역 서경』, 명문당.
최범훈(1982), "「서석」의 특수구결에 대하여", 『경기대 논문집』 11, 경기대.
현평효(1974), "고려가요에 나타난/-고시-형태에 대하여", 『국어학』 3, 국어학회.
현평효(1975), "고려가요에 나타난/-고시-형태에 대하여", 『국어학』 3, 국어학회.
홍기문(1956), 『향가해석』(영인본), 과학원 출판사.
_____(1957), 『이두연구』(영인본), 과학원 출판사.
황태섭(1972), "인왕호국반야경의 연구"(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小倉進平(1929), 『鄕歌及び吏讀の硏究』, 경성제국대학.
鮎貝房之進(1931), 『雜攷 俗字攷 俗文攷 借字攷』, 國書刊行會.

2. 자료

慶州司首戶長行案 其二(洪武十二:1379), '爲於爲'(p.291), 이승재, 『고려시대의 이두』, 태학사.
高麗大藏經(高宗三十八年:1251), 영인본, 동국문화원.
功臣錄券(洪武二十八:1395),보물 제437호 '爲於爲'(p.11a), 金煥德 소장품.
舊譯仁王經 上[落張 五枚](12세기 중엽 추정),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
楞嚴經(建文 三年:1401), 영인본.宋成文 소장본.
楞嚴經諺解(順天 六年:1462), 영인본, 대제각.
大明律直解(洪武二十八年:1395), 복각본, 조선총독부 중추원.
朴通事 上(中宗 十二年:1517), 영인본, 경북대 국어국문학연구실.

梵網經菩薩戒(大德 丙午:1306), 嚴仁燮 소장본.
梵網經菩薩戒(大德 丙午:1306),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鳳林寺眞鏡大師塔碑(龍德三年:923), 韓國 古代金石文Ⅲ(1992:211.脚注 113), 한국고대사연구소.
佛說四十二章經(至正 辛丑:1361), 범우사, 尹炯斗 소장본.
佛說四十二章經(현대어 번역판), 權五虎, 선문출판사.
佛說仁王章經般若波羅蜜(高宗 己亥:1239), 高麗大藏經卷五(영인본), (주)동국문화사.
四聲通解(中宗 十二年:1517), 영인본, 서울대 국학연구실.
尙書都官帖(景定三年:1262), '於爲敎矣'(pp.95-96), 許興植, 『한국의 古文書』, 民音社.
書釋(16세기 추정)의 일부분, 崔範勳 소장본.
素谷 南豊鉉先生回甲紀念論叢(1995), 태학사 간행.
新修大藏經 第二十三卷 經疏部(복각본), 日本大藏出版(주) 發行.
梁山通度寺國長生石記(元豊 八年:1085), '令是於爲等以立'(pp.575-581), 鮎貝『雜攷』引用, 국서간행회.
瑜伽師地論(卷二十/12세기 말엽 추정), 남풍현 교수 소장본.
六祖壇經諺解(弘治 九年:1496), 일사본,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
李基文敎授 停年退任紀念論叢(1996), 간행위원회, 신구문화사.
仁王經般若波羅蜜經『國譯大藏經(經典部第四卷)』 日譯本(1928), 日本 東方書院. 宗成 스님 所藏本.
仁王經般若波羅蜜經『國譯一切經(釋經論部下)』 日譯本(1936), 日本 大東文化社. 南豊鉉 교수 所藏本.
長城監務官貼文(洪武 十一年:1378), '爲良於爲'(pp.620-636), 鮎貝房之進, 『雜攷』引用, 국사간행회.
鄭津開國原從功臣錄券(太祖 四年:1395), '爲於爲'(p.336), 許興植, 『한국의 古文書』 민음사.
朝鮮金石總覽.上卷(1919), 조선총독부, 영인본, 아세아문화사.
合部金光明經(卷三/12세기 말엽 추정), 남권희 교수 소장본.
華嚴經(卷十四/12세기 중엽 추정), 남권희 교수 소장본.
華嚴經[1](1993/한글대장경), 동국역경원.
華嚴經疏(卷三十五/12세기 초엽 추정), 남권희 교수 소장본.

3. 사전

康熙字典(康熙 五十五:1716), 賈景德(복각본), 台灣 花蓮書店.
古語辭典(1997), 南廣祐 편저, 교학사.
古今漢韓字典(1995), 南廣祐 편저, 인하대학교 출판부.
光州版千字文(宣祖 八年:1575),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大漢和辭典(1955:전13권), 諸橋轍次 편, 日本 大修館書店.
佛光大辭典(1988), 台灣 佛光出版社.
佛教語大辭典(1981), 中村 元 편, 日本 東京書籍(주).
佛教學大辭典(1988), 이운허 편, 동국역경원.
새 字典(1961), 김민수 편, 동아출판사.
新華字典(1971:修訂重排本), 중국 상무인서관.
이두사전(1976), 장지영 · 장세경 공편, 정음사.
吏讀集成(1937), 조선총독부 중추원.
李朝語辭典(1964), 劉昌惇 편, 연세대 출판부.
中文大辭典(1973:전10권), 張其昀 공편, 台灣 中華學術院.
韓國佛教大辭典(1982:전7권), 吳杲山 편, 寶蓮閣.
B.Karlgren(1964), Grammata Serica Recensa(offset 판), Stockholm Sweden.

참고자료 : 1. 舊譯仁王經(落) 五張[영인판]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 본 冊子의 後添.*
2. 舊譯仁王經(落) 五張의 借字體系(소곡 남풍현 선생 회갑기념 논총, p.163) 참조.
3. 書釋(복사본), 위 참고자료 2의 p.213에 실린 1面(7b) 참조.

---

* 舊仁經(원본) 촬영에 협조해 주신 박성종 교수와 동국대 박물관 박도화 연구원께 고마운 뜻을 표한다. (필자, 1997.7.29)